

인천민주로드 길잡이 양성과정 자 료 집

일시 : 2023년 3월 2일~4월 4일

장소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2023년 인천바로알기

인천민주로드 길잡이 양성과정

3월 2일(목) ~ 4월 4일(화)

인천민주화운동센터 3층 교육실

- 인원 : 총 20명 내외(민주·평화·인권애 관심이 있고, 인천민주화운동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
- 이수시간 : 3시간*10회/2시간 *1회 총 32시간 (답사계획 및 시연 포함) 90% 이수
*보충강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 / 2월 22일까지 idph@daum.net로 제출

	일자	주제
1	3월 2일(목) 14:00~17:00	인천민주화운동사 개괄
2	3월 7일(화) 14:00~17:00	노동자의 길 안내(주안권, 중동구권)
3	3월 10일(금) 14:00~17:00	인천민주로드 답사(주안권)
4	3월 14일(화) 14:00~17:00	인천민주로드 답사(중동구권)
5	3월 16일(목) 14:00~17:00	부평권 안내(평화의 길/노동의 길)
6	3월 21일(화) 14:00~17:00	인천민주로드 답사(부평권-평화의 길)
7	3월 23일(목) 14:00~17:00	인천민주로드 답사(부평권-노동의 길)
8	3월 28일(화) 13:00~16:00	강화권 안내 및 답사
9	3월 31일(금) 14:00~16:00 16:00~17:00	교수학습
		응급처치법
10	4월 4일(화) 10:00~12:00 14:00~17:00	4대 폭력 예방교육
		시연 및 마무리

* 교육 여건에 따라 비대면 교육 가능

 인천민주화운동센터 (032-862-5353)

차례

인천민주로드 길잡이 양성과정

◆ 인천민주화운동사 개괄	07
이우재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 노동자의 길 안내(주안권.중동구권)	25
이형진 민주노총 인천지역 일반노조 위원장	
◆ 주안권 민주로드 안내	44
이형진 민주노총 인천지역 일반노조 위원장	
◆ 중동구권 민주로드 안내	57
김종운 자연과사람들 대표	
◆ 부평권 민주로드 안내(평화의 길/노동자의 길)	81
김현석 인천생태역사공간연구소 대표	
◆ 부평권 민주로드 안내(평화의 길)	
김현석 인천생태역사공간연구소 대표	
◆ 부평권 민주로드 안내(노동의 길)	
이형진 민주노총 인천지역 일반노조 위원장	
◆ 강화권 민주로드 안내	100
박흥열 강화시민회의	
◆ 응급처치법	
박선영 미추홀 소방서	
◆ 교수학습	106
김석봉 비폭력평화물결 대표	
◆ 4대 폭력 예방교육	
도우진 행복마스터 인천경찰청	

인천 민주화 운동의 개괄

- 저항에서 혁명으로, 혁명에서 개혁으로
- 학생에서 민중으로, 민중에서 시민으로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우재

<민주주의의 역사>

- 민주주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
-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

”민주화운동사“

1972년 10월 17일 유신체제의 성립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사망

저항의 일상화

민주화 운동의 시작

지식인, 학생, 민중의
결합

혁명의 모색

4.19혁명

-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제 4대 정·부통령 선거 이승만 정권이 대대적인 부정선거, 관권선거 자행
 - 1960년 2월 28일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의 시위를 필두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 결국 4월 26일 이승만 하야
-

4.19혁명

- 4월 19일-인천공업고등학교(현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천지역에서 최초로 부정선거 항의 시위 전개
 - 4월 20일~23일까지-인천지역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위
22일- 동인천역, 경동사거리, 신흥동로터리 일대 수천명 시위, 투석전
 - 21일-인하공대 학생들 참여
 - 인천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시위에 적극적이지는 않았음.
-

1) 유신 이전의 박정희 정권 반대 투쟁

한일회담반대투쟁

- 1964년 박정희 정권이 한일국교정상화를 추진 야당과 학생들이 1964년(“6.3사태”)과 1965년에 전개한 투쟁
 - 1964년 3월 27일 인천시내 7개 중고등학교 학생들 9,500여 명 “대일굴욕외교반대” 한일회담 반대 시위
 - 1965년 6월 22일 인하공과대학 학생800여 명 학내에서 “한일회담반대성토회”를 개최, 가두시위, 경찰과 투석전
-

1) 유신 이전의 박정희 정권 반대 투쟁

삼선개헌반대투쟁 :

- 1969년 대통령 3선 연임 가능 개헌 추진
1969년 6월부터 12월까지 야당과 학생들의 개헌저지 투쟁
- 1969년 7월 5일-인하공대학생 200여 명이 성토대회 개최
- 1969년 9월 11일-인하공대학생 500여 명이 성토대회 개최
- 인하공과대학 학생 시위로 9월 12일부터 무기한 휴강/10월 20일 개강
 - * 야당과 지식인, 학생 중심
 - * 문제에 대한 일시적 투쟁->문제가 사라지면서 소멸, 연속성X
 - * 인하공과대학이 공과대학인 관계로 학생운동이 활발하지 못함

2) 유신체제의 성립

-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헌법을 무시한 군사 쿠데타
-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에 의해 유신헌법 통과
-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
 -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선출(간선제)
 - 대통령 연임 제한 조항의 폐지(종신집권)
 - 국회의원 1/3 대통령이 임명, 법관 임명(대통령 일인 독재국가)
 - 필요 시 일부 헌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 발동권

*** 민주주의의 종식 * 박정희 일인 종신집권 체제의 성립**

3)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 - 민주화 운동의 성립

- 1973년 10월 2일 서울대 문리대 학생들의 유신헌법 철폐 시위.
20명 구속. **최초의 유신 반대 시위**
 - 전국 대학가로 유신반대 시위 확산
 - 1973년 11월 23일 인하대 총학생회 주관 500여 명의 학생들이 민주화 요구 시위(1972년 인하대학->종합대학으로 승격)
- 1973년 12월 개헌청원백만인서명운동 -장준하, 백기완 주도
- 1974년 1월 긴급조치 1호 선포
 - 유신헌법에 대한 일체의 반대, 비방 금지
 - 위반->영장 없이 체포, 구금 / 비상군법회의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 1974년 4월 “민청학련 사건”
 - 203명이 비상군법회의에서 사형, 무기징역 등 선고 (긴급조치 4호)

- 1974년 가을 대학가 구속학생석방, 유신헌법철폐 시위 재발
가톨릭, 기독교 반유신 대열 합류:민청학련 사건(신부, 목사 연루)
 - 1974년 11월 6일 인하대 학생 천여 명 대강당 집회
“유신철폐”, “구속학생 석방”:기독교학생회, 샘동인회 등 학내 서클중심
 - 1974년 8월 26일 지학순 주교 석방 기도회, 답동성당,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 사제 130여명, 신자 1,200여명 참석
 - 1974년 10월 20일 인천교구 신부, 수녀, 신자 2,500여 명 가두시위
“민주헌정실시”, “유신헌법철폐”, “구속자 석방”
 - 1974년 11월 20일 인천교구 사제단과 신자 1,200여 명
답동성당에서 지학순주교의 석방과 인권회복을 위한 기도회

* 가톨릭이 민주화 운동에 적극 나서게 된 계기

‘인천교구’ 인천민주화운동의 중심

‘답동성당’, ‘가톨릭회관’ 인천민주화운동 성지

- 1975년 2월 12일 유신헌법 찬반 국민투표 실시
- 1975년 2월 15일 민청학련 사건 구속학생 대부분 형집행정지 석방
- 1975년 3월 신학기가 시작->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석방된 학생들
의 복교 문제->학생 시위 재발-> 유신반대 시위로 확산
 - 1975년 4월 8일 긴급조치 7호 선포: 학생 시위가 심했던 고려대 휴교령
 - 1975년 4월 11일 서울대학생 김상진이 학내 시위 도중 할복 자살
 - 1975년 4월 10일 인하대 총학생회 주도로 비상학생총회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자유와 민주를 회복하라” 등의 결의문 채택
용현고개까지 가두 시위/총학생회장 문희탁 등 구속

4)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9호 선포

(긴급조치9호 시대)

-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됨
 - 최후의 긴급조치이자 완결판.
 - 긴급조치 1호와 비슷하나, 비상군법회의가 아닌 일반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하였고, 형량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조정
 - 75년 봄 월남의 패망을 빌미로 국가안보상의 긴급한 조치로
선포하였으나, 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사실상 일상 조치로 기능
 -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된 학생들은 석방 후 학교 복학 금지
 - 학생회를 해산하고 전국의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학도호국단을 결성하도록 하여 그 간부를 교장이나 총장이 임명
 - 대학 내에 경찰과 정보기관원들이 상주

- 1975년 5월 22일 서울대학생들 김상진 열사 장례식 거행
긴급조치9호 위반 최초의 사건
1976년 말까지 대학가에서 반유신 시위는 종적을 감춤
 -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 3.1민주구국성명 발표
반유신 운동의 대표적 사건
윤보선, 김대중, 함석헌, 문익환, 지학순 등 재야 원로 들이 주축.
 - 구속과 제명이라는 조치가 일견 학생들을 위축시킨 듯했으나,
실제로는 많은 학생들을 직업적 민주화 운동가로 성장,
학생운동 지하화, 조직화
 - 점조직 형태로 지하화한 학생운동 조직들이 서울로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음.
 - 특정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유신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일상적 운동으로 민주화운동이 자리잡아가기 시작
(민주화운동이 정립되고 조직화됨)
 - 독립 세력으로서의 민주화운동권이 성립되어 가기 시작함(재야)

- 1977년~ 서울대, 연세대 등 학생들의 반유신 시위가 되살아나기 시작
 - 1977년 4월, 10월, 11월 서울대에서 학생들의 반유신 시위
긴급조치9호가 선포 이후 최초로 서울대 20일간 휴업
 - 1977년 10월 26일 연세대에서 학생들의 반유신 시위 발생
긴급조치 9호 이후 최초로 경찰의 제지를 뚫고 가두 시위(신촌로터리)
 - 1977년 11월 12일, 14일, 18일 서강대 반유신 시위
- 1977년 8월 19일 인천교구 사제단이 정의구현 전국사제단과
함께 답동성당에서 “정의 구현을 위한 특별기도회” 개최
신포시장, 동인천역을 향해 대형 스피커를 설치,
유신독재 규탄 방송 진행, 9월 4일 김병상 신부 구속
인천의 가톨릭 신자들이 민주화운동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됨

- 1978년 대학생들의 반유신 시위가 더욱 활성화
 - 1978년 6월 26일 광화문 : 산발적, 소규모 대학생들의 가두시위
 - 1978년 10월 17일 유신 선포일을 기해 광화문 가두시위 계획,
준비하던 서울 시내 6개 대학 연합 그룹 경찰 체포
 - 1978년 9월 28일 인하대생 조용호, 안영근 등
“민주회복에 관한 인하대생의 선언문” 유인물 살포
 - 1978년 10월 17일 인하대생 조용호, 김명식, 곽한왕 등
유신철폐 주장 유인물 교내살포
 - 1978년 11월 3일 인하대생 김상우, 박성룡, 서병희 등
유신철폐 요구 학내 시위로 긴급조치9호 위반 구속
 - 1978년 11월 13일 인하대생 조용호, 안영근, 양홍영 등
유신철폐 요구 유인물 살포로 긴급조치9호 위반 구속
구속자들은 1977년 조직된 인하대 비공식 독서 모임 “지성” 회원

- 1978년 12월 10일 앰네스티 인천 지부 설립
지부장 : 황상근 신부
실제 운영 : 민주화운동에 관심이 많은 지역 청년들 중심
앰네스티인천 지부는 인천민주화운동의 구심(1980년 5월 해산)

- 1978년 인천에서 서울 통학 대학생들 주축
사회과학 독서모임 “기러기”, “사우”, “통학생회” 창립
지티(지역팀)는 인하대와 함께 80년대 인천 학생운동의 중심

“인천 민주화운동권 형성”

- 1979년 10월 16일~ 20일까지 유신 독재 항거 시위 (부마항쟁)
-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피살 → 유신독재 종식

5) 민주노조운동의 성장

-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근로기준법 준수 요구 분신 자살
→ 지식인, 학생들이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
→ 민주화를 단지 형식적인 민주화가 아닌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으로 인식 (민중이 주인 되는 사회 모색)
→ 학생 운동가들 중 일부 선진적인 인사들 노동현장에 투신

1961년 인천 도시산업선교회 설립

1968년 강화도 심도직물 사건

1972년 동일방직에서 국내 최초로 여성 노조지부장에 선출

1973년 12월 부평4공단 삼원섬유에서 외국계 회사 최초 노조결성

- 1974년 4월 반도상사 노조 결성

→ 민주노조운동

→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으로 인천이 국내 유수의 공업지대로
변신-인천이 점차 민주노조운동의 성지가 됨

- 1976년 7월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 “나체시위” 사건.
- 1978년 2월 “동일방직 똥물 투척 사건”, 여성노동자 124명 해고
- 1978년 3월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 부활절 연합예배 시위 사건

→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야만적인 탄압의 대표 사례

→ 학생들이 민주노조운동에 대해 큰 관심을 갖는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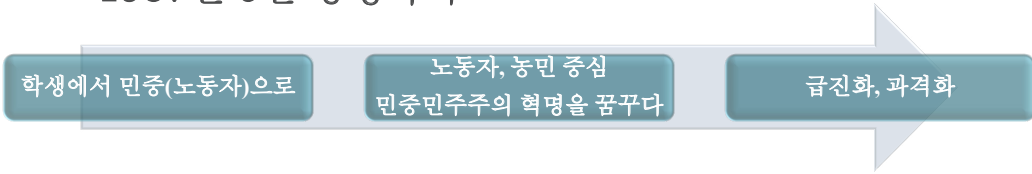
→ 노동자와 학생들의 연대가 형성되기 시작

→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이 주인 되는 사회를 모색하기 시작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사망

1987년 6월 항쟁까지



1) 1980년 민주화의 봄과 광주민주항쟁

- 1980년 3월 유신 시절 제적 학생들 복교 허용
 - 인하대에서도 조용호를 비롯한 13명 복교
- 전국 각 대학에서 학도호국단을 해체하고 학생회를 재건
 - 1980년 3월 13일 인하대 학생회 부활추진위원회가 결성
 - 4월 4일 총학생회장 선거 실시 황윤철 당선
 - 인천대에 4월말 총학생회 구성 홍성복 선출
- 5월에 들어서면서 학생들 계엄해제 등 민주화요구 시위
 - 인하대 총학생회 5월 7일부터 9일까지 “민주화대행진의 날” 규정
- 5월 15일 서울 지역 대학생들이 서울역 앞 광장에 모여 계엄해제를 요구 시위 자진 철수(서울역회군)
 - 인하대 학생 3,000여 명이 학생총회 개최, 가두 진출, 경찰과 투석전
 - 동인천역 광장에 집결, 인천교육대학생 800여 명, 인천대학생 200여 명, 전철을 타고 서울역앞 집회 합류



- 5월 18일 0시 전두환 전국 비상계엄 확대
 - 전국 각 대학에 휴교령, 군대 투입
- 5월 18일 ~ 5월 27일 광주민주항쟁
- 5월 22일 ~ 30일까지 송도고등학교 출신 이교정, 이수하 등이 광주민주항쟁의 당위성 주장, 전두환의 처단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부평과 주안 일대에 살포
 - 6월 동인천역 앞에서 답동 방향으로 대자보를 붙이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구속
- 8월 10일 인천에 살면서 서울로 통학하는 학생들로 구성된 독서모임(일명 지티) “기러기”, “사우”의 대학생들이 광주민주항쟁을 알리고 전두환 타도 촉구 유인물 제작, 살포, “전두환 타도하자”, “계엄령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학교 담에 쓰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됨. 이 사건으로 이우재, 조용호, 이정남, 권병기 등이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

2) 5공화국 출범부터 83년 12월 학원자율화 조치까지 - 학생들만의 외로운 투쟁

- 1980년 10월 27일 대통령 간선제와 임기 7년의 단임을 핵심으로 하는 제5공화국 헌법이 제정, 공포
- 1981년 1월 25일 비상계엄 해제
- 1981년 3월 3일 새 헌법에 따라 전두환 대통령 취임

→ 제5공화국 출범

→ 군복에서 민간복으로 복장만 갈아입은 군부독재정권

➤ 광주민주항쟁의 내면화

- 광주민주항쟁의 실패 원인 분석 & 기존 운동에 대한 반성이 일어남.
- 비조직 시민, 학생만으로는 총칼로 무장한 군부독재를 타도할 수 없음을 확인, 생산 현장에서 조직이 가능한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이 주체로 나설 때만이 군부독재 타도가 가능하다고 인식
- 군부독재와의 투쟁이 유혈투쟁이 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 수많은 희생 끝에 얻어질 민주주의의 내용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
-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이 주체가 된 유혈 투쟁이 성공하려면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해방이 실현되는 민주 사회를 민중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민중이 주인 되는 혁명(민중민주주의 혁명)

➤ 전두환 정권의 폭압 하에 학생들만이 외롭게 투쟁

- 1980년 5월부터 1983년 12월까지 민주화 운동으로 제적된 학생은 1,363명으로 1970년대 유신독재에 의해 제적된 768명 능가
-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으로 확산
- 정권의 폭력적 탄압에 학생운동은 이념화되고, 지하화
- 학생운동과 관련 구속, 제적된 학생들 상당수가 노동 현장에 진출하는 등 직업적 운동가의 길을 모색
- 1981년 5월 18일 인하대학교 건물 외벽에 반정부 구호가 발견
인하대학교 지하서클 “청진회”가 적발되어 홍문표, 민영수 등 구속
- 1982년 9월 23일 인천대학교 학생 김성일, 박홍민이 “전두환 군부독재 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학내 시위를 벌이다 구속

- 1982년 11월 8일 인하대학교 학생 이우청, 최진우 학내 시위로 구속
- 1983년 10월 5일 인하대학교에서 이승만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유인물 살포, 6일 인하대학교 학생 윤호영, 황홍규, 이기선 등이 “과쇼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학내 시위를 주동하다 구속 이날 시위에서 학생들이 이승만 동상을 끌어내림.

- 1981년 5월 21일 인천제일교회에서 1,000여 명의 청년들이 한완상의 강연이 끝난 후 스크림을 찢고 “전두환 과쇼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축현초등학교까지 가두 시위를 벌임. 이 사건으로 이민우, 강우경 등 7명이 구속됨.

3) 유화국면과 민주화 운동의 활성화

- 1983년 12월 21일, 80년 5월 이후 제적된 학생들 복교 허용, 학원자율화 조치 발표(소위 유화국면)
 -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을 의식한 조치
 - 대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유화 조치 실행
 - 대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화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
- 각 대학에서 학생회를 재건하고자 하는 움직임 태동
 - 1984년 11월 9일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부활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선거를 실시하여 이광현을 총학생회장으로 선출, 인하대 학생회 재건
 - 1985년 4월 16일 이재영이 학생들의 직접 선거로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어 인천대학교에서도 학생회 재건

- 노동운동의 재건
 - 1983년 10월 태평특수섬유에서 일하던 여성노동자 김용자, 김옥섭의 투쟁으로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확인된 후 블랙리스트 철폐 투쟁이 광범하게 확산
 - 1984년 4월 17일 대한마이크로 노동조합 결성
 - 80년 5.18 이후 인천 최초로 건설된 민주노조/민주노조 건설 활성화
 - 1984년 8월 서울대학 졸업 학력 숨기고 대우자동차에 입사 (위장취업)한 송경평 학력 발각 해고, 위장취업이 사회적 쟁점이 됨.
- 1983년 9월 서울에서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하 민청련, 의장 김근태)이 결성, 민청련은 5.18 이후 결성된 최초의 공개 민주화운동단체, 부문별, 지역별로 공개 민주화운동단체가 결성되기 시작하여 1985년 3월 부문과 지역을 망라한 공개 민주화운동 조직으로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하 민통련, 의장 문익환)이 결성

- 1984년 11월 19일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이하 인사연, 의장 제정구)의 출범
 - 인천에 기반을 둔 최초의 본격적인 민주화운동단체.
 - 노동운동 제외한 전 분야를 망라, 가톨릭과 개신교, 일반 민주세력의 결집체 조직, 주축은 인천거주 학생운동 출신의 청년활동가들
 - 인천 민주화운동의 중심축으로 활동
- 1985년 2월 7일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이하 인천노협, 의장 양승조) 결성
 - 1970년대 민주노조 출신 운동가들 블랙리스트 철폐 투쟁 과정에서 고립분산적인 투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직
 - 70년대 민주노조 출신이 주축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의 인천지부 : 실제 독자운영
 - 인천 노동운동의 중심, 인사연과 함께 인천의 민주화운동 주도

4) 인천5.3민주항쟁

- 사회변혁운동(민중민주주의혁명)의 확산
- 학생에서 노동자로(민중으로)

- 1985년 2월 12일 12대 국회의원 선거 신민당 돌풍&개헌정국
 - 김대중과 김영삼을 양축으로 하는 신한민주당(이하 신민당)이 대통령 직선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2.12총선에서 제1야당으로 부상
 -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놓고 전두환정권과 대립
- 1985년 4월 16일부터 25일까지 대우자동차 파업
 - 70년대 민주노조운동과 달리 남성노동자 중심 대형사업장의 파업
 - 송경평, 홍영표, 이용선 등 학생 출신 위장취업자 사회적 주목
 - 인천은 서울과 인접한 공업지대라는 점에서 많은 학생운동가들이 위장취업하여 공장 현장에 잠복

- 1985년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구로동맹파업
 -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동맹파업으로 정치투쟁적 성격이 강함.
 - 심상정 등 학생운동가들이 위장취업 주동
- 1985년 8월 25일 서울노동운동연합(이하 서노련)의 결성
 - 김문수, 심상정 등 학생운동 출신 노동운동가들이 주도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등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을 조합주의, 경제주의라고 비판하면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 전망에 기초한 정치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
 - 선진적인 노동자들이 노동자 대중을 선도하며 정치투쟁을 이끌어야 한다는 선도투쟁론 주창.
 - 민통련, 민청련 등 민주화운동단체를 노동자의 지도를 받아야 할 소부르조아 운동 단체로 규정, 비판.
 - 학생운동 출신 위장취업자들이 대거 몰려 있던 인천도 영향을 받아 인천노협이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이하 인노련)으로 개명하며 재창립
 - 서노련과 인노련이 이후 급진적 노동운동을 이끌며 노동자가 중심이 된 사회 변혁을 주창(민중민주주의혁명)

- 개헌 문제를 둘러싼 민주화운동세력의 분열
 - 민통련, 인사연 등은 야당인 신민당과 독자성을 유지한 연대를 주장하며 민주헌법 주장
 - 서노련과 인노련은 신민당을 배격한 독자노선을 주장하며 삼민헌법(민중민족민주 헌법) 주장
- 1986년 3월 서울대에서 구국학생연맹이 결성
 - 반독재투쟁 중심의 운동노선에서 반미투쟁을 중심 운동 노선 주장
 - 학생운동 진영이 반미투쟁을 강조하는 소위 NL진영과 기존의 반독재투쟁과 계급 문제를 중시하는 PD진영으로 양분
 - NL, PD 진영 문제는 학생운동을 넘어 민주화운동 전반으로 번짐

- 1986년 4월 28일 “양키 고 홈” 외치며 전방입소훈련 거부투쟁 주도하던 서울대생 김세진. 이재호 분신자살
- 1986년 4월 30일 신민당 총재 이민우 청와대에서 전두환과 여야영수회담.
 - 국회에서 정치일정 합의하면 임기 내 개헌 반대하지 않겠다 합의
 - “소수이겠지만 좌익학생들을 단호히 다스려야 한다”며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묵인하겠다는 입장 표명
 - 민주화운동 진영 내부에 신민당에 대한 분노가 만연

- * 1986년 3월부터 시작된 신민당의 “개헌추진위원회 시도지부 결성대회 및 현판식”
- * 3월 30일 광주 결성대회장에 30만 명 집결
- * 4월 5일 대구, 4월 19일 대전, 4월 26일 청주 대회에도 수많은 시민들 집결 ->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기 표출

-> 1986년 5월 3일로 예정된 인천 결성대회에
전국민의 관심 집중

➤ 인천5.3민주항쟁

- 1986년 5월 3일 오후 2시 주안 시민회관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지부 결성대회 예정
 - 수도권 일대 민주화운동세력 총집결, 12시 30분경부터 가두집회
 - 1시쯤 시민회관앞 민정당 지구당사에서 연기와 함께 화염
 - 김영삼, 이민우 등 신민당 지도부는 신민당을 비난하며 가로막는 시위대 때문에 입장을 포기, 결성대회 자동무산
 - 민주화운동세력 내부에서도 의견의 차이 때문에 통일된 행동을 이루지 못하고 각기 따로 집회를 열며 다른 구호와 주장을 쏟아냈음.
 - 오후 5시, 시위대 외곽 진출 봉쇄하던 경찰 적극적인 진압 6시쯤 진압
 - 좌경용공세력에 의한 체제전복 기도, 민주화운동세력 탄압 착수
 -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 중 129명이 형법115조 소요죄로 구속, 민통련과 인사연 관계자 등 60여 명이 지명수배
 - 1980년 5월 광주민주항쟁 이후 최대의 시위
-
- 인천의 민주화운동은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

5) 6월 항쟁

- 독자성, 선도투쟁에서 대동단결, 대중과 함께

- 인천5.3민주항쟁 실패 후 민주화운동세력 내부의 자기 성찰
- 80년 전반기 민주화운동이 급진화, 과격화한 것은 근본적으로 광주민주항쟁 진압 과정에서 보여진 전두환정권의 야만성, 폭력성에서 기인
 - 운동가 이전에 사람이 되라는 품성론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작은 차이를 강조하기보다는 큰 목표를 함께하자는 대동단결론이 대세를 형성하기 시작
 - 선진적인 활동가 위주의 선도투쟁론 대신 국민 대중과 함께하는 투쟁이 강조
 - 노동자 대신 국민 대중, 시민 주목
-

➤ 부천서 성고문 사건

- 인천5.3민주항쟁 수배자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부천경찰서 형사 문귀동 대학생 출신 해고노동자 권인숙을 성고문하는 사건 발생
 - 1986년 7월 2일 인천지역 구속자 가족 30여 명이 부천경찰서에 몰려가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임.
 - 7월 7일 답동 가톨릭회관 5층 강당에서 인사연과 인천교구 가톨릭청년회 등 6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가운데 “부천경찰서 여대생 성고문 추행사건 규탄대회”가 열림.
 - 7월 30일에는 부천 심곡1동성당에서 “성고문 추방과 인권회복을 위한 미사”가 개최
 - 인천5.3민주항쟁으로 많은 활동가들이 구속, 수배되어 인사연, 인노련 등 기존 민주화운동단체가 활동이 미비해진 공백을 메꾼 것은 인천의 종교계와 구속자 가족들이었음.
-

➤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물고문으로 숨진 사건 발생

- 1987년 1월 25일 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등 개신교 단체들 공동주최로 일꾼교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동인천역으로 침묵시위 전개
 - 2월 7일 인천교구 사제단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고 박종철군 국민추도회” 개최
 - 같은 날 감리교 인천주안지방회가 선린교회에서 교인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식 개최
 - 3월 1일 기독교장로회 경인노회 인천시찰회가 인천교회에서 “3.1절 기념 및 고문 추방을 위한 연합예배” 거행
-

➤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이른바 4.13호헌조치 발표

- 4월 30일 인천교구 사제단 답동성당에서 “민주개헌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기원하는 미사”를 마친 후 가톨릭회관 6층에서 5월 6일까지 단식기도에 돌입
 - 5월 4일 기독교 인천지역 인권선교위원회도 인천제일감리교회에서 목회자 20여 명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
 - 5월 6일 인천교구 사제단 답동성당에서 신자 3,000여 명과 단식기도 폐회 미사를 하고, 가톨릭회관 정문에서 노천기도회 개최
 - 5월 7일 인하대학교 교수 28명 개헌을 요구하는 시국성명 발표
-

➤ 1987년 5월 18일 김승훈 신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조작 폭로

- 1987년 5월 27일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 출범
 - 6월항쟁 기간 동안 전국의 민주화운동을 주도
 - 전국에서 국본 지부가 결성되어 함께 행동
 - 그러나 인천은 인천5.3민주항쟁으로 활동가들이 대거 구속, 수배된 후유증으로 인천 국본이 결성되지 못함.
 - 대신 1987년 5월 24일 “장기집권 음모 분쇄를 위한 인천지역공동대책위원회”에서 “호헌분쇄 및 민주개헌을 위한 인천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로 이름을 바꾼 공대위가 그 역할을 대신함.
-

➤ 인천의 6월 항쟁 (1/2)

- 공대위 5월 17일~24일까지 광주항쟁 계승기간 선포
24일 “광주영령 추모 및 민주개헌을 위한 인천지역 시민대회”
경찰 원천봉쇄, 시민, 학생들이 백운역 고가도로 시위, 대열을 형성,
부평시장 로타리, 부평1동성당, 백마장 입구까지 가두시위 전개
- 6월 10일 부평역 앞 “6.10인천시민대회” 개최
오후 6시 부평역에서 애국가를 신호로 택시 기사들이 경적을 울려
대회의 시작을 알림. 7시가 지나며 인근 공단의 노동자들이 퇴근 합류,
오후 9시경 3천여 명의 시위대 백마장 입구 집결, 가두시위, 6월 12일
공대위 공동대표, 인사연 집행국장 3명 구속, 5명 지명수배
- 6월 17일 주안1동성당 “6.10보고대회” 인하대, 인천대 학생 2천여 명
동인천역 집거, 연좌농성, 주안1동성당으로 행진
보고대회 후 사제단과 수녀들이 앞장선 가운데 시민회관으로 진출하여
시민대회 “시민불복종운동”과 “최루탄 발사 규탄”을 결의 해산
수천 명이 석바위 방면 행진, 가두시위, 밤 12시 넘어 경찰 강제 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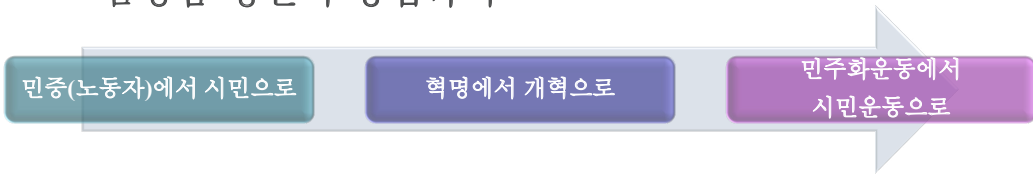
➤ 인천의 6월 항쟁 (2/2)

- 6월 18일 국본이 “최루탄 추방의 날”로 선포한 것에 발맞추어
인천 두 곳에서 시위 전개, 오후 6시 동인천역 앞 300여 명 시민, 학생들
이 “호헌철폐 독재타도”, 오성극장과 송림로타리 방면 진출. 2천여 명
으로 늘어난 시위대는 제물포 방면 행진하다가 경찰에 저지 수봉공원을
넘어 도화오거리에서 경찰에 맞서 격렬한 시위 전개,
오후 6시 부평, 부평역앞 광장과 백마장 입구에서 동시시위 전개,
개선문예식장 앞에 모인 1만여 명의 시위대 11시 40분경 전두환 화형식
청천동 시위대와 개선문예식장 앞 시위대 결합 2시까지 시위, 경찰 해산
- 6월 19일 인하대와 인천대 학생 2,000여 명 각기 교내에서
“최루탄 추방 인천지역 시민대회 경과보고” 개최, 교내 시위 전개.
- 6월 24일 동인천역앞에서 시민, 학생들 가두시위 전개.
- 6월 26일 부평역과 백마장 입구에서 범시민평화대행진 개최
경찰이 진압하자 시민, 학생 2,000여 명이 10시 30분경
석바위에 재집결하여 가두시위 전개

- 6월 29일 민정당 대표 노태우가 직선제개헌 수용,
시국사범 석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9선언 발표하면서 6월 항쟁 막을 내림.



1987년 6월 항쟁 이후 김영삼 정권의 성립까지



1) 7, 8월 노동자대투쟁

- 1987년 6월 5일 현대엔진의 민주노조 건설로 시작된 노동자들의 투쟁이 6.29 이후 변화된 정세를 맞이하여 울산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
- 인천에서도 7월 1일 선일연마 노동자들의 파업농성과 7월 11일 부평 갈산동 소재 한독금속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결성을 계기로 인천 전지역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개
- 노동자들은 민주노조 건설과 임금 인상 등 노동 조건 개선 투쟁에 주로 힘을 기울였음. 7월에는 주로 공단 지역의 중소 사업장에서 투쟁이 전개되었으나, 8월 들어 대우중공업 인천 공장,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등 대공장 노동자들도 투쟁에 참가하기 시작
- 1987년 6월 인천의 노동조합은 107개에 불과했으나 노동자대투쟁 기간 동안 97개의 노동조합이 새로 건설되어 9월 현재 노동조합 수는 204개에 달함. 그리고 이 기간 중 노동쟁의가 발생한 사업자 수는 확인된 것만 155개에 달함.
- 이 투쟁을 발판으로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인노협)가 창립

2) 대통령 선거의 패배

- 87년 12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화운동진영의 의견은 대략 세 갈래로,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론, 민중독자후보론, 야권후보단일화론
-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후보단일화론은 유야무야됨.
- 비판적 지지론은 소위 NL진영에서, 민중독자후보론은 PD진영에서 주장
- 백기완 후보가 중도 사퇴하면서 민중독자후보론은 실현되지 못했으나, 두 입장의 의견 차이는 끝내 해소되지 못했음.
- 노태우가 당선되면서 두 입장 간에는 감정적 앙금까지 생겼음.
- 독자후보론의 핵심 세력 중 하나가 6월항쟁 중 부평의 가두집회 현장에서 출범을 알린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이었음.
- 인천의 NL진영과 PD진영 간의 갈등은 다른 지역보다 더욱 첨예했음.

3) 대중운동의 성장과 민주화운동의 재정비

▶ 대중운동의 성장

- 6.29선언으로 개정된 새로운 헌법에 따라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보장되면서 대중운동 활성화
-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1990년 1월 한국노총과 별도로 전국노동조합협의회(1995년 11월 결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모체, 이하 전노협) 결성, 1990년 4월 농민 권익 보호와 민족자주경제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결성
- 인천 1988년 6월 18일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출범, 6월 인천시철거민협의회 발족, 10월 인천민중문화운동연합 결성, 10월 천주교인천교구사회운동연합이, 11월 인천지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출범
- 1989년 2월 인천여성노동자회와 주민회가 창립,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설립

▶ 민주화운동의 재정비

- 87년 대통령선거에서 비판적지지 결정을 내린 후 민통련은 더 이상 민주화운동 전체를 대표할 수 없게 됨. 그에 따라 새로운 구심을 세울 목적으로 민통련은 자진 해산하고 대신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하 전민련)이 결성됨. 전민련은 5공비리 청산투쟁, 광주학살 규명운동, 89년 문익환 목사 방북을 계기로 조성된 공안통치 분쇄투쟁 등을 전개. 그러나 전민련에는 전노협, 전농 등 대중운동단체가 합류하지 않았음. 1992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NL과 PD 사이의 노선 대립이 나타나면서, 독자정치세력화를 주장하는 PD진영이 대거 전민련을 탈퇴하자, 전민련은 더 이상 민주화운동진영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됨. 이에 전민련은 해산하고 전노협, 전농 등 대중운동단체가 중심이 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이 출범함. 전국연합은 14개 대중단체와 13개 지역 조직이 결합한 해방 이후 최대의 운동 조직이었음.

* 민주화운동의 재정비

- 인천에서도 그 흐름에 발맞추어 전민련의 출범 이전인 88년 9월 인천지역민족민주운동연합(이하 인민련)이 결성. 인민련은 인사연을 비롯 인천지역의 민주화 운동단체를 총망라하였으며, 전민련의 방침과 호흡을 함께함. 전민련이 해산하고 새로이 전국연합이 출범하는 데 발맞추어 인천에서도 인민련이 해산하고, 대신 1992년 2월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이하 인천연합)이 출범. 인천연합에는 인노협, 인천지역대학생협의회, 전교조 인천지부 등 7개 대중단체가 참가

4) 1992년 14대 총선과 민주화운동의 분열

- 1992년 3월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NL과 PD의 입장이 또 갈림. NL은 범민주대연합의 입장에서 사실상 민주당을 지지했고, PD는 민중당을 창당하여 독자 후보를 냈. 이로써 민주화운동은 끝내 분열되어 서로 대결하는 양상
- 노동운동이 활발했던 인천은 그만큼 PD진영의 세력이 강력하여 NL과 PD의 갈등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 심했음. 그 결과 14대 총선에서도 인사연을 비롯한 NL진영에서는 범민주단일후보를 추진하여 전체 7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 6명, 민중당 후보 1명을 범민주단일후보로 추천했고, PD진영에서는 민중당 후보 지지를 천명함. 그 결과 7개 선거구에서 민중당 후보 5명이 출마하여 전원 낙선

5) 민주화운동의 쇠퇴와 시민운동의 등장

▶ 민주화운동의 쇠퇴

- 14대 총선 이후 NL은 점점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고, PD는 계속 독자 진보정당의 길로 나감. 이 분열은 1992년 12월의 대통령선거에서 재현 이런 과정 속에서 민주화운동은 점점 더 힘을 잃어 감.
- 많은 운동가들이 정치권으로 진출, 민주화운동의 비중이 현저히 약화
- 6.29 이후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정권의 국민적 정당성이 확보, 정권은 더 이상 타도의 대상이 아니며 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이 당선되면서 강화, 민주화운동 진영의 정권 타도 운동은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렵게 됨. 민중민주주의혁명 주장은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됨. 대신 선거가 중요시되면서 일시에 모든 것을 바꾸는 혁명보다는 선거를 통해 하나씩 바뀌어나가는 개혁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선진적인 노동자가 아닌 시민대중이 중요시됨.

▶ 민주화운동의 쇠퇴

- 1980년대 말 일어난 소련을 위시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사회주의 이론을 비롯한 전통적인 변혁 이론에 대한 광범한 회의를 불러일으키면서 혁명에 대한 회의는 더욱 짙어감. 그에 따라 노동자보다는 시민이 더욱 주목을 받게 됨.
- 대중운동이 성장하면서 대중 스스로가 운동의 주체가 되자, 이론으로 무장한 학생 운동 출신 활동가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짐. 그에 따라 많은 운동가들이 운동 현장을 떠나면서 민주화운동은 위축

➤ 시민운동의 등장

- 민주화운동이 위축되면서 그 자리를 메꾸고 나타난 것이 시민운동
- 1989년 창립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1994년 창립된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
이들 단체가 기존의 민주화운동단체와 다른 것은 우선 민중이나 노동자가 아닌 시민의 단체임을 표방, 투쟁을 표방하지 않고 참여를 표방한 것임. 혁명이 아닌 개혁을 추구
- 인천 최초로 결성된 시민운동단체는 1989년 6월 결성된 목요회
신부, 목사를 비롯하여 교수, 변호사, 의사, 약사 등 각계 전문가 구성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나 정치적 논의를 배제
선인학원 정상화 운동, 계양산 살리기 범시민운동, 굴업도 핵폐기물
처리장 반대 운동 등을 주도하며 **인천 시민운동의 성장을 주도**

➤ 시민운동의 등장

- 인천의 시민운동은 선인학원 문제, 계양산 골프장 건설 문제, 굴업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문제 등 전국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장
계양산 살리기 범시민운동은 계양산 골프장 건설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계양산 살리기 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문제 해결의 주체로 시민을 세움**으로써 인천의 시민운동이 자리잡아가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

감사합니다.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우재

인천지역 노동운동

이형진 민주노총일반노조 위원장

인천지역에서 노동자의 삶과 투쟁이 기록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대략 1920년대이다.

일제하 자본주의의 도입과정에서 인천의 개항은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동인이 되었다.

개항을 통하여 근대문물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제물포를 비롯한 인천 연안은 근대적 형태의 부두시설과 이곳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변을 끼고 중공업 지대가 형성되었다. 일본 강점기의 노동 사회는 이러한 기반에서 발전했지만, 해방과 전쟁을 겪은 후 60년대의 부평지역을 중심으로 하인천에 이르는 공업화는 현재의 인천지형을 정립하는 과정이었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어지는 공단 벨트는 구로단지에서 시작하여 부평의 4공단, 그리고 월미도까지 이어지는 5, 6공단과 90년대 이후 남동공단, 서구와 검단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 근대화 : 일제에 의한 자본주의의 도입, 공장지대의 발전

인천광역시의 동구는 해안을 매립해서 얻은 땅이 도시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서해에 접해 있으면서 평지가 많지 않았던 인천은 1883년 개항장으로 지정되고 외국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조계가 설정됨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 규모가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거용지와 향만용지, 공업용지 등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심이 깊지 않은 해안을 매립하는 것이었다. 만석동에서 실시된 해안매립이 동구 해안매립의 시작이었다.

일제는 1931년의 만주사변과 1937년의 청일전쟁을 계기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어지는 경인 지방에 대하여 군수물자를 제공할 수 있는 군수공업기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과 더불어 동구에서도 공장용지 확보를 위한 해안 매립공사가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개항장 주변은 물론 만석정과 송현리 일대에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물자 수송이 가능한 공업항으로 이용하기 위한 매립공사가 해안에서 실시되

었다.

일제 강점기에 매립된 만석동과 화도진 일대에는 공업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섰다. 1931년 만주사변이 발생한 이후 인천에서의 목재, 방직, 금속, 기계, 전기, 화학 등의 군수공업은 만석동 일대의 해안 매립지에 세워진 공장을 기반으로 육성되었다.

1932년 만석동 매립지에 건설되었던 일본의 동양방적공사에는 3천여 명의 종업원이 일했는데, 당시 인천부의 인구가 6만 8천 정도였음을 고려하면 만석동 일대의 공업기능이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때부터 인천항 북쪽 동구의 만석동, 화수동, 송현동, 송림동 등 임해 지역은 공업지구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곳에는 현재 현대제철(인천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대우종합기계), 일진전기(이천전기) 등을 비롯해 여러 중소기업이 입지한 중공업 지대가 형성되었는데 세월을 지나며 시설을 현대화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조선은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부산, 원산에 이어 1883년 인천을 개항하였는데 이때부터 근대적 의미의 노동자가 나타났다. 개항으로 인천은 외국무역이 가파르게 성장하였으며 무역이 증가하고 상품유통이 늘어나면서 부두 노동자가 등장한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1915년에 이르면 2,000명 정도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식민지 공업화의 특성은 인천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전형적인 식민지 항구로 바뀌었다. 미곡의 수출을 위하여 정미공업이 중심을 이루고 식료품이나 선박 수리업 같은 소규모 공업, 값싼 노동력이나 원료를 겨냥한 양조공업, 고무공업이 나타났다.

일본의 자본이 인천을 주목한 것은 1930년대 이후였는데 세계공황이 휩쓸면서 일본도 생산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내부의 경쟁이 심했으므로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조선에 주목한 것은 당연하였다. 궁극적으로 식민지 조선을 거쳐 만주와 동아시아에 진출하려는 생각에서 인천은 공장을 운영하기 좋은 곳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1934년 만석동에 동양방적 인천공장이 들어서고, 중일전쟁 전후에는 군수산업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방직공업에 이어 기계금속 공업이 빠르게 늘었는데 대표적으로 1937년 만석동에 조선기계제작소가 들어섰다.

○ 도쿄시바우라 제작소

시바우라제작소와 도쿄전기가 합병해 만든 회사다. 전기 관련 용품을 생산하였다. 지금의 일진중공업 일대다. 일진중공업 내에 당시 건물의 일부가 지금도 남아있다. 두 회사가 합쳐지면서 시바우라 회사의 주요 생산품이었던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등 대형 전기류 제품들과 도쿄전기회사가 생산하던 전구, 무선통신용 기기 등의 제품을 모두 갖춘 전기 기계회사로 변모하였는데, 1944년 12월 조선총독부는 군수 회사법 시행에 따라 제1회 지정회사 55개사를 선정하여 발표하는데 그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공장은 송현동 해안가에 조성되었고 사택은 동양방적 인근의 만석동 36-18번지 일대에 있었고 지금도 사택 건립 당시의 주택지 형태가 일부 남아있다.

○ 동양방적 주식회사 인천공장

1934년에 건설된 동양방적주식회사의 인천공장은 본사가 일본 오사카에 있던 미혜 방적과 오사카 방적주식회사가 합병하여 출범한 회사로 1934년 연초에 인천공장에 근무할 직원 모집공고에 모집인원이 1천여 명, 남녀비율은 3:7 정도였다.

공장 문을 열고 얼마 되지 않아 출근 시 명패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위가 폭행을 가하자 종업원들 30여 명이 동맹파업을 벌였다고 한다.¹⁾

「매일신보」 1936. 3. 11

인천에 있는 동양방적 회사의 젊은 노동자 전보현 등 7명에 관한 적색 그룹 사건의 공판이 금 10일 오전 11시부터 경성지방법원 4호 법정에서 산하 재판장의 주심으로 개정되었다. 피고들은 공장 내에서 하루 3, 4십 전의 임금을 받아 매우 곤궁한 살림을 하면서도 타방으로 독서에 극히 열중하여 매일같이 틈이 있는 대로 도서관에 다니던 중 자연 공산주의 사상에 공명하게 되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인천부내 공원 혹은 피고 한 ○○의 집에서 회합하여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의 초보적 요구를 주장하여 다수의 동지를 획득할 것을 계획하고 다시 강령과 규약 등까지도 제정하여 2백 명을 넘는 공장 노동자들을 상대로 지하활동을 전개하려던 것이다.

○ 조선인촌(燐寸) 주식회사

1) 「동아일보」 1935. 1. 19

조선인촌주식회사는 금곡동 33-2번지 일대에 있던 성냥공장이다. 성냥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이미 조선 후기의 일인데, 성냥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처음 우리나라에 건설된 것은 조선인촌주식회사가 처음이었다. 하루 22,000갑을 생산하는데 노동자는 약 250여 명으로 성인 남성이 100명, 성인 이하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이 120명가량이었다. 1921년 3월 11일, 150여 명의 노동자가 파업을 한 이래 1926년에는 임금 삭감을 항의하며 한 달간 파업이 이어졌으며, 1931년에도 여성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다고 한다.

○ 조선기계제작소

조선기계제작소는 1937년 해안 매립지에 건설된 공장이다. 1939년 기준으로 종업원, 기술원, 사무원은 80여 명, 직공은 4백 명가량이었다. 초기에는 광업용 기계를 제작하는 양이 많았으나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소형 잠수정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공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지의 조선인 가옥들이 대거 철거되기도 하여 130여 호의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전비 증액을 요구하기도 하였다.²⁾

증설된 공장은 1942년 5월 23일 준공되었다. 공장들이 인천에 들어서고 확장되면서 인천부는 숙련된 기능자가 필요하게 되어 인천에 있던 4개의 공장을 기능공 양성공장으로 지정하는데 일본차량³⁾, 동양방적, 조선기계제작소, 조선제강 공장이었다. 조선기계제작소는 1963년 한국기계공업, 1976년 대우중공업, 2005년 두산인프라코어로 변화하였다.

조선기계제작소는 직원들을 위한 사택을 동구 일대에 건설하였는데 대표적인 곳이 송현동과 화수동 8-24번지 일대에 있는 건축물로서 1940년대 이후 전시 노동자 주택건설 계획을 통해 조성된 주택단지로서 추정된다.

○ 일본 육군 조병창 - 부평

일본 육군 조병창 건설사업은 1939년경부터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건설부지는 100만여 평, 월간 생산 목표는 소총 2만 정을 비롯하여 중기관총, 경기관총, 총검, 군도 등 전쟁 무기를 생산하는 군수공장이었다.

인천은 기계금속공업을 중심으로 군수산업 정책을 적용받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전시체제의 특성들이 한꺼번에 나타났다. 부평 조병창 같은 군수공장은 군복을 입고 군도

2) 「동아일보」 1939. 8. 25

3) 1938년 3월 13일 일본차량주식회사 인천공장 목공부 노동자 100명이 철공부와 임금 차별에 항의하면서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여 거리진출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뜻을 못 이루었다. (동아일보, 1938. 6. 15)

를 찬 군인이 노동자를 지휘했는데, 군수공장은 단순히 공장이 아니라 후방의 군대로 관리되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부평지역에는 동경자동차공업(1939. 12), 흥중상공(주)(1937.6) 등 기계공업 공장이 들어섰다.

2. 식민지 시대의 노동운동

1919년 이전에는 노동자의 파업은 드문 일이었으나, 3.1운동과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마르크스주의가 들어오고 노동자 조직이 나타나면서 파업이 나타났다. 기록으로는 1919. 1. 17. 인천의 부두 노동자 조합인 영신조와 일신조 노동자 140여 명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면 파업을 일으켜 5전 인상에 합의하였으며, 같은 해 12. 17에는 조선물산회사와 조선정미회사의 선미여공 350여 명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여 일부 임금인상을 쟁취하였다.

1924년 3월 15일 동아일보 2면에는 '撰(選)米女工(찬(선)미여공)의 罷業(파업) 소성노동회의 활동과 경찰의 간섭'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기도 했다.

하루 종일 죽을 힘을 다하여 일하여도 하루에 30~40전에 불과하는 삯전에 목을 매이고 그날그날의 생활을 유지하여 가는 여직공 3백여 명이 단연히 동맹파업을 한 사건을 대할 때 우리는 일종의 엄숙한 느낌을 갖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일하는 것이 곧 목숨을 이어가는 방법이어서 이제 그들이 일을 아니한다 함은 곧 괴로운 삶보다는 차라리 죽기라도 사양치 않겠 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미소 주인은 삯전은 올려주겠으나 감독은 갈어 줄 수 없다고 하며 직공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감독을 갈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 하여 아직까지 상지하는 중인데 이 사건을 위하여 좋도록 주선하는 사람은 오직 소성노동회의 간부들이 있었다한다.

그러나 인천경찰서에서는 소성노동회 간부를 불러다가 중재이든지 화해이든지 아무 간섭을 말라는 엄중한 명령을 하였으므로 그 회 간부들은 비상히 분개하는 중이요. 이로 인하여 고주 편이나 직공 편이나 점점 기세가 악화되어 간다고 전한다.

3백여 명 여직공의 생사문제와 인권문제가 달린 사건에는 아무 말도 없이 있다가 이 사건을 위하여 좋도록 주선하는 사람에게 도로 아무 간섭을 말라는 경찰관계자는 무슨 심사인가.

1924년 5월 인천노동총동맹은 회관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으로 각 신문사의 도움을 받아 노동연극제를 열었다. 인천노동총동맹 회원들은 “노동은 신성하다” 그리고 노동야학 학생들은 사회극을 공연했으며, 더불어 동서양 음악, 무도, 여배우 및 예기들의 줄타기와 가무 같은 여흥이 있었다(동아일보).

또한 인천노동총동맹에서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여성직업운동가를 상무집행위원으로 초빙했는데, 1924년 6월에는 주세죽 그리고 7월에는 정칠성이 함께 했다. 그리고 경성 여자 청년동맹의 중심인물로 정미소의 선미여공 2,000~3,000여명을 조직하기 위해 애썼다.

인천노동총동맹은 조선노동총동맹의 노선처럼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한편 권익보호에 힘을 쏟았다.

인천노동총동맹은 1925. 1. 3. 150여 회원들이 참가하여 제2회 신년 하례회를 열었는데 여기에는 조선노동총동맹 서정희, 신흥청년동맹 김은곡, 조선청년총동맹 조봉암, 화요회 김찬, 북풍회 김약수, 손영국, 척후대 송봉우, 경성청년회 이민한, 혁청단 김한정, 여성동우회 정종명, 해방운동사 신철, 전남광주노동공제회 문태곤, 전북예천신흥회 장동호 같은 사람들이 참석했다(동아일보).

인천노동총동맹은 인천청년연맹과 1926. 1. 22. 레닌사망 2주기 기념강연회를 개최했는데 유두희⁴⁾는 “레닌과 무산대중”, 이승엽⁵⁾이 “러시아혁명과 레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레닌 동무의 생전과 사후”를 강연했다.

○ 30년대 혁명적 노동운동

1929년에 일어난 원산 총파업은 그 규모나 지속성, 그리고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에서 당시에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식민지 시기의 대표적인 파업 사례다(김경일).

일제는 1930년대 이후 전시체제로 이행하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했

4) 유두희는 1927년 조선공산당 인천 야체이카 책임자였으며, 해방 이후 전평 고문을 지냈다.

5) 이승엽은 영흥도 출신이었으며 1925년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였고, 해방 이후 남조선노동당 핵심간부로 활동했다.

다. 이에 따라 1932년부터는 기존의 노동조합이 대량으로 해산당하게 되었고, 1935~36년 무렵에는 거의 모든 지방 노동단체도 표면상으로는 그 기능을 정지당한 채, 점점 자취를 감추었다. 1930년 말에 노동단체 재조직을 위한 조선노동총동맹의 해소론이 나왔으며, 가맹단체였던 인천노동연합회가 조선노동총동맹 해체를 건의하는 동시에 스스로 해체해 비합법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개편하기도 했다.

항구에는 기선이 죽 들어와서 부두에 대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손발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바라만 볼 뿐이었다. 그때 노동자 몇 사람은 그들의 대표로 요구 조건을 제출하려고 해륙 운수 조합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들은 그들의 대표 노동자들이 무슨 소식을 전하기까지 깜짝하지 않고 사무실만 바라보고 정렬하여 서 있었다.

항구의 기선은 연기만 풀풀 토하고 있다. 그리고 선원들이 죽 나와서 이상한 듯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전 같으면 지금쯤은 짐을 푸느라고 벌떼같이 덤빌 터인데, 오늘은 이 항구가 쓸쓸했다.

강경애. 『인간 문제』 동아일보에 1934년 8월부터 12월까지 연재

3. 해방정국의 노동운동

○ 해방 직후 자주 관리운동과 전평의 투쟁

자주관리운동은 1945년 10월~12월에 집중되었는데, 일본 자본가가 일본으로 송환될 무렵 시작해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가 설립되고 군정의 노동정책이 강화되는 시기를 전후로 쇠퇴했다. 이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식민지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직업운동가가 많았다. 그들은 해방과 함께 각 공장으로 돌아가 일정한 형태로 노동자를 조직하고, 노동조합으로 발전시키거나 공장관리위원회를 꾸려서 자본가를 상대로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해고반대 투쟁을 전개하였다. 인천의 자주관리운동에는 조봉암을 중심으로 하는 인천치안유지회, 건국준비위원회 인천지부 또는 사회주의자들도 일정하게 개입하고 있었다.

미군정은 1946. 7. 23.에 군정법령 제97호를 발표하여 전평노선을 비판하고 '조합주의'를 전면에서 내세웠다. 경제투쟁은 물론 정치투쟁도 주저하지 않는 전평을 겨냥하면서 노동자에게 개량주의의 울타리를 두른 것이다. 이제 군정에게 전평은 협상 대상이기보

다 소탕대상이 되었다. 전평에 대한 탄압은 조선공산당에 대한 광범한 검거 선풍과 더불어 전개되었다. 조선공산당의 '신전술-정당방위의 역공세'에 영향을 받은 전평은 총파업이라는 전면전으로 응수했다.

전국적인 9월 총파업은 1946. 9. 23.에 부산의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시작하였는데 인천도 9. 24.에 인천의 철도노동자 500명이 파업을 일으켰다. 9.27. 서울의 경성전기에서 파업이 일어나자 9. 28.에는 인천지점의 3,000여 전기 노동자가 파업에 돌입했고, 인천부두의 부두 노동자들도 쌀 배급,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총 태업에 돌입하여 인천 해상의 선박운행이 완전히 중단되었다.

10월 들어 인천의 전평계열 노동조합들은 집중적으로 파업을 일으켰다.

10.1. 조선강업 전체 노동자 130명은 쌀 배급증가, 가족수당과 물가 수당 지급을 비롯한 요구를 내걸고 파업을 단행하였으며, 오후에는 조선기계제작소 노동자 1,000여 명, 조선중연공업 노동자 80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고, 10.2.에는 조선차륜 노동자 1,000여 명이 파업을 일으켰는데, 3개 회사 노동자들은 쌀 배급증가와 같은 요구와 함께 '북조선과 같은 노동법실시, 민주진영에 대한 탄압반대'같이 조선공산당이나 전평이 9월 총파업에서 주장했던 요구를 포함했다. 이러한 공장에는 전평의 영향력이 강하게 발휘되고 있었던 것인데 같은 공장에 전평계열과 대한노총계열의 노동자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파업투쟁은 노자대립에서 노노대립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인천 노동자들의 파업이 수그러들지 않자 군정은 좌우로 분할된 정치적 지형을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특히 노동자들의 파업을 깨고 복귀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대한노총과 우익청년단체에서 파업파괴자를 동원했다. 10.5.에는 인천지역인민위원회, 민주주의민족전선 인천사무국, 인민당인천지부, 민주청년동맹, 부녀동맹, 인천신문사 같은 좌익성향의 단체가 소속을 알 수 없는 청년들에게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⁶⁾ 기세가 오른 대한노총 인천지구연맹은 10.6.부터 대한노총 건설대 소속 노동자 200명을 파업 중인 조선기계제작소에 보내 작업을 개시했으며 당연히 전평 계열 파업노동자와 격렬한 대립이 초래되었고, 출동한 무장경찰 100여 명은 전평계 노동조합 간부를 '악질분자'라는 명목으로 모두 검거하고 상황을 마무리 지었다.

6) 해방 이후 인천에서 활동한 우익청년단체로는 대한건국인천청년회, 평안청년회인천지부, 서북청년회인천지부, 한국광복청년회인천특별지회, 대한독립청년단인천지단, 조선청년단인천시단, 대동청년단인천시단, 대한청년단인천시단 같은 것들이 있었다(김영일. 『격동기의 인천』 1986.)

4. 전쟁 이후 70년대 노동자의 삶과 노동운동의 발전

○ 소설 속에 나타난 인천의 노동자의 삶

- 조세희 : 『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

「기계도시」

은강은 크고 그 안은 복잡하다. 은강 사람들이 자기네 도시를 두고 이야기할 때 얼른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갑갑하다'는 말이다. 은강은 서울에서 멀지 않은 서해 반도부에 취치해있어 삼면이 바다이다. ...(중략)...

아이들은 학교에서 1883년 개항과 더불어 국제적 무역항으로, 산업도시로 발달한 은강의 역사를 배운다. 은강 공업지대는 금속 · 도자기 · 화학 · 유지 · 조선 · 목재 · 판유리 · 섬유 · 전자 · 자동차 · 제강 공업이 성하고, 특히 판유리는 한국 최고의 존재로 교과서에 나와 있다. 또 조수간만의 차가 구 미터에 이르나 갑문식 도크를 설치하여 불편을 제거했다. ...(중략)...

시내는 많은 구름이 기복을 이루며, 동서로 뺏은 중앙부의 구름에 의하여 시가지는 남북으로 나뉜다. 공장 지대는 북쪽이다. 수없이 솟은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오르고, 공장 안에서는 기계들이 돌아간다. 노동자들이 그곳에서 일한다. 죽은 난장이의 아들딸도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 그곳 공기 속에는 유독가스와 매연, 그리고 분진이 섞여 있다. 모든 공장이 제품 생산량에 비례하는 흑갈색 · 황갈색의 폐수 · 폐유를 하천으로 토해낸다. 상류에서 나온 공장 폐수는 다른 공장 용수로 다시 쓰이고, 다시 토해져 흘러 내려가다 바다로 들어간다. 은강 내항은 썩은 바다로 괴어있다. 공장 주변의 생물체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

옥상에서는 영희가 일하는 방직 공장도 보였다. 영희는 이제 푸른 작업복을 입고 흰 작업모를 썼다. 영희는 생산부 직포과에서 일했다. 모자에는 훈련공 마크가 그대로 달려 있었지만 하는 일은 원공과 다를 것이 없었다. 영희는 일 분에 백이십 걸음을 뛰듯 걸었다. 영희가 뛰듯 걷는 동안 직기들은 무서운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기계도 고장이 나면 죽어버렸다. 아니면 일을 제 마음대로 했다. 영희는 죽은 틀은 살리고, 이상 작업을 하는 틀에서는 관사를 풀어 이어 정상으로 돌렸다. 영희에게 주어지는 점심 시간은 십오 분밖에 안 되었다. 직포과의 노동자들은 차례를 정해 한 사람씩 달려가 식사를 하고 왔다. 그 동안 조장이 틀을 보아주었다. 영희도 차례가 되면 조장에게 틀을 맡기

고 중앙 복도를 지나 식당으로 달려갔다. 내가 한 점심과 하나도 다들 것이 없는 점심을 영희도 했다. 영희는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먹었다. 허겁지겁 먹고 다시 현장으로 달려 들어가 직기 사이를 뛰듯 걸었다. 영희는 한 시간에 칠천이백 걸음을 걸었다.

작업장의 실내 온도는 섭씨 삼십구 도였다. 직기가 뿜어내는 열기가 영희의 몸 온도를 항상 웃돌았다. 무더운 여름의 은강 최고 기온은 섭씨 사십오 도이다. 직기의 소음도 무섭기 짝이 없다. 소음의 측정 단위는 데시벨이다. 정상적인 상태는 영 데시벨, 오십 데시벨이면 대화를 할 수 없다. 영희의 작업장 소음은 구십 데시벨이 넘었다. 직기의 집단 가동으로 생기는 소음이 땀에 절어 있는 작은 영희를 몰아붙였다. 영희는 잠을 자다 일어나 울었다. 어머니가 모르게 영희는 울었다. 그러나 영희는 아직도 어려저를 속박하고 있는 굴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저희 노동조합 사무실로 가 『노동수첩』을 받았다. 일이 끝나면 노동자 교회에 갔다. 교회는 북쪽 공업 지역 안에 있었다. 목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지독한 근시였다. 목사는 오목 렌즈를 통해 아이들을 보았다. 영희는 노동자들 틈에 끼어 앉아 노래를 불렀다. “아침에 솟는 해는 우리의 동맥/ 여명에 종 울려서 지축을 돌린다 / 쉬지 않고 생산하는 영원한 건설자 / ... 아, 우리들은 노동자.” 영희는 집에서도 아주 낮게 이 노래를 불렀다. 영호와 나는 영희의 변신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어머니는 두 아들이 위험한 일에 말려들지나 않을까 항상 걱정했다. 서울 행복동에 살 때 너무 많은 고생을 했다. 두 아들이 공장에서 쫓겨나며 받은 고통을 잊지 못했다. 아버지는 시멘트 다리 위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우리는 사랑이 없는 세계에서 살았다. 배운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혔다. 그들은 책상 앞에 앉아 싼 임금으로 기계를 돌릴 방법만 생각했다. 필요하다면 우리의 밥에 서슴없이 모래를 섞을 사람들이었다. 폐수 집수장 바닥에 구멍을 뚫어 정수장을 거치지 않은 폐수를 바다로 흘려넣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다. 영희는 회사 사람들이 노동조합 지부장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끌러갔다고 말했다. 아주 심한 날은 삼십여 명의 공원들을 무더기로 해고시켰다.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배를 탄 사람으로 행동했다. 그들은 우리의 열배 이상의 돈을 받았다. 저녁 때 그들은 공업 지대에서 먼 깨끗한 주택가,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갔다. ...(중략)...

○ 동일방직

- 1972. 주길자 여성지부장 탄생
 - 1975. 2. 이영숙 여성지부장 선출
 - 1976. 공권력의 불법연행에 저항하기 위해 나체시위 발생, 72명 연행
 - 1976. 12. 26. 이영숙 지부장의 퇴사이후 총무부장 이총각을 지부장으로 선출
 - 1978. 대의원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공권력의 방조아래 똥물사건
자율적인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절 행사장 시위
 - 1978. 3. 민주노조 활동 보장을 위한 단식농성(3.10), 부활절 사건(3.26)
 - 1978. 4. 해고자들 현장으로 복귀하겠다면서 난입하는 사건
 - 1978. 5. 김영태 통일주체대의원 당선 저지투쟁
 - 1978. 7. 법원 앞 시위사건 발생
 - 1978. 9. 기독교회관 연극 시위사건 발생
 - 1979. 노동위원회에 해고무표확인 소송 제기
 - 1980. 3. 노동절 행사장 앞 시위
 - 1980. 4. 부당해고 복직을 요구하는 유인물 배포사건
-
- 2001. 3. 78년 당시 중앙정보부 직원이었던 최종선씨가 동일방직 똥물사건과 블랙리스트 작성 등 노동조합 탄압은 중앙정보부의 직접적인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
 - 2001. 12. 29. 민주화운동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 동일방직 사건을 권위주의 시대에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한 노동자들의 민주화운동으로 인정

“당시 동일방직에서 했던 장기간 단식농성과 비폭력투쟁은 박정희 정권에 대해 도덕적으로 타격을 가할 만큼 여파가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방직의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의 지도에 의해 투쟁의 방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토론을 통해 투쟁의 방식을 선택해 왔는데 그 투쟁의 방식이 노동운동의 역사상 그 어느 사업장에서든 시행해 보지 않는 투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반나체시위라든가 장기단식농성이 라든가 장충체육관서 열린 한국노총 노동절 행사장에서의 시위라든지 부산 김영태의 통일주체대의원선거 낙선운동이라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일하던 현장을 장악하여 몇 차례 연행된 사건과 한국노총 점거농성 등은 어디서도 실행해보지 않은

방식이었고 그 투쟁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끈질기게 진행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용석, 2008. 9. 27. 동일방직사건 30년 좌담회)

○ 70년대 부평공단의 노동자의 삶

70년대 부평공단의 50개 입주업체가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면서 수출공단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양적 성장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68년 이전까지는 부평이 인천에서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불과하였으나 1년 후 22.4%, 70년에 들어서면서 무려 42.5%를 차지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것이다.

부평 미군기지, 즉 애스컴도 1970년대 초까지는 변함이 없었다. 1973년 전후로 애스컴 총사령부가 대구와 왜관 등으로 이전해가고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지면서 애스컴에서 일하던 한국 노동자들(외기노조 조합원)의 숫자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대신 미군들이 떠난 경제의 빈자리를 채워간 것은 부평공단으로 일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노동자들이었다.

공단의 주변으로 노동자들의 주거지역이 형성되었다. 부평공단의 주위로 원적산 아래쪽으로 효성동, 청천동, 산곡동 등지의 노동자 밀집 주택은 현재 재개발이 곳곳에 진행 중이지만 아직도 원시적 형태의 원룸(?) 구조를 갖춘 채 한 층에 5~7개까지 방이 준비해 있는 쪽방 집들이 더러 남아있다. 양옥집으로 들어가 2층 복도를 따라 자취방 앞의 문을 열면 곧바로 부엌이 있고 한 발 더 들어가 방문을 열면 2~3평 남짓한 방에 비닐 옷장 하나 있는 식이다. 아침에 출근 시간이 되면 아래층 화장실 앞에 줄을 서야 한다. 이것은 아주 고역이다. 그래서 아침 일찍 공장에 출근하면 식사를 제공하는 회사도 더러 있었다. 야근자들이 아침 식사를 할 때 눈치껏 밥을 먹고 화장실도 다녀오는 것이다.

부평공단에서 경인고속도로를 바라보면서 오른편으로 부개동, 삼산동, 갈산동, 작전동, 계산동은 부천지역과의 경계에 닿아있다. 90년대 중반까지 부천 인접 지역까지는 김포평야의 끝자락이었고 시골 마을에 공장과 무허가 가건물, 가게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다. 주말에 노동자들이 송내쪽이나 부천 인근의 복숭아, 포도밭에 소풍하러 가기도 했다.

『어느 돌맹이의 외침』은 70년대 삼원섬유에서 요꼬 노동자로서 노동운동에 발을 딛게 되는 유동우의 이야기다.

장내는 온통 환호성으로 변하고 모두들 기쁨의 눈물을 글썽거리고 있었다. 나도 속으로 울고 있었다. 그렇다. 그들은 빛나는 승리를 쟁취한 것이다. 분회가 결성된 지 1년, 숏한 어려움과 억압속에서도 사람으로서의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힘차게 싸워온 그들은 끝내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위대한 증명을 내보인 것이다. 옛날의 그 모든 피동성을 떨쳐버리고 근로자로서의 자신의 권리에 대한 자각이 고립무원의 외로운 투쟁을 승리로 장식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주체>라는 위대한 인간선언을 행한 현장이었던 것이다.

분회장 선거가 끝나자 나는 회의장 밖으로 나왔다. 4월의 하늘이 것처럼 푸르고 밝게 빛나는 지 눈이 부시는 것 같았다. 지나온 날들이, 나와 고락을 같이 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차례차례 눈앞을 스쳐갔다. 처음 삼원 섬유에 입사했을 때의 상황, 맹목적인 신앙전도에 열을 올렸던 나, 그러한 나를 일깨워 준 한 여성종업원의 외침, 같이 모여 서로 일깨우며 밤을 새웠던 동료들, 힘찬 함성으로 뭉쳐 우리의 권리를 외쳤던 그 날, 배움을 갈망하던 여자조합원들의 빛나는 눈빛, 서로 부등켜안고 울며 강자의 횡포에 대항하며 싸우던 동료들 ...(중략)...

나는 내 자신의 복직문제도 잊은 채 즐거움과 행복감에 젖어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제 나는 미련없이 이 회사를 훌훌히 떠나는 것이다. 그들이 있는 한 그들은 또한 힘차게 싸우며 새로운 의지로 고난을 이겨 갈 것이다... (후략)

5. 80년대 노동운동의 본격화

○ 변혁운동으로 노동운동의 발전

인천에서 80년대는 격변의 시기였다.

인천이라는 특정한 도시는 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다수의 젊은 청년들과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모여들어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정치적 행동과 전투적인 시위를 감행했던 공간이었다. 전통적으로 젊은이들이 집단으로 몰려있는 곳은 대학이거나 군대, 공장 등이었다. 간간이 전쟁 시기에는 실제 전쟁이 벌어지는 전선에 젊은 사람들이 몰려서 전투를 치렀다. 한국전쟁 이래로 상당한 기간을 통틀어 젊은 청

춘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서 죽지 않고 현실 사회의 변화를 꾀한 경험은 광주항쟁 이후로 80년대의 인천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방식으로 국지적인 가두시위를 기획하고, 공장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들과 함께 장기적인 방식의 생존술을 구사하면서 현실 사회에 맞서 새로운 사회를 희구하였다.

70년대의 여성사업장 투쟁과 도시산업선교회의 역할은 80년대로 넘어오면서 가두투쟁과 다양한 사업장에서의 전투적 투쟁, 그리고 민중교회와 노동상담소 등으로 확장되어 나갔다.

85년 4월의 대우자동차 노동자투쟁과 86년 인천 5.3 민주항쟁은 70년대에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조합원의 권익투쟁 마저도 정권 차원의 탄압에 와해되기 일쑤이던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업장의 투쟁이 지역으로 파급되고 증폭되면서 군사정권의 기반을 뒤흔드는 위력을 보여주었다. 부평공단과 주안, 하인천 등지의 공장과 주변의 자취방들은 세상의 변화를 꾀하는 젊은 남녀 노동자와 학생 출신 활동가들로 들끓었다.

○ 대우자동차 투쟁

1985. 4. 16. 대우자동차 노동자 2,000여 명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앞서 1984. 12. 26.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정추위)'가 구성된 바 있는데 정추위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함성」을 발간하며 어용노조의 문제점과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갔다. 임금 교섭이 임박해지자 정추위는 노조와는 별개의 임금 교섭안을 제시하면서 노조 집행부를 압박하였다.

노조 집행부가 무기력하게 대응하자, 조합원들이 노조 사무실 앞에 집결하여 노조위원장에게 파업을 촉구했다. 위원장 김영만은 어쩔 수 없이 파업을 선언했다. 이 파업은 4. 25.까지 진행되었는데, 경찰의 진압이 예상된 19일 금요일부터는 350여 명이 본관 기술센터를 점거하여 농성에 들어갔다.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이 상대한 교섭 상대는 노조위원장이 아닌 학생 출신의 위장취업자로 당시 노조 대의원을 맡고 있던 홍영표였다. 다시금 학생 출신 위장취업자의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파업 10일째인 25일 18.2% 임금인상, 해고자 3인 복직 불가, 파업 및 농성 노동자들의 신분보장에 합의하면서 파업은 종료하였다.

○ 노동운동의 급진화와 인천 5.3민주항쟁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에 이은 구로동맹파업을 겪으면서 지배세력은 노동운동에 대한 유화정책을 접고, 위장취업자 색출과 운동권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 공세를 벌여나갔다. 하지만 노동운동 세력은 광주항쟁 이후 점차 이념적으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지향으로 무장하면서 조직적으로 대정부 투쟁을 끌어내면서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토대를 만들어나갔다.

1986년 들어 고양되기 시작한 정치투쟁은 인천의 5.3민주항쟁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부산에서 시작하여 광주, 대구, 전주를 거치면서 전개된 신한민주당의 개헌헌판식을 계기로 수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던 정치투쟁의 열기는 인천으로 북상하여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였다. 5.3민주항쟁에는 경인 지역의 노동자, 학생 그리고 민주화 세력을 비롯한 사회운동단체가 총집결하여 지배세력에 대하여 독재 타도를 외치는 한편 지배세력과 타협하려는 보수 야당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미국에 대한 투쟁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였다.

○ 87년 7, 8월 노동자 대투쟁

당시 가장 많이 쓰인 구호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는 것이었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노동자의 인간선언”이 바로 이 시기 투쟁의 결과라는 점만 기억해 두자. 불은 7월 5일 울산의 현대엔진에서 처음 붙었다. 현대엔진 노조결성과 파업투쟁은 삽시간에 울산 전역으로 퍼졌고, 부산, 마산, 창원, 대구, 대전을 거쳐 경인 지역으로 빠른 속도로 퍼졌다. 8월 중순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가 최루탄에 맞아 사망했다.

현대그룹 노조들이 결성한 현대그룹노조협의회 주도로 4만여 노동자들이 울산에서 시가행진(8월 16~17일)을 벌이면서 절정에 달했다. 인천의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 영창악기, 경동산업, 거제의 대우조선, 울산의 현대그룹 등 전국의 주요 대기업이 파업에 들어갔다.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의 장례식이 열렸던 8월 28일을 기점으로 노동자대투쟁은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 속에 수그러들었다. 이날 국무총리가 좌경용공세력 척결을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경찰은 추모식과 시위에 참여한 노동자 933명을 연행해 67명을 구속했다. 9월 4일에는 대우자동차와 현대중공업 파업농성장에 경찰력을 투입해 대우자동차 농성자 94명 전원, 현대중공업 노동자 40명을 구속했다. 비슷한 시기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던 경동산업, 영창악기 노조민주화 투쟁 역시 회사 측과 경찰의

합동 공격 때문에 좌절되었다.

전국적으로 전산업에 걸쳐 규모와 지역, 업종을 불문하고 대대적으로 일어난 노동자 대투쟁 기간 동안 총 3,311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으며(6.29부터 10월 말까지), 그 가운데 파업은 3,235건으로 하루 평균 44건, 총인원 122만 5,830명이 참가했다. 대부분 준비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이었으며, 임금 재인상에서부터 두발자유화까지 수십 개에 달하는 요구사항에 '인간답게 살고 싶다'가 공통된 구호로 내걸렸다. 쟁의 대부분은 조정보다는 봉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당시 노동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불법 투쟁이었다.

○ 대우중공업 : 87년 인천 대공장 투쟁의 포문을 열다.

대우중공업은 적산 기업이던 조선 기계를 불하받으면서 시작된 한국기계를 1976년 김우중이 인수하여 자동차와 선박 엔진, 지게차, 굴삭기 등을 생산하던 국내 굴지의 기계 산업 회사로 인천, 창원, 영등포, 안양에 4개 공장이 있었고 인천공장에는 약 2,8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다.

-1985.4. 대우자동차 파업농성의 영향으로 200여 노동자가 3시간가량 파업농성, 이후 2,000여 조합원의 참여하에 노조의 어용성을 폭로하는 파업농성 진행.

-1987.7. 해고자들의 조직적인 복직 투쟁과 현장투쟁의 결합을 위하여 '대우중공업 노동자복직추진위원회' 결성

-1987. 7. 27. 조합원 150여 명이 노조사무실로 몰려가 투쟁 촉구

-1987. 8. 4. 대우중공업 창원공장에서 파업이 시작되면서 8.5.에 이것을 알리는 해고자들의 소식지가 배포되면서 인천공장에도 점심시간을 기하여 잔디 구장에 800여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고 조합 집행부의 입장을 촉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노조가 내건 요구사항은 <임금 5만 원 인상, 상여금 600% 지급, 가족수당 신설, 해고자 복직, 조합 활동 보장> 등이었다. 협상이 결렬되었고 이를 계기로 인천 2,500명, 창원 1,300명, 영등포 500명, 안양 700명으로 대우중공업 전체 공장들이 파업에 돌입하였다.

○ 현대제철 : 송현동 일대를 달군 가두투쟁

동구 송현동에 있는 인천제철은 1964년 설립되었는데, 1970년에 인천중공업을 합병한 후 1978년에 현대그룹에 편입된 회사였다. 87년 무렵 주요 생산품을 철근, 선재, 강판 등이었고 생산직은 2,500명, 8월 투쟁 이전에 고졸 기본급 초임이 4,170원으로 잔업, 특근을 빠지지 않으면 실수령액이 간신히 20만 원을 넘기는 수준이었다.

인천제철은 재해 발생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압연기, 기계에 말리는 사고, 고철 선박 해체과정에서 사고 등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이었다.

1980년 '민주화의 봄' 분위기에서 인천제철 노동자들이 장기 집권하는 어용노조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투쟁하다 2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1987년 7월부터 시작된 울산의 현대그룹 노동자 투쟁을 접하면서도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던 인천제철 노동자들은 8월 20일이 넘어가면서 '우리도 이제 싸워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현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으려는 회사 측은 '현대 그룹사 차원에서 울산의 타결사항을 그대로 지켜주겠다'라고 노동자들을 회유하였으나 현장의 분위기는 쉽게 무마되지 않았고 H형강 부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조에 파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점차 고조되던 가운데 회사가 24일에 투쟁을 준비하던 품질관리과 2명의 노동자를 수원으로 납치하고 격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전 11시에 투쟁을 준비하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2~300여 노동자들이 정문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농성을 시작하였다.

○ 노동집약적 산업 - 경동산업 노동자들의 투쟁

1987년 노조 민주화에 실패했던 경동산업에서는 1988년 노조 대의원 대회에서 총 29명 중 15명의 민주파 대의원을 당선시키는 데 성공했다. 현장에는 '디딤돌회'나 풍물패 등이 조직되어 차기 노조 집행부를 장악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조직해 나가고 있었다. 위기를 느낀 회사는 1989년 여름 일일주점 활동을 빌미로 활동가들을 해고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농성이 시작되었고 회사 측은 징계 협박으로 노동자들에게 분노와 굴욕감을 안겨주었고 그들이 동원한 구사대는 너무도 폭력적이었다.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강현중, 김종하 등 노동자들이 9.13. 온몸에 시너를 붓고 노무이사 강의신의 사무실로 찾아가 대화하던 중 몸에 불이 붙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17명 구속, 6명 불구속, 40여 명의 강제해직이 이어졌고 농성 노동자들

에게는 자살방조, 폭력 등의 죄목이 붙여졌다.

○ 여성노동자 투쟁 - 대한마이크로전자(주) 노조탄압의 역사⁷⁾

지난 1996년 6월 12일, 12년간 노동조합을 두 번씩이나 해산시키며 노조탄압으로 악명을 떨치던 대한 마이크로전자(주) 본관 건물에 '노조탄압 분쇄하고 위원장을 살려 내라'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는 마이크로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마이크로 노조 탄압 분쇄 투쟁의 신호탄이 되었다.

95년 6월 27일 해고되어 1년 동안 복직투쟁을 해오던 마이크로 노동조합 김명숙 위원장이 6월 11일 새벽에 음독자살을 기도하면서 불붙은 마이크로 노조탄압 분쇄 투쟁은 인천지역 노조운동사에 길이 남을 연대투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마이크로 정문 앞 철야농성 투쟁 20일, 최소 100여 명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하는 마이크로 정문 앞 지역 연대 집회 16차례, 마이크로 노조 간부 단식농성 16일, 백병전을 방불케 하는 투쟁에서 연행된 총인원 117명, 구속 2명, 불구속 입건 8명, 22명이 즉결 처분받고 수십 명이 부상을 하는 등 외형적인 탄압만 보더라도 이번 마이크로 노조 탄압 분쇄 투쟁이 얼마나 힘겹고 치열한 투쟁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대한마이크로 노동조합 김명숙 위원장이 해고된 것은 95년 6월 27일. 1984년 설립된 대한 마이크로 노동조합을 공포스러운 노무관리와 무자비한 폭력으로 두 번씩이나 해산시킨 회사는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명숙 동지를 사무직으로 발령시키고 곧바로 해고함으로써 세 번째 노조 사냥에 나섰다.

해고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여 상집 간부들은, 이번에는 노동조합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는 각오로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을 전개해 왔다. 3교대 사업장이라 새벽 6시, 오후 2시, 밤 10시로 나누어 하루 3번씩 출근투쟁을 하면서도 곳곳하게 투쟁해 온 김명숙 위원장은 회사가 사우회와 불법적인 노사협의를 통해 96년 임금인상을 발표하면서 노동조합 교섭권조차 인정하지 않고 교섭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원칙으로 복직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탄압도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아래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7) 강태수, 인천민중연합 현장통신, 1996.

○ 노동자의 삶의 변화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인천의 노동자들도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노동자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빠르게 임금이 인상되었고, 노동조건이나 환경도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임시노동자나 일용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해서 고용불안이 증가했으며, 장시간 노동, 빈발한 산업재해 등 많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현실이다.

인천 노동자들의 임금은 1986년 247,543원, 1988년에는 360,052원으로 꾸준히 높아졌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노동시간은 1986년 242.3시간, 1988년에 238.9시간이었다. 당시 전국 평균 노동시간이 각각 227.8시간, 221.8시간인 것을 보면 인천지역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장 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것을 알 수 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는 꾸준히 줄어들어 1989년에는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대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법정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되었기 때문인데, 역사적으로도 노동시간은 총노동과 총자본의 투쟁으로 결정된 것이다.

<참고 서적>

- 이갑영, 「그들은 희망을 나누었다.」, 다인아트, 2020.
- 민주노총, 「살아 숨쉬는 민주노조의 기억」,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2017.
- 동일방직복직추진위원회, 「다시 기계 앞에 서고 싶다」, 2008.
-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성과 힘, 2002.
- 박미숙, 「간추린 동구사」, 화도진문화원, 2020.
- 인천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인천민주화운동사」, 선인, 2019.
- 김현석, 「부평에 새긴 노동의 시간」, 국립민속박물관, 2018.
- 황석영, 「철도원 삼대」, 창비, 2020.

주안권 - 민주화와 노동운동

주안공단은 남구 주안동, 서구 가좌동, 부평구 십정동 등 행정 구역이 겹치는 지역으로 1969년부터 1973년까지 기업의 상품 수출을 목적으로 주안 염전을 메워 만든 산업단지다. 주안 염전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대규모 염전을 조성하여 공업용 소금을 생산하여 군수용으로 원료를 공급했던 지역이다. 주식회사 대한염업이 소유주였던 주안 염전은 인천의 도심 외곽에 있었다. 당시 소금의 과잉 생산으로 폐전되어 염전의 기능은 거의 잃어버린 상태에서 산업 단지 부지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30여만 평에 이르는 염전매립 부지에 섬유, 화학, 식품, 기계, 철강, 비철 금속, 전기 및 전자, 목재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친 제조업이 입지하여 1980년대까지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의 주역으로 산업화를 주도하는 핵심 역할을 하였으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은 피폐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공단의 많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임금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한 곳이다. 특히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세창물산 노동자 송철순의 사망, 경동산업 투쟁 과정에서 김종하, 강현중의 분신사망 사건은 공단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는지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주안권1 - 5.3민주항쟁터

1986년 5월 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현판식이 열리는 시민회관(현재 옛 시민회관 쉼터)에서 노동자, 시민, 학생 등 수만여 명이 모여 타협적 보수 야당을 비판하고 기만적인 개헌 음모를 폭로하였다. 또 시민 등은 '민족·민주·민중 헌법 쟁취'와 '노동자가 주인 되는 사회 건설' 등을 주장하며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반민중적인 정책을 비판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주안역 일대에서 벌어진 이 날의 항쟁은 광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정권을 잡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저질러 온 범죄행위를 폭로하고 특히 신민당과 민정당이 이원집정부제로 타협하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며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 건설과 삼민(민족·민주·민중)헌법의 쟁취를 강하게 주장하였다. 당시 외쳤던 구호는 '민주정부 수립' '삼민헌법 쟁취' '노동해방' '생활임금 쟁취' 등이었는데, 활동가들과 일부 학생 중

에는 '제헌의회 소집' '미 제국주의를 몰아내자' '반전반핵 양키 고 홈' 등의 구호도 있었다.

12시 30분경, 시민회관 앞 광장에서 민통련이 주관하는 집회에서는 수배 중인 장기표 민통련 집행위원장이 연설하였고, 5~6천여 명의 학생들은 자민투와 민민투로 나누어 주안역 방향과 석바위 쪽 방향에서 스크럼을 짜고 거대한 물결이 되어 시민회관 쪽으로 오고 있었다. 오후 1시 정도에는 시민회관 앞 사거리를 비롯한 인근 도로가 시민들로 꽉 미어졌다. 노동자, 학생, 시민 약 5만여 명은 '민주헌법 쟁취',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며 그 함성이 하늘을 찢었고 시위 참여자가 계속 늘자 경찰은 1시 반 경부터 최루탄을 발사하기 시작하였고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 계속되었지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모이는 6시경 시위는 절정에 달했고 전투경찰도 약 1만여 명의 병력이 진압에 동원되어 당시 시민회관 주변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였다.

당시 5.3항쟁으로 현장에서 연행된 인원이 약 400여 명으로 130여 명이 소요죄와 집시법으로 구속되어 50여 명이 수배되었다. 이는 광주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구속자 수배자가 양산되었고, 수배자 검거과정에서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발생하는 등 5.3항쟁은 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시민회관 앞에서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시민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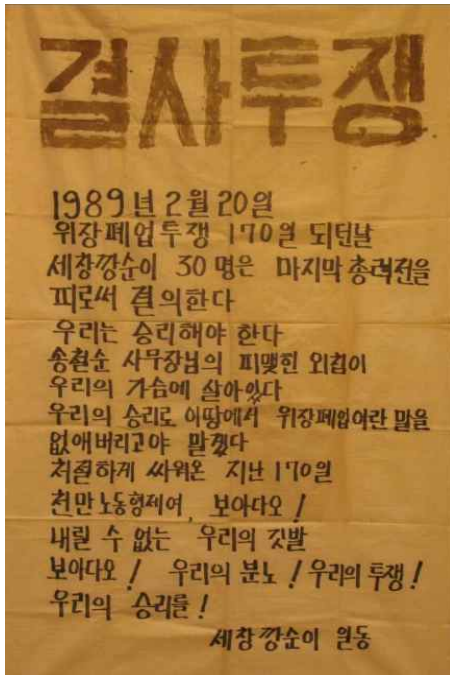
주안권2 - 세창물산 노동조합

세창물산은 도자기 인형 수출업체로 노동자 250여 명 중 여성이 200여 명이었으며, 그 중 80여 명이 16세에서 20세에 이르는 미성년자로 야간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안료, 신나, 석유 등 인체에 해로운 물품을 쓰고 있음에도 환기시설조차 없었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한 기업이기도 하였다. 이 상황을 참다못해 6월 28일 파업의 깃발이 들었고, 요구 조건은, 일당 1700원 인상, 상여금 400%, 여름유급휴가 5일, 파업 중 임금 지급이었다. 회사 사장은 이를 거부했고 노동자들은 200일 넘는 장기투쟁에 돌입한다.. 1988년, 임금인상과 어용 노사협의회 반대를 위한 노동조합의 투쟁이 시작되자 회사 측은 휴업 조치로 맞섰다. 노동자들이 '휴업 철폐 파업기금마련 연대 집회' 준비를 위해 슬레이트 지붕 위에 현수막("사장놈이 배짱이면 노동자는 깡다구다"와 "노동자의 서러움 투쟁으로 끝장내자")을 설치하던 중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공장바닥으로 떨어져 노동조합 사무장 송철순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하여 함께 투쟁을 이끌어 나갔다. 특히 1988년 11월 13일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5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에 선봉대 선서 후 선봉대원들과 인천 세창물산 노동자 등 100여 명의 노동자가 5m 길이의 광목천에 '노동해방' 현수를 썼다. 면도날을 반으로 쪼개 손가락을 그었고 피로 쓴 '노동해방'을 단상 앞에서 들고 다 함께 노동해방을 외치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향해 행진하면서 "전노협을 건설하자", "노동법을 개정하자", "전두환, 이순자를 구속하자", "군부독재 타도하자", "전경련을 해체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안권3- 경동산업 노동조합

양식기 제조업체인 인천의 경동산업은 작업 공정이 대부분 프레스와 연마로 되어 있어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았다. 경동산업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1984년과 1985년에 노조결성을 시도했지만 사측의 방해로 좌절되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시 이들은 '어용노조 해산', '민주노조 건설', '임금인상',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하며 2주에 걸친 파업투쟁을 통해 대부분의 요구를 관철했으나, 선거 전에 사측의 탄압으로 지도부가 구속됨으로써 민주노조 건설이 좌절되었다.

1989년 임금인상 투쟁 시기 경동산업의 노동자들은 회사와 야합하려는 어용노조에



<위장폐업에 항의하는 세창물산 집회투쟁>

맞서 임금인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김치원 어용노조 집행부는 임금인상대책위를 해산시키고, 파업을 요구한 조합원들의 뜻과 상관없는 중재안을 멋대로 타결해 버렸다. 이에 임금인상대책위원 출신을 중심으로 1989년 5월 14일 '디딤돌'이라는 친목 단체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디딤돌은 노조에 적극적인 관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와 어용노조의 감시와 탄압 속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6월 6일 지역 노동자 축구대회, 8월 3일 인노협 수련회 참석 등으로 서서히 영향력을 높여 가자 회사의 탄압은 노골화되었다. 디딤돌은 8월 '경동가족 한마당'이라는 일일 찻집을 개최하려고 8월 11일부터 티켓 판매를 하였다. 그러나 이 일로 한 회원이 티켓을 빼앗기고 무릎이 꿇리는 등의 모욕을 당하였다.

회사 측은 디딤돌 회장 강현중, 부회장 유원식, 총무 안중준에게 사유도 게재치 않은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탄압을 노골화하였다. 이에 디딤돌 회원 전원은 "조합원이 당당하게 대접받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전 회원의 해고를 걸고 싸울 것"을 결의하고 모두가 혈서를 쓰고 투쟁을 다짐하였다. 9월 1일 야간조 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농성의 의미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전달하였다. 그러자 회사는 야간조를 새벽 5시 30분에 퇴근시켜 버렸다. 경찰 투입 소식이 전해지자 회원들은 옥상으로 자리를 옮겨 농성을 이어갔다. 9월 2일 아침 디딤돌을 악선전하는 노조 측의 유인물이 배포되었고, 오후 사측과 협상에 들어갔으나 결렬되어 디딤돌 회원들은 결사투쟁을 결의하였다.

9월 3일 몇 차례의 협상이 있었으나 역시 결렬되었고, 계속 구사대와의 힘겨운 싸움이 벌어졌다. 9월 4일 강현중 등 5명이 온몸에 신나를 뿌린 채 강의신 노무 담당 이사에 자신들에 대한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몸에 불이 붙었고, 이들 5명과 강 이사 등 6명이 온몸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강현중 등이 분신하는 것을 보고 흥분한 최운규 등 2명이 노조 사무실 앞 운동장에서 과도로 할복하였다. 이 사건으로 노동자 강현중과 김종하가 사망하였고 경찰은 이견탁 등 18명을 자살방조, 폭력 등 위반으로 구속하였으며 사측은 40여 명을 강제 사직시켰다.

이 사건은 기업주가 업무 이외의 시간에 행한 해고자 돕기 행사를 문제 삼아 평소 민주노조 운동에 관심이 있던 노동자들을 징계하였고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을 구사대 폭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찰이 폭력의 주체인 사측의 편에서서 피해자인 노동자들을 처벌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9.4 분신사태 이후 회사 앞에서 협상 중인 인천경동산업노사>



주안권4 - 영창악기 노동조합

영창악기 노동자들은 1985년 임금인상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민주노조 결성을 시도 하였으나, 회사 측이 구사대를 조직하여 조합원들을 폭행하고 어용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노동조합 파괴로 맞섰다. 이에 대항하여 경인고속도로를 점거하는 등 끈질기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 대표적 노동조합이다.

<민주노동조합 건설을 갈망하는 영창악기 노동조합원들의 투쟁>



주안권 민주주의 길

이형진 민주노총 일반노조 위원장

주안1동성당

1986년 인천5.3민주항쟁 당시 호인수 신부의 소개로 인사연이 5.3 당일의 시위용품 을 주안1동성당에서 제작하였고, 인노련은 성당 지하실에서 시위에 필요한 각종 물품 을 제작하였다.

1987년 6월항쟁 당시 인천에서 시위는 동인천, 주안, 부평 3곳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주안1동성당은 인천민주화운동의 대부 김병상 신부가 주임신부였기에 주안권의 중심지 로 활동이 가능했다.

1987년 6월 17일 "6.10 보고대회", "시민 불복종과 최루탄 발사 규탄"을 결의하고, 사제단과 수녀들이 앞장서 석바위까지 행진하고, 밤 12시 너머까지 석바위 일대에서 시위가 이어졌다.



<주안 1동 성당의 현재 모습>

인천5.3민주항쟁터(옛시민회관쉼터)

1986년 5월 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현판식이 열리는 시민회관(현재 옛시민회관 쉼터)에서 노동자, 시민, 학생 등 수만여 명이 모여 타협적 보수 야당을 비판하고 기만적인 개헌 음모를 폭로하였다. 또 시민 등은 '민족·민주·민중 헌법 쟁취'와 '노동자가 주인 되는 사회 건설' 등을 주장하며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반민중적인 정책을 비판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주안역 일대에서 벌어진 이 날의 항쟁은 광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정권을 잡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저질러 온 범죄행위를 폭로하고 특히 신민당과 민정당이 이원집정부제로 타협하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며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 건설과 삼민(민족·민주·민중)헌법의 쟁취를 강하게 주장하였다. 당시 외쳤던 구호는 '민주정부 수립' '삼민헌법 쟁취' '노동해방' '생활임금 쟁취' 등이었는데, 활동가들과 일부 학생 중에는 '제헌의회 소집' '미 제국주의를 몰아내자' '반전반핵 양키고 흠' 등의 구호도 있었다.

12시 30분경, 시민회관 앞 광장에서 민통련이 주관하는 집회에서는 수배 중인 장기표 민통련 집행위원장이 연설하였고, 5~6천여 명의 학생들은 자민투와 민민투로 나누어 주안역 방향과 석바위 쪽 방향에서 스크럼을 짜고 거대한 물결이 되어 시민회관 쪽으로 오고 있었다. 오후 1시 정도에는 시민회관 앞 사거리를 비롯한 인근 도로가 시민들로 꽉 미어졌다. 노동자, 학생, 시민 약 5만여 명은 '민주헌법 쟁취',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며 그 함성이 하늘을 찔렀고 시위 참여자가 계속 늘자 경찰은 1시 반 경부터 최루탄을 발사하기 시작하였고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모이는 6시경 시위는 절정에 달했고 전투경찰도 약 1만여 명의 병력이 진압에 동원되어 당시 시민회관 주변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였다.

당시 5.3항쟁으로 현장에서 연행된 인원이 약 400여 명으로 130여 명이 소요죄와 집시법으로 구속되어 50여 명이 수배되었다. 이는 광주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구속자 수배자가 양산되었고, 수배자 검거과정에서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발생하는 등 5.3항쟁은 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시민회관 앞에서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시민 학생들>



주안5동성당

'염전본당'으로 출발하여 80년대 공단 조성 과정에서 '주안5동 성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주안5동 성당은 1987년 노동자를 위한 미사, 한길야간고등학교, 무료진료 활동 및 법률상담 등 주안공단 노동자들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하였다. 또한, 성당 근처의 상록수 서점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꿈 꾸는 많은 노동자의 활동과 정보 교류의 장이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의 중심에는 부평 성당에 있을 때부터 지역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호인수 신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초대 주임 반유리 신부와 신도들의 활동 모습>



<주안 5동 성당의 현재 모습>

4.19학생의거 기념탑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규탄시위에 인천의 고등학생들도 앞장서서 참여하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탑이 인천기계공고 교정에 있다.

기념탑에는 '젊은 학도들은 겨레의 힘이요 나라의 기둥이다. 특히 정의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화랑의 후예들은 이 정권의 부패와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학생 혁명을 일으켰고 4.19날 인천에서 의거의 횃불을 먼저 높이 밝힌 이가 우리 공고 학생들이라, 이들의 피 끓는 울부짖음은 먼 하늘에 메아리 쳤고 우렁찬 발자국 소리는 지축을 흔들었나니 이 씩씩하고 장한 행동은 천추만대에 빛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인천기계공업 고등학교 교정에 건립된 4.19 학생의거 기념탑>

인천민주로드 노동자의 길1 (중동구권)을 중심으로 답사합니다!

인천민주로드는 정부 수립 이후 인천지역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정당과 교회, 학교 등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슬 퍼런 독재 정권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이 엄혹한 시절, 숭고한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목숨을 걸고 활동한 당시 활동가들을 기억하며, 나아가 인천지역의 민주·평화·인권 역사를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인천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도시입니다. 부평의 미군 군수창이 철거되면서 부평공단이 만들어졌고 주안의 염전 지대가 매립되면서 주안 공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인천으로 유입되었고 공장 노동자로서 생활의 터전을 잡아갔습니다. 정치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여 기업은 성장하였으나 노동자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과정에 수많은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해고되고 구속되었고 심지어 목숨을 내던지는 사태까지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결성되어 학생 및 교수, 양심적 지식인들이 노동운동 출신 활동가들과 함께 인천지역민주화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인천 중,동구(통합 제물포구 예정)는 대한민국 개항의 역사 발자취가 그대로 남아 있는 곳입니다. 제물포 조약으로 세계에 문호를 개방한 후 외국인 집단거주지인 조계를 형성하면서 서양인, 일본인, 중국인들이 머물렀던 이 지역은 최초의 경인선이 건설되었고 일제강점기 조선 수탈물자가 나가는 인천항이 있으며 한국전쟁 당시 미군상륙작전이 벌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주요 건물로는 1890년대에 지어진 답동성당, 일본18은행 인천지점, 인천58은행 인천지점, 외국인들이 사교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립된 제물포구락부가 지금도 원형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1920년 6월 29일 조선노동공제회 인천지회가 창립되었고, 1924년 조선노동총동맹이 설립된 이후 인천에는 인천 선미여공조합, 하역인부조합, 정미직공조합, 인천철공조합, 인천목공조합, 양랍직공조합 등의 노동조합들이 들어선 곳도 중, 동구(제물포구) 지역입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동양방직(현 동일방직)과 조선기계공작소, 가등정미소를 비롯한 대규모 공장들이 들어섰고, 1960~70년대에는 한국기계공업(대우중공업의 전신)과 동일방직을 비롯하여 인천중공업(인천중공업, 현대제철의 전신), 이천전기(삼성전기의 전신), 대한제분, 한국유리 등 중공업 중심의 산업시설이 만석, 화수동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대규모의 인구가 중, 동구(제물포구) 지역으로 유입되었

고 많은 노동자의 고달픈 생활 터전이 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도원역, 꿀꿀이죽골목건널목, 성냥박물관, 중앙시장, 인천최초지하상가, 도깨비시장, 동인천역 광장, 송현시장, 수도국산달동네, 노동자 숙소, 수문통, 인천공작창, 조선기계제작소 간부숙소, 인천공작창관사, 노동자 숙소, 조선기계제작소, 도시산업선교회, 인천극장, 화수시장, 제분소거리(석수로), 삼화제분, 동일방직, 도쿄시바우라노동자숙소, 굴막, 북성포구, 대성목재저목장, 대한제분, 인천부두, 상상플랫폼, 인천역

<http://rblr.co/Ohx5n> 인천민주로드 노동자의 길1 (중동구권) 답사



성냥박물관

일제강점기, 성냥공장의 10대 소녀들이 임금 인상과 8시간 노동을 외치며 투쟁했던 자리에 성냥박물관이 들어섰습니다.

일제강점기 민족운동과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옛 조선인촌주식회사의 터 1917년 금곡동 배다리 마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성냥공장 조선인촌주식회사! 이곳에 성냥공장이 들어선 이유는 산업시설과 상권이 경인 철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서울이라는 큰 시장이 수 시간 거리에 있어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록강 일대 산림에서 나오는 목재를 배편으로 쉽게 들여올 수 있었고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력 사정이 다른 곳보다 좋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졌던 시대라 쉽게 불을 붙일 수 있는 성냥은 그야말로 일상의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성냥의 등장은 각 가정에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최초의 성냥공장 조선인촌을 비롯하여 수십 개의 성냥공장이 들어섰습니다. 1930년대 조선인촌은 공장 직공이 800여 명 부업 종사자가 2,800여 명에 달했으며 연간 7만 상자를 생산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성냥 불씨 하나가 인천의 산업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산업발달 이면에는 10대 소녀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성냥공장 노동자들은 10대 여공들이었습니다. 하루 13시간, 1만 개의 성냥개비를 성냥갑에 담아야 하는 살인적인 노동과 임금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는 임금은 60전이었습니다.

(※1919년 종로 단성사 영화관람료가 특등석 1원 50전, 일등석 1원(100전), 이등석 60전, 1930년 쌀 한 가마 13원)

소녀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하고 살수만 없었던 소녀들은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대부터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파업을 하는 등 대한민국 노동 운동사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1921년 150명이 지배인 배척선언 동맹파업 <매일신보 1921. 3. 14>

1926년 200명이 임금삭감에 동맹파업 <조선일보 1926. 4. 3~5>

1931년 170명 임금감하에 파업 <동아일보 1931. 8. 28>

1932년 361명이 임금인하 반대와 8시간 노동제 표방하고 동맹파업

노동법이 전혀 없었던 일제강점기 노동조합도 결성하기 어려웠던 인천의 성냥공장 소녀들의 파업은 번번이 실패했지만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아름답게 피어나는 민들레처럼

그들의 파업은 계속되었습니다. 1920~30년대의 성냥공장 소녀들의 외침은 1970~80년대 동일방직, 대한마이크로전자, 세창물산, 아남정공, 코스모스전자, 태연물산 등의 여성노동운동으로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조선인촌이 6·25전쟁을 겪으며 폐업한 후에도 배다리 주변엔 많은 성냥공장이 생겼는데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성냥갑 붙이는 부업을 계속하면서 여전히 성냥공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왔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만 하던 착하고 아름다운 소녀들이 저항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야학을 통한 배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한 10대 여공들은 하루 13시간이라는 힘겨운 노동 후에도 배움의 열망으로 어두운 길을 걸어 개미학원이라고 불리는 야학당인 계명학원(알렌별장)으로 발길을 옮겼고 그녀들의 계몽에 대한 의지가 일제강점기 여성노동운동과 독립에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장시는 서울 종로의 육의전입니다. 지방의 장시는 대부분 오일장인데, 장시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길목과 중심가에 위치해 왔습니다. 그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장시가 시장으로 변하게 된 것은 개항 이후 상품경제 발달과 연관이 있습니다. 1914년 조선총독부는 장시에 대한 관리-통제를 위해 '시장 규칙'을 반포하는데, 인천에서 장이 아닌 상설시장이 들어선 것은 이 '시장 규칙' 이후입니다. 개항 초 제물포 풍경 사진을 보면 해안가에 좌상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인천에서 순수 민간시장이 나타난 것은 인천의 역사 및 사회상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광복 직후 귀환한 동포들이 정착하고 한국전쟁 후 월남한 피난민들이 호구지책으로 널빤지를 모아 노점을 차리면서 그 수가 약 500여 개에 달했다 합니다.

또한, 노점상들은 이합집산을 거듭해 개천가와 배다리 철교, 창영동 꿀꿀이죽-양고기 골목, 영화학교 철길까지 이어졌고, 화평동 철교에서 전동 구름다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배다리 시장, 중앙시장, 신포시장, 송월동 시장, 송의 시장, 송림시장 등이 속속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인천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상권 이전과 시장 규모의 확장 등으로 과거보다 개선된 시설과 점포 수의 평준화를 보인 전통 재래시장은 현재 재벌기업의 대자본이 투입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지역상권-경제 잠식에 힘겹게 맞서고 있습니다.

동인천역 광장

동인천역 광장은 인천지역의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부평역 등과 더불어 항상 주요 집회 및 시위 등의 현장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87년 6월항쟁, 90년 5월 반민자당 5.9시위 사건, 91년 5월 투쟁 등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던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대중집회 및 시위 공간이었습니다. 주변에 가톨릭회관, 답동성당과 더불어 각종 사회운동단체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어 민주화운동세력의 주요한 결집지이기도 하였습니다. 답동성당은 인천지역의 민주화 운동사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답동성당에 봉직하는 성직자 자신이 민주화운동의 주체이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나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인천지역의 주요 투쟁의 공간으로서 자리매김 되어왔다.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시노트 신부 강제 출국 항의, 동일방직 노동조합 동물투척사건, 김병상 신부의 유신 반대 강론, 박종철 추모 미사 등을 거행하기도 하는 등 인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주요한 거점의 역할을 한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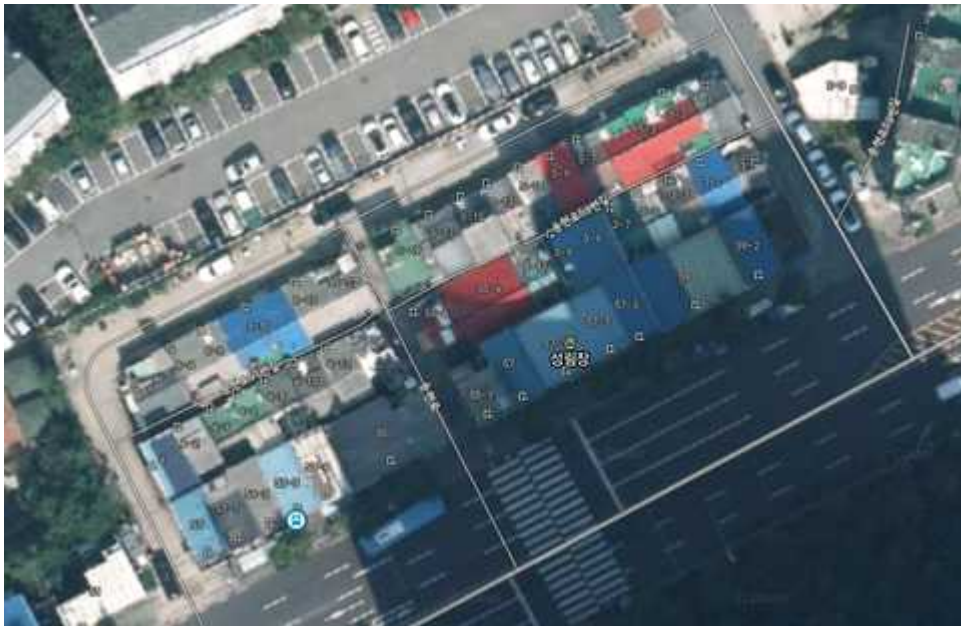
노동자 숙소

송현동 56~82일대 주택

송현동 56~82일대 주택들은 병렬식 연립주택으로 지은 집단주택이다. 본래 4개 동씩 한

구역을 이루어 모두 8개 동이 있었으나 지금은 안쪽 2개 동이 철거됐다. 일제강점기 조선기계제작소에 근무했던 노동자들이 거주한 주택지로 알려져 있다. 벽체 일체형의 집단주택은 1940년을 전후한 시기 공장 노동자들의 주거를 목적으로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택영단이 건설한 영단주택입니다. 송현동 56-82의 주택들도 영단주택과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집단주택지를 조성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전쟁 수행에 따른 자재 부족이었다. 보다 효율적으로 다수의 노동자를 거주시키기 위해 적용된 모델이기도 합니다.

조성 당시에는 대로변에 있는 주택지로 주목을 받았을 법도 하나 지금은 솔빛주공아파트가 인접해 건설된 탓에 잘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한 동을 이루는 주택의 규모와 형식은 모두 일정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각 가구의 건축 면적은 모두 다르다. 건축물 등록이 광복 후에도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대개는 20㎡를 넘지 않습니다.



병렬식 연립주택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대부분 증축을 진행해 가기 때문에 외형은 초기의 모습과 비교해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반면에 내부 구조는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이상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현동 56-82일대 주택은 1940년대 일본이 구상했던 전시 노동자 주택 건설 계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로도 훌륭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거주민들의 삶과 더불어 주택 내부에 대한 실측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인천제철 노동조합

송현동에 있는 현대제철은 대우자동차와 함께 인천지역의 대표적 대기업으로 1953년 대한중공업 공사로 출발하여 인천중공업, 인천제철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980년 당시 인천제철 노동조합을 경영진 퇴진, 기본급 책정 요구로 700여 명이 조업 거부 농성투쟁을 전개하였고 87년 노동자 대투쟁 시기에도 퇴직금 누진제, 가족수당, 민주노조 건설을 요구하며 거리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인천공작창

인천공작창은 1937년에 건설된 일본차량주식회사 인천공장을 전신으로 합니다. 일본차량주식회사는 '송현정 매립지'를 매수하여 1937년 10월, 건평 1,500평의 공장을 신설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공장 인근에 송현보통학교도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대공장의 '진출'이라고 언론에서 주목을 받기도 하였으나 조업을 시작한 지 2주가량이 지난 시점에 공장에서 동맹파업이 시도됩니다. 문제는 임금을 약속한 대로 지급하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이병렬 등 공장 노동자들은 회사가 한 시간에 8전씩 임금을 준다고 약속해 놓고 이것저것 제한 후 5전밖에 주지 않으니 하루 열 시간 일하는 데도 임금이 50전을 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동맹파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동자들이 경찰에 바로 붙잡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일본차량주식회사 인천공장이 만든 제품은 화차(貨車)였습니다. 1938년 생산량은 300량 정도였고, 1939년도부터는 객차(客車)를 함께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광복 후에는 조선차량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꿔 계속 운영했고, 관리인은 조희순이었습니다. 조선차량주식회사로 운영될 때 회사에는 800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인천시사』(1973)에 따르면, 일본차량주식회사 인천공장은 1945년 12월, 미군정청 상공부 직할 조선차량주식회사로 개편되었습니다. 1950년 10월 대통령령에 따라 교통부로 이관되면서 '인천공작창'으로 바뀝니다. 그 후 1959년 12월 일시 폐창됐습니다. 한동안 폐쇄 상태에 있던 인천공작창은 1960년 교통부가 경영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1962년 2월 1일 조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1960년 무렵 6억 환의 재산 평가를 받을 만큼 덩치가 큰 귀속 재산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 인천공작창은 대전공작창을 확장하면서 이곳으로 이전, 폐쇄됩니다. 그 후 공작창 부지에 미류건설, 동부건설이 아파트를 건설, 1989년도에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조선기계제작소 간부 숙소(송현동 66-289주택)

송현동 66-289주택은 송현동에 있는 일본식 2층 가옥입니다. 1941년 신축한 '조선기계제작소 간부 사택'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기계제작소 사택은 장소를 정확히 지정한 자료가 많지 않은데, 1947년 8월경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회원 30여 명이 이곳을 습격해 '조선기계 노총원'들과 싸움을 벌인 사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택은 송림동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언급되어 온 내용을 모아 보면, 조선기계제작소 사택은 화수동, 만석동, 송현동, 송림동에 있던 것으로 정리됩니다. 일부는 조선기계제작소와 꽤 먼 거리에 조성되었고, 오히려 인천차량주식회사 인천공장이나 여타의 공장들과 인접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 지역을 조선기계제작소 사택으로 인정할 때, 각 사택은 각기 다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현동 66-289' 주택은 주변에 비슷한 유형의 건축물들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모두 2층의 목구조로 되어 있고, 8개 동이 하나의 구역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같은 장소에 연립주택 형식의 집들도 조성돼 있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건축의 형식이나 규모로 보았을 때 일반 하급 노동자들이 거주했던 곳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선기계제작소 사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의 발굴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현동 66-181주택

송현동 66-181주택은 목조 2층의 일본식 주택입니다. 조선기계제작소 간부용 사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옥의 외부도 큰 변화를 겪지 않은 듯한데 내부 역시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회사 사택이라면 적어도 중간 간부급 이상은 되어야 살 수 있을 만한 규모입니다. 계단과 미달이문의 형태 등 내부 구조는 거의 손을 안 댄 상태입니다. 송현동 66-181주택 주변에는 비슷한 유형의 건축물들이 두 개 더 남아 있습니다. 2층의 목구조 형태는 같습니다. 과거 항공사진을 통해 볼 때 본래 8개 동으로 이루어진 주택지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송현동 66-181주택은 그중 가장 동쪽에 위치하였습니다. 이 주택지는 송현초등학교, 당시 사립송현보통학교 및 일본차량주식회사 인천공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송현로52번길을 사이에 두고서는 연립주택으로 보이는 집단주택지가 형성돼 있어서 이 일대가 계획하에 사택지로 조성된 사실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선기계제작소까지는 약 700m가량 떨어져 있다. 도보로 조선기계제작소에 출근을 한다면 일본차량주식회사 공장 담을 따라 곧게 뻗은 길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큼

다. 송현초등학교 서북쪽으로는 집들이 들어서 있어 골목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출근길이 짧은 거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송현동 66-181주택은 일제강점기의 흔적입니다. 그래도 동구의 근대 도시 유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만큼 보존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조선기계제작소는 1963년 한국기계공업, 1976년 대우중공업, 2000년 대우종합기계, 2005년 두산인프라코어로 2021년 현대중공업으로 변모해 갑니다.

송현동 66-661 사택

송현동 66-661 사택은 여러 단위 세대들이 거주하는 병렬식 주택의 한 부분입니다. 이후 변화되는 과정을 추적해 볼 때, 벽체가 구분되는 6채의 주택이 1개의 동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때문인지 지금 남아 있는 주택의 외벽은 양방향 모두 칼로 자른 듯 밋밋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주택들과 연결된 벽체 부위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현동 66-661 사택 주변에는 유사한 형태의 연립주택이 모두 7개동이 있었습니다. 그중 해당 주택은 가운데 위치했던 주택입니다. 출입구는 일본차량주식회사 인천공장 방향으로 나 있는데 후에 출입구 부분을 증축해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시킨 듯합니다.

송현동 66-661 사택은 한 구역 안에 있던 송현동 66-181주택이나 송현동 66-289주택과는 형태나 위치가 다릅니다. 회사 사택이라면 이들 주택과는 다른 지위의 사람들이 거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연립의 형식이 모두 바뀌어서 터만 확인될 뿐 당시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송현동 66-661주택만이 그나마 그때의 풍경을 유추하게 해줄 뿐입니다.

송현동 66-661주택과 인접해 있는 일본차량주식회사 인천공장은 1937년 건설됐고, 조선기계제작소 역시 1937년 완공됐습니다. 이들 공장 모두 해안을 매립해 조성한 땅입니다. 주택들 역시 매립지에 세운 집들이었습니다.

인천공작창관사

화수동 37-194주택은 광복 직전에 건축됐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1945년 5월에 신축된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H 씨는 1967년부터 이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소유권 이전은 196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사를 오기 전에는 철도청 관사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합니다.

1947년에 촬영한 위성사진에 화수동 37-194주택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약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유사한 모양의 건축물 다섯 개 동이 있고, 주변 집들과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로 봐서 특별한 목적으로 지은 집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해당 주택 앞의 도로는 1998년 신설됐습니다.

공작창이란 철도차량과 철도 용품을 만들거나 수리하는 공장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에는 민간에서 새 철도차량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철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보유한 차량을 정비만 하기에 쓰지 않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기 전인 60년대만 해도 국내 철도차량 제조업체의 역량이 미약한 편이었으므로 철도에서의 공작 사무를 공작창에서 맡았습니다. 광복 이후 교통부 시기를 거쳐 철도청이 발족했고 198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는 서울, 영등포, 인천, 부산 네 군데에 공작창이 있었습니다. 서울공작창과 부산공작창은 광복 이전 철도국의 경성공장과 부산공장이라는 관영 철도 조직체에서 비롯한 반면, 인천과 영등포는 각각 일본차량제조회사와 용산공작소의 공장이 그 전신이었습니다. 즉, 민간에서 기원한 곳입니다. 인천공작창은 말기에 주로 객차와 화차를 제작하는 곳으로 특화하여 운영하다가, 인천과 영등포공작창의 기능을 새로 설립한 대전공작창으로 통합함에 따라 1983년에 폐창하였습니다.

오늘날 인천 동구 화수동 미륵아파트와 송현동 동부아파트 단지가 그 자리입니다.

1954년 교통 통계연보에 나온 철도종사원 주거 실태표(관사 및 숙소)를 통해 인천공작창에도 별도의 관사가 다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부 본부와 서울, 대전, 부산, 순천, 안동 등 광복 이전부터 이어진 5대 철도국(구 철도사무소), 그리고 삼척에 따로 설립한 지방운수국 외에도 인천공작창에 소속한 철도관사의 수효를 집계해 놓았습니다. 1954년 3월 현재, 호수로 7등 관사 8호, 8등 관사 41호, 대용 노무관사 88호가 있었습니다. 넘겨받은 적산과 광복 이후에 확충한 관사를 합한 수치일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생김새가 판이한 복수 유형의 가옥이 섞여 있습니다.

숙소(합숙소)도 인천공작창안에 1동 있었고, 독신 거주자 52명이 기거하였습니다.

과거 인천역에서 송현동으로 이어지던 옛 북해안선 철도 놓여 있었습니다. 북해안선 철로에서는 인천공작창은 물론 주변의 여러 공장으로 들어가는 인입선 또는 전용철도가 분기했습니다.

인천공작창 관사 1개 동이 화도진 중학교 맞은편에 있습니다. 겉모습은 일제강점기 중후

반 전국 어디서나 관영 철도 선로를 따라 보편화 된 2호 연립형 철도관사의 대표적 유형을 닮았습니다. 2가구가 나란히 붙어서 좌우 대칭이고, 옆에서 볼 때 지붕 면이 3단이었습니다. 반대쪽 측면, 부속가를 증축해서 본래 관사 가옥은 가려져 있습니다. 지붕 아래 몰탈칠한 가옥 외벽에서 예전 느낌이 납니다.

대장에는 1945년 5월 20일 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복 이전에 지었으며 일본차량제작회사 인천공장에 딸린 사택으로 봐야 할 텐데, 생김새는 관영 철도관사를 빼닮았습니다. 일본차량제작회사와 총독부 철도국 사이에 안전교류와 사무협약이 있었으니 여러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따름입니다.

화수동 35-14 주택군

화수동 35-14주택군은 모두 세 개의 지번을 갖고 있다. 화수동 35-14는 연면적이 152.7이고, 화수동 35-5와 화수동 35-11은 연면적과 건축 면적이 모두 56.2㎡입니다. 건립연대는 건축물대장을 참고할 때 화수동 35-14가 1943년, 나머지 두 곳이 1944년으로 나옵니다. 화수동 35-14주택군은 1947년도 항공 영상을 근거로 할 때, 1개 동만이 넓은 부지에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위치상으로 본다면 조선기계제작소 사택과 일본차량주식회사 사택 사이에 있고, 해안 매립지에 들어선 공장들로 모두 연결된 지금의 화수사거리 인근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형태 면에서 본다면 일본차량주식회사 인천공장 사택보다는 조선기계제작소 사택과 유사해 보이지만 정확히 어떤 용도로 건설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주변의 대지가 공터로 남아 있다는 걸 고려한다면 연속적으로 건축물을 조성해 가려다가 광복과 함께 중단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혹은 상가 용도로 건설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화수동 35-14주택군은 광복 후 남동쪽으로 건물을 증축해 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지금은 안으로 들어가면 옆 건물군과의 사이에 마당 형태의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처음 조성했을 때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도 본래 건물의 구조는 그리 크게 변하지 않은 듯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구 해안가 사택지의 중앙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들어앉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건물의 용도를 알기 위해서는 건물의 원형을 파악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선기계제작소

조선기계제작소는 1937년, 공장 건설을 위해 만석정 8번지 884평과 9번지 6,751평을

인천부로부터 매입합니다. 모두 해수면을 새로 매립해 생긴 땅이었습니다. 1937년도는 동구의 해안지대가 대공장 건설로 들썩이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재계에서는 조선기계제작소와 함께 일본차량주식회사 인천공장과 조선제강소를 인천중공업 3대 공장으로 부르면서 인천의 '중공업 발흥'을 크게 반겼습니다. 이들 회사는 모두 연내에 조업을 개시합니다.

공장을 건립할 당시 직공은 2백여 명 정도였고, 건물은 완공이 되었어도 전쟁 등의 여파로 인해 1939년도가 되어서야 기계 설비를 다 갖추게 됩니다. 조선기계제작소 등 동구 해안을 중심으로 공장지대가 형성되자 '공업전용' 철도를 부설하거나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가는 등 이 일대를 '무역지대'로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북인천항' 건설 계획이 수립되어 만주와 일본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만들려는 구상도 구체화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인천 북항 건설은 결국 완성되지 못한 채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선기계제작소는 공장 부지를 매수한 후, 이 지역에 있던 130여 호의 주민들에게 각각 5원에서 8원가량을 주고 이전하라는 통보를 보냅니다. 당시 주소로 화수정 10번지에서 25번지에 이르는 가호들이었습니다. 공장 건물과 사택들은 어찌 보면 조선인 가호들을 내몰고 그 자리에 건설한 건축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수동 조선기계제작소 근로보국대 합숙소

화수동 11-23 주택군은 건축물대장에 근거할 때, 조선기계제작소 사택인 '화수동 8-24' 주택보다 1년 앞서 신축되었습니다. 조선기계제작소 공장과 바로 인접해 있고 사택지와도 맞붙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 발간한 『관영주택과 사택』에 따르면 근로보국대 합숙소라고 합니다.

조선기계제작소가 이 일대 매립지를 매입한 시기는 1937년도입니다. 이 해 공장을 건설합니다. 직공은 2백여 명 정도였습니다.

'화수동 11-23' 주택군은 통행로를 가운데에 두고 양쪽으로 건물을 조성한 경우입니다. 통행로 위쪽으로 지붕을 덮어서 하나의 건축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벽체는 대나무에 진흙을 발라 만드는 전형적인 축조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지붕을 덮은 탓에 내부는 꽤 어두운 편이다. 외벽은 후에 블록을 세워 막았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당시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내부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철거되어 주차장과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화수동 조선기계제작소 간부 사택

조선기계제작소는 1937년, 공장 건설을 위해 만석정 8번지 884평과 9번지 6,751평을 인천부로부터 매입합니다. 모두 해수면을 새로 매립해 생긴 땅이었습니다. 1937년도는 동구의 해안지대가 대공장 건설로 들썩이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재계에서는 조선기계제작소와 함께 일본차량주식회사 인천공장과 조선제강소를 인천중공업 3대 공장으로 부르면서 인천의 '중공업 발흥'을 크게 반겼습니다. 이들 회사는 모두 연내에 조업을 개시합니다.

공장을 건립할 당시 직공은 2백여 명 정도였고, 건물은 완공이 되었어도 전쟁 등의 여파로 인해 1939년도가 되어서야 기계 설비를 다 갖추게 됩니다. 조선기계제작소 등 동구 해안을 중심으로 공장지대가 형성되자 '공업전용' 철도를 부설하거나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가는 등 이 일대를 '무역지대'로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북인천항' 건설 계획이 수립되어 만주와 일본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만들려는 구상도 구체화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인천 북항 건설은 결국 완성되지 못한 채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선기계제작소는 공장 부지를 매수한 후, 이 지역에 있던 130여 호의 주민들에게 각각 5원에서 8원가량을 주고 이전하라는 통보를 보냅니다. 당시 주소로 화수정 10번지에서 25번지에 이르는 가호들이었습니다. 공장 건물과 사택들은 어찌 보면 조선인 가호들을 내몰고 그 자리에 건설한 건축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화수동 8-24' 주택에는 이경모 옹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주해 올 당시 '한국중공업' 과장급 인사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성진 인터뷰) 아마도 한국기계공업 간부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경모 옹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 1976년입니다. 조선기계제작소는 1963년 한국기계공업을 거쳐 1976년 대우중공업, 2000년 대우종합기계, 2005년 두산인프라코어로 이름을 바꿔 갑니다. 주택의 상량을 향나무로 만들어 천장에 올라가면 향나무 향이 진동한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건축 당시의 모습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겠지요.

조선기계제작소 사택은 일본의 대자본이 인천에 들어와 정착해 갔던 흔적이면서 동구의 해안이 여전히 공장의 담벼락으로 막혀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유적입니다. 근대 도시 유적으로서 사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아야 하겠습니다.

도시산업선교회

동구 화수동 183번지에 자리 잡은 인천도시산업선교회(산선)는 미국의 선교사 조지 오글이 인천에 정착한 1960년대부터 이후 40여 년 동안 지역 주민 및 노동자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왔다. 특히 산업사회의 민주화와 평화를 위한 화해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활동한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동일방직, 인천중공업 등 노동자들의 부당한 탄압에 대한 대항과 함께 인천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화수동에 있는 일꾼교회의 출발은 도시산업선교회(이하 '산선')부터 시작합니다. 도시산업선교회는 초기에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종교 이야기, 사는 이야기 등을 하면서 전도를 목적으로 산업 전도를 시작합니다. 개신교의 각 교파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산업현장으로 뛰어들 무렵입니다.

1961년 내리교회 윤창덕 목사, 인천 주안교회의 조용구 목사 등과 더불어 산업 전도를 목적으로 인천산업전도위원회를 만들고 도시산업선교회를 조직한 미국인 조지오글 목사는 노동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두 달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한 공장을 찾아 같이 점심을 먹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공장에서 큰 사고가 나고 9명의 크고 작은 부상자가 생깁니다. 해방신학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전도의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산업선교회는 노동자들과 함께하면서 한국노동현장의 실체와 구조적 문제를 마주

하게 되면서 활동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노조를 조직하고, 어용노조를 민주화하고, 노동자 교육, 노조 지도부 교육 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를 맞추어 도시 빈민들을 상대로 한 도시선교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나 노동자뿐만 아니라 도시 빈민가에서 실천 활동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두가 가난에 허덕였고, 사회는 억압적이었으며, 불평등과 계층 간의 위화감은 점점 더 심해져 가던 시기니까요. 1960년대만 해도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이하 '인천산선')의 노동교육은 반응이 좋아 각 노동 부처에서 도시산업선교회에 강연을 요청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72년 유신헌법을 전후로 도시산업선교회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면서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이념적으로 매도되고 활동도 위축되어 갑니다.

그 과정에서 1970년대 후반 동일방직 사건으로 노동자들이 해고당하고 수배당할 때 도시산업선교회(일꾼교회)는 지하실을 내주고,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어 줍니다. 도시산업선교회에 대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 1968년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도시산업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변경됩니다. 민중가요 '친구'로 유명한 연극연출가 김민기 씨도 1970년대에 인천산선에서 연극을 지도하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많은 노동자와 함께하면서 도시산업선교회 인천지부는 상근 간사 5명에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가 일하는 큰 조직이었다고 1983년부터 인천산업선교회 간사로 활동했던 민족문제연구소 이민우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1980년대만 해도 역사교실을 하면 6~7,000명씩 수강을 할 정도로 인천산선의 강좌는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일꾼교회는 인천산업선교회 실무자로서 1966년 10월부터 동일방직에 위장 취업한 조화순 목사님이 1971년 개척한 교회로, 동일방직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당시에는 노동자교회였던 것이 이후 일꾼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조지오글 목사님은 1974년 인혁당 재건위 관계자들 구명운동을 벌이다가 시노드 신부님과 함께 추방당합니다. 지금 일꾼교회의 담임목사는 김도진 목사님으로, 1996년에 이곳에 오시면서 도시산업선교회 간판은 내려지고 지금은 종교시설 이외에 사회복지기관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화수화평재개발에서 헐릴 위기에 놓였으니 과거 실무활동가로 총무역할을 했던 김정택 목사가 30일 단식 등 지역사회에 관심을 280여 일의 릴레이 단식농성으로 이축하기로 최종합의하였습니다.

삼화제분

국내 최초의 밀가루 공장은 1918년 만주, 함경도, 평안도 등에서 생산된 밀을 가공하기 위해 설립된 만주제분주식회사 진남포공장이었습니다. 남쪽에서는 1931년 풍국제분 용산공장이 최초였고 뒤이어 수입이 용이한 인천항근처에 1935년 일본제분(현대한제분)과 사이토제분(현삼화제분)이 문을 열었습니다. 화평동 냉면 거리에서 인천극장을 지나 조금 더 전진하면 일제강점기시절, 동구 최대의 건물이었던 삼화제분의 5층짜리 적갈색 벽돌 건물이 나옵니다. 1938년 건설 당시의 외관을 아직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게 잘 지었습니다. 삼화제분은 박무신씨가 1957년 9월 24일 설립했습니다. 2012년 매출 600억 원, 영업이익 8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내실이 단단한 알짜기업이라는 평가를 듭니다. 수천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박만송(77) 삼화제분 회장은 정계는 물론, 여러 재벌가(家)와 혼맥으로 연결됐습니다. 친박(친 박근혜) 계 좌장 격이었던 서청원 새누리당 전 의원의 사돈이고, 사촌 박담회는 전 온누리교회 부목사를 매개로 범LG, 범두산가와 혼맥이 연결됩니다.

동일방직

동일방직 노동조합

동일방직 민주노조운동은 70년대 노동운동에서 나타나는 여러 전형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어용노조에서 민주노조가 형성되고 내부로부터 조합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 자본과 권력의 가혹한 탄압과 이에 대한 저항, 폭력적인 노동규율, 회사 내에서 비인간적인 노무관리, 가부장적 노사문화와 남성폭력, 종교인·학생·지식인과 노동운동의 결합 등이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또한, 1970년대 노동운동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1972년 회사 측의 방해 공작을 뚫고, 남성 위주의 어용노동조합을 깨고 22대 지부장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지부장을 선출하였으며 여성집행부를 탄생시켰습니다. 1978년 2월 회사 측 조종을 받은 남자들은 선거하러 들어오는 여성조합원에게 똥물을 투척하는 등 회사와 정보기관의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싸웠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동양방직주식회사 인천공장은 일본에서 설립된(1914년) 동양방직주식회사가 1934년 인천에 건설한 '분공장(分工場)'입니다. 광복 후 귀속업체가 되었다가 1955년 서정익이 불하받아 운영하였고, 1964년 상장해 주식회사가 되었습니다.

동일방직 사장이었던 서정익은 일본 나고야고등공업학교 '방직학과' 1932년도 졸업생임

니다. 졸업 후 귀국해 바로 동양방직 인천공장에 들어갑니다. 1942년에는 중국으로 건너가 산서성에 있는 북지개발공사 공장장으로 근무했고, 광복 후 귀국하면서 다시 인천공장 차장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당시 동일방직은 귀속업체였습니다. 서정익은 인천공장 공장장, 관리인 등을 거쳐 1955년 동양방직을 불하받습니다. (서문석, '해방 전후 대규모 면방직 공장의 고급기술자')

건설 막바지에 이른 동양방직주식회사 인천공장 (경성일보, 1934년 3월 13일 자, 서울대학교 소장)

'방직'은 솜 등에서 실을 뽑는 일을 말합니다. '방직'은 '방직'과 '제직(製織)'을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 제직은 실로 직물을 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방직은 실도 뽑고 직물도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직 회사들은 대개 실을 뽑는 일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동양방직은 광복 후 '동양방직'이 되었다가 '동일방직'으로 바뀝니다.

동양방직주식회사는 방직회사입니다. 솜을 갖고 실을 뽑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업 환경이 좋을 리가 없었을 겁니다. 광복 후이긴 해도 어떤 직원은 공장 안에 처음 들어섰을 때 지옥을 보는 것 같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공장 문을 열자마자 직원들이 분규에 뛰어든 데에는 그런 이유도 한몫했을 겁니다. 동양방직주식회사 인천공장은 1933년 5월 공사를 시작해 1934년 7월 낙성을 했습니다. 건립 당시 공장부지는 2만 2천 평, 사택 부지는 8천 평으로 총 부지 면적이 3만 평이었습니다. 공장과 사무소의 건평은 1만 1천 평이었습니다. (조선매일신문, 1934년 10월 1일 자)

현재 동일방직 내에는 광복 직후에 건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무실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한옥의 형태를 띤 이 건물은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나마 동일방직의 오랜 역사를 알려주는 건축물입니다. 동구의 오래된 공장들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공간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거기엔 조선인 노동자들의 애환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동일방직 공장 터가 다른 용도로 변화를 겪는다고 해도 의무실 건물 등을 활용해 노동자들의 삶을 기록하는 공간으로 남겨두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큰물공부방

큰물공부방은 1983년 11월 만석동 판자촌(속칭 아까사끼촌)에 진보적 여성운동 단체인 여성평우회가 빈민운동을 위해 만든 공부방으로 홍미영(전 부평구청장)이 실무자로 활동하면서 빈민 여성들의 생활공동체와 학령기 아동을 돌보는 공간 역할을 했습니다. 이어 YMCA와 김미경 등 여성 빈민 활동가들이 활동을 이어 오다가 큰물공부방은 철거되고

내동교회 박중기 신부의 도움으로 87년 송림동 나눔의집을 창립했다. 근처에 있는 기차길 옆 공부방은 김중미의 『팽이부리말 아이들』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대성목재

개항(1883년) 후 인천은 목재산업의 '성지'로 알려져 왔습니다. 원목을 수입해 가공할 수 있는 항만과 주변 환경 등이 잘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뿌리산업'으로도 일컬어집니다. 한때 국내 목재산업의 7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하니, 인천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력이 어땠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 시기와 맞물려 활성화한 목재 관련 업종은 요즘도 곳곳에서 '성업' 중입니다. 대개 수입을 하는 원목은 각종 가구를 만드는 데로 이어집니다. 유독 인천에 가구공장이 많은 까닭입니다. 현재 '00가구' 등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 만한 가구회사들도 인천에서 출발해 큰 기업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싸리재에서 바다리로 넘어가는 길 양쪽엔 갖가지 가구점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인천시민들은 물론 경향 각지에서 온 소비자들이 가구를 구입해 가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오늘날엔 전국 여기저기에 가구 전문 판매장이 들어서 소비자의 발길을

끝지만, 그 시절 한 곳에 밀집한 가구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싸리재 가구점'들이 성황을 누렸습니다. 나이 지긋한 인천인이라면 '대성목재'를 모르지 않습니다. 특히 이 회사를 둘러싼 말들이 흘러나와서입니다. 그만큼 대성목재는 한때 인천인들의 설왕설래 대상이었습니다. 대성목재는 일제강점기였던 1936년 만석동에서 '조선목재'로 출발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합판 제조공장이었습니다. 당시 합판은 첨단 물질로서, 여기선 건축자재나 가구가 아닌 항공기 소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선목재는 1945년 해방과 함께 개인에게 경영권을 넘겨 이름을 대성목재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다가 1955년 국내 종합상사 원조격인 '천우사'를 새 주인으로 맞은 후 1960년대 합판 1억 달러 수출을 주도했습니다. 천우사는 1964~1966년 용현동과 북성동에 잇따라 합판공장을 지어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대성목재는 한때 직원 수 6000여 명에 달하고, 1965년엔 재계 순위 5위를 넘봤을 정도였습니다. 이후 부실경영으로 인해 1969년부터 사주가 9번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2000년부터는 경쟁업체였던 동화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인천의 향토기업인 대성목재가 동화기업에 흡수합병된다는 소식입니다. 합병기일은 2022년 12월 1일입니다. 오랫동안 내세웠던 대성목재의 간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화기업은 대성목재공업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목재산업이 다른 첨단산업에 밀려 관심을 덜 받는 게 현실입니다. 업계에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좀 더 집약된 목재 단지를 인천 신항에 조성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대성목재를 인수하면서 국내 1위 목재 기업으로 발돋움한 동화기업의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대한제분

대한민국의 제분 및 식량 업체로, 국내 제분업체 중 사조동아원(구 한국제분)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된 기업입니다. 산하 브랜드는 '곰표'입니다. 공장은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북성포구와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에 두 곳이 있습니다.

1952년에 이한원 동아상사 사장이 김용성, 전택보와 함께 세웠습니다.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일본제분 월미도 공장을 1953년에 불하받았으나 이미 6.25 전쟁으로 공장이 초토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23만 달러의 대출금을 사용하여 서독제 시설을 수입하여 복구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실제 조업 개시는 1954년 7월이나 되어서야 가능했습니다. 초기에는 동업체제로 운영하다 1956년부터 이한원 단독으로 운영해왔으며, 1957년 국내 최초로 스위스제 자동하역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뒤이어 인천공장에 신관 제

분장을 세웠습니다. 1960년대 정부의 혼분식 장려정책에 따라 차차 성장하며 1970년 대 한사료공업을 인수한 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했고, 이듬해 미국 PIFCO와 합작해 대한 싸이로를 세웠습니다. 1979년에는 미국 보덴사와 합작해 한국보덴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1978년 이한원 회장 사후 1982년에 장남 이수남과 이종각 부사장 사이에 경영권 다툼이 있었으나, 결국 이종각 부사장이 경영권을 잡아 회장이 되어 1983년에 토코밀제품 및 프리믹스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에 국내 최초로 밀가루 조제품을 수출하고 1988년 충북 청주시에 첫 지방사옥을 세웠습니다.

1996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첫 해외사무소를 세우고 2001년 부실기업 신극동제분의 생산시설을 인수한 뒤, 장생개발을 합병했습니다. 2005년에는 중국 방원그룹과 현지 합작법인을 세웠습니다. 2009년에 이종각 회장의 차남 이건영이 대표이사로 취임해 2세 경영체제를 확립해낸 후 2012년 보나비를 인수했습니다.



팝콘, 나초, 애경, 곰표, 2080치약, 스와니코코, 곰표 밀가루, 쿠션/핸드크림, 4XR 곰표패딩, 쿠켓 떡볶이, 한강주조 막걸리, LG생활건강 세제, 할리스커피 디저트, 아이스크림, 문구류, 폰케이스 등 다양한 컬래버레이션을 선보였습니다.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곰표 브랜드는 인지도 자체는 높지만, 상당히 오래되고 낡은 느낌이 나서 클래식한 브랜드로 재구성하기 위해 이런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2020년 5월경 BGF리테일의 편의점 브랜드 CU, 맥주 제조자 '세븐브로이'와 합작해서 곰표 상표를 사용한 '곰표 밀맥주'는 입소문을 타고 상당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수제 맥주 특성상 소량 판매되면서 매진사례를 꾸준히 겪었고 2021년 5월 롯데주류 OEM을 통해 한 달 300만 개 분량의 대량생산 체제가 마련되자 2주 만에 완판시키면서 카스를 제치고 편의

점 맥주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이와 같은 곰표 브랜드의 흥행은 편슈머 열풍을 일으켜 말표, 제비표, 천마표 등 여러 회사의 브랜드 상품 진출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콜라보 상품들은 아이들에게 안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린이 외에도 지적장애인이거나 노인들, 주취자의 경우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식품으로 착각해 잘못 먹었다가 인명에 관련되는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 콜라보의 대표 격인 곰표의 경우는 원래 식자재인 밀가루와 설탕을 만들던 브랜드라 큰 문제가 없었지만... 결국 정부에서 법을 바꿔 이런 상품들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다목적 중력분 밀가루에는 곰이 그려진 곰표를 사용하지만, 강력분은 코끼리, 박력분에는 암소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등급마다 다른 동물들이 그려져 있었지만, 지금은 세 가지 동물로 통합시켰습니다. 양변기 업체인 대림비앤코의 마크도 백곰인데, 고개를 쳐들고 있으면 곰표 밀가루의 곰이 고 살짝 내리고 있으면 대림의 곰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라코스테의 악어와 크로커다일의 악어 상표가 동일 업종이라 분쟁이 있었던 경우와 달리 전혀 다른 업종의 마크인 지라 서로의 양해하에 쓰고 있습니다. SBS의 주주 중 하나이기도 한데, 정작 곰표맥주는 경쟁사 프로그램에서 히트했습니다



상상플랫폼 1883년 인천개항지점

인천항 8부두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상상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상플랫폼은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1가 4-161일대 연면적 2만5천183㎡에 지상 4층의 문화·집회 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결합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인천 내항 8부두에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단

일 창고를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사업자가 자본을 조달하고 인천시로부터 20년 장기임대 운영권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지는 반경 200m 이내 인천역, 반경 5km 이내에 경인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등이 있어 우수한 광역교통 접근성을 갖췄습니다.

월미도, 차이나타운 등 인천 주요 관광지와 인접했으며 청라신도시, 송도신도시, 영종도 등이 위치해 안정적인 배후 수요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인천 개항장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내항 해양문화지구 개발,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 인천 트램 개발 등이 계획돼 관광거점으로서의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국내 최초의 개항장인 인천 내항은 국제여객부두 증설과 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인구 감소, 청사 이전 등의 요인으로 본 기능이 바뀌면서 점차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인천시는 도시재생을 통한 활성화를 추진 중이며 1단계 사업인 상상플랫폼 개발은 대규모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해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인천부두 자유노동조합

부두노동자들은 광복 이후 미군정, 한국전쟁, 4.19 의거, 5.16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대혼란기에서도 하역작업 현장에서 끊임없이 작업하면서 조직을 정비해 나갔습니다. 부두노동자들끼리 분열과 통합을 되풀이하는 혼란 속에서 노동자 스스로 조직을 정비하고 재건하면서 인천항에서 확고한 독점적 노무공급 체제를 확보해나갔습니다. 해방 후 기존의 질서가 무너져 노동자나 화주 모두 교섭대상이 없어 곤란을 겪었으나 1945년 10월 최초로 인천자유노조를 창립해 6,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조직은 사상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로 분열과 통합을 거듭하다가 현재는 인천항운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천역

1882년 영국과 일본이 최초로 한국에서 철도부설권 요구를 제기하였으며, 1882년 말부터 1885년 말까지 조선 조정에서 외교협상과 관련한 자문과 세관 업무 관련 지원업무를 담당했던 독일인 밀렌도르프 (Paul Georg von Milendorff)는 그의 수기에 한국에서 철도문제는 1882년부터 논의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부선, 경인선 등이 논의되면서 특히 인천은 서울과 가까워 경인 철도를 부설할 경우 외국 물자의 반입과 국내물자의 유출이 쉬워 경제적인 이익이 예상되어 가장 먼저 경인 철도부설을 택하게 되어 1899년 9월 18일 한국 최초로 인천 (제물포) ~노량진간 33.2km의 경인 철도가 개통되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일본의 미우라공사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으로 1896년 2월 11일부터 고종황제와 세자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김 (아관파천)에 따라 일본의 간섭이 약화한 시기에 미국공사 알렌의 활동으로 1896년 3월 29일 미국인 James R. Morse에게 경인 철도부설권이 특허되었다. 경인 철도부설권을 획득한 James R. Morse는 철도부설 장비 기재의 면세도입을 신청하고, 친구인 W. Townsend와 함께 철도회사를 설립하고, Col -Ibran을 기술책임자로 지정하는 등 경인 철도 부설공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한강 홍수로 인하여 한강 교량 개통이 늦어짐에 따라 완공된 인천~노량진간 33.2km 구간에 대하여 1899년 9월 18일 개통식 거행하고 가영업을 시작한 후 1900년 7월 8일 한강 교량이 준공됨에 따라 1900년 11월 12일 인천~서울간 경인 철도 개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1960년 건물인 인천역사 건물은 그동안 월미은하레일 공사, 수인선 공사 등 관계 철도 사업이 있을 때마다 사라지려는 위기에

처한 건물입니다. 벌써 십 년 전부터 인천역 통합 역사 건설로 철거하려 하고 있으나 전철 승강장과 국도 사이에 건물을 지어 역무 및 구내 건물로 이용하다 지금은 수인선 연결 철도로 폐지되었으나 전철승강장 차막이선 끝부분에 신축된 건물을 구내 및 기타 시설로 이용함으로써 이 역사 건물은 역무시설로 계속 이용되고 있습니다.

참고

골목길 숨은 보물찾기 김현석 외 운영위원회 도서출판 작가들 2015

인천시사 상권, 1993

인천일보 '이희환 박사의 인천사 산책' 인용

인터넷신문 인천in

인천일보 [썰물밀물] 인천의 목재산업과 대성목재 이문일 논설위원

인천에서 민주화운동을 만나다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인천민주로드 길잡이 양성과정 자료집 인천민주화운동센터 2022

강사 김 종 운

현 자연과사람들대표

전 천주교인천교구 사회운동협의회집행위원

전 쌍용자동차노동조합지부장(민주노총창설멤버)

전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기획실장

전 천주교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

전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감사

전 영화화력발전소민관공동감시단위원

전 가톨릭환경연대대표

부평 평화의 길

김현석(생태역사공간연구소 공동대표)

1. 부평역과 공장 건설

- 1930년대부터 인천지역에는 대규모의 공장 지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일본은 인천지역을 ‘공도(工都)’로 재편해 가면서 1938년부터는 북인천항 건설에 착수했다. 이것은 이른바 일본이 추진한 ‘경인일체화’ 구상과 맞물려 있는 사업이었고, ‘황해 호수화’ 정책이란 거대한 계획의 일부분이기도 하였다. 일본은 향후 경성과 인천을 잇는 경인공업도로가 완성될 것에 대비해 인천에 새로운 공업항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지금의 주안공업단지 일대부터 서구 앞까지 이어진 바다를 정비해 신항만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 [관련 사료] 이 공업항은 선박의 출입을 자유로 하게 된다 하며 출입 선박 톤수는 3,000톤 내지 5,000톤의 선박이 거침없이 드나들게 될 것이며 해저를 발굴하여 주안과 서곶면 해안까지 선박의 정박을 하게 된다는 바, 이것이 실현된다면 동양 일(一)의 항구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 하며, 원 13년도 제1차 계획으로 묘도 해면 4만 5,082평을 공비 65만 원으로 매립에 착수하였다 하며 지난 9일에 기공식과 동시에 미나미(南) 총독이 북인천항이라고 명명하였다고 한다.¹⁾
- 1930년대 말부터는 내륙지역인 부평지역 일대에도 공장 건설이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공장 건설은 부평역 일대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부평역은 경인철도가 개통되는 1899년에 영업을 시작한 역이다. 인천가족공원이 있는 광학산의 산기슭을 깎은 터에 만든 역이어서 역 주변의 지대가 인근 지역에 비해 높다.
- 부평역이 영업을 시작한 초기에는 아직 부평지역이 중심부를 차지하지 못했다. 조선시대까지 부평도호부의 읍치였던 계양산 남쪽, 즉 지금의 계양구 일대가 여전히 지역의 핵심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던 시기였다. 부평역 주변이 본격적으로 개발된 때는 1930년대 중반 이후다. 이때 인천육군조병창이 부평역 앞 벌판에 건설되고, 대규모 공장들도 지금의 부평구 일대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 1930년대 중반을 전후에 부평에 설립된 공장들은 대개 일본 내 기업들이 자본

1) 「‘북인천항’의 데뷔-!, 묘도해안 항만설비」, 『매일신보』, 1938. 4. 12.

을 투자해 지은 것들이다. 국산자동차공업, 히로나카상공(弘中商工), 디젤자동차 조선제조소, 동경자동차 부평공장, 오오사카 철사공장, 고주파 부평공장, 경전(京電) 와사제조장(瓦斯製造場) 등이 이 시기를 전후해 부평에 등장했다.

- 공장과 함께 철도도 확장됐다. 공장과 연결시키기 위해 부평역에서 갈라져 나온 지선이 인천육군조병창과 히로나카상공 부평공장 등으로 연결됐다. 철도 지선은 지금의 산곡동 방향에 위치해 있던 장고개로 연결되는 것이 하나 있었고, 이 지선은 인천육군조병창을 잇기 위한 용도였다. 다른 하나는 일신동 방향의 성현(星峴) 쪽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양병기보급창 부평분창과 연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부평역 남부역 바로 앞에는 철도관사도 건설됐다. 건립 당시에는 16채 가량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1채만 남아 있다. 내부가 다다미방으로 구성되어 있던 일본식 가옥이다. 일본인 직원들이 거주하였다가 이들이 광복과 동시에 본국으로 돌아간 후 한국인들이 들어가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현재도 이 마을을 ‘철도관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관사 건물은 사라졌고 유일하게 한 채가 남아 있다.



<성현 방향의 철도 지선>

2. 미쓰비시 공장

- 1938년, 히로나카상공(弘中商工) 부평공장이 지금의 부평공원 자리에 착공돼 1939년 준공됐다.²⁾ 히로나카상공 부평공장은 철도 차량, 철도용 기계, 광산 기계 등을 주로 생산하던 곳이었다. 부평역에서 공장 내부로 연결되는 철도 지선도 이때 설치됐다. 히로나카상공 부평공장의 종업원은 1,000여 명이 넘는 규모였다.
- 미쓰비시 공장과 부평역을 연결하는 도로 역시 이 무렵에 개설됐다. 부평지역의 대표적인 사업가였던 일본인 아베가 도로용 토지를 기부하였다. 아베는 부평요업 등을 운영하였고, 후에 부평영화극장을 개관했다.
- 히로나카상공은 1942년, 경영난으로 인해 공장을 미쓰비시에 매각했고, 그 후부터 미쓰비시 사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공장을 인수해 미쓰비시제강(주) 인천제작소로 운영했다.
- 공장 건설과 비슷한 시기에 사택도 건설됐다. 처음에는 히로나카 사택(弘中社宅)이라고 불렀으나, 미쓰비시중공업에 회사가 매각된 이후부터 ‘미쓰비시 사택(三菱社宅)’이라고 불렀다. 일본어인 미쓰비시의 한자 표기가 ‘삼릉(三菱)’이어서 현재까지도 이곳을 통속지명인 ‘삼릉’이라고 부르며, ‘삼릉 사택’, 혹은 ‘줄사택’ 등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사택의 규모는 16,507평의 부지에 57동 284호가 계획됐다.
- 미쓰비시 사택은 크게 구내사택(構內社宅)과 공원사택(工員社宅)으로 구분된다. 흔히 미쓰비시 사택이라고 부르는 곳이 공원사택에 해당한다. 구내사택은 공장 내에 건설한 사택인데, 지금은 흔적을 찾기 어렵다. 구내사택의 위치는 대략 신촌과 창취마을의 경계인 쌍굴다리 근처, 부평공원의 남쪽 출입구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공원사택 부지에는 합숙소나 의무실과 같은 부속 시설들이 위치해 있었다. 광복 후에는 구내사택이나 공원사택이란 이름 대신, 구사택과 신사택이란 명칭이 일반적이었는데, 공장과 가까운 곳에 지은 것을 구사택이라고 부르고, 남쪽으로 좀 더 떨어져 있는 곳을 신사택이라고 하였다.
- [관련 사료 : 이규원 ‘해방공장’]

2) 「홍중상공(弘中商工) 공장 증설」, 『매일신보』, 1938. 6. 1.

우렁우렁우렁 흉물스러운 소리를 지르면서 천정기중기(天井起重機)는 주강(鑄鋼)공장 복판으로 미끄러져 간다. 이천도의 고열로 끓고 있던 전기로(電氣爐)가 시방 아가리를 벌리고 그 쇳물을 내어뿜으려는 것이다.

“비켜”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나포리 사람들 모양으로 제가끔 팔과 머리로 신호를 한다. 전기로에서 풍기는 푸른 광채와 정오 가까운 햇살이 교차되는 공간 속에 사련기(砂鍊機), 사락기(沙落機), 연마기(研磨機), 송풍기(送風機) 등을 맞붙잡아맨 피대(皮帶)와 고무줄이 각가지 모양으로 선과 곡선을 그리면서 흔들리고 있다. 탁, 탁, 탁, 탁, 뜨르르, 뜨르르, 뻘이, 뻘이, 혁, 혁, 혁, 혁,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대로 들리지 않는 소리가 없는 속에 먼지도 검댕이도 아닌 잿빛 분말을 뽀얗게 뒤집어쓴 주물공(鑄物工)들이 여기저기 서성거린다. (이규원, 「해방공장」, 1948)

○ [관련 사료 : 하인즈 인수 팬클의 “고스터 브라더”]

회색으로 변한 겨울의 잔설이 부평 역에서 삼릉 언덕까지 오르는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아무렇게나 쌓여 있다. 문패가 떨어져 나간 자리가 하얗게 바랜 집에는 아들을 낳았다고 금줄에 빨간 고추를 매달아 놓았다. 오줌자국으로 얼룩진 담벼락에는 반쯤 찢긴 지난 가을의 영화포스터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 그러나 언덕으로 올라가면 전혀 다른 깨끗한 담장이 언덕의 맨 꼭대기에서부터 시작되어 부드러운 경사를 이루며 내려와 있다. 길은, 논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막는 돌제방을 향하다가 다른 집들이 끝나는 곳에서 갑자기 왼쪽으로 꺾여져 있다. 바로 그곳에 우리가 이사하게 될 일본군 대령 집의 대문이 연결되어 있었다. (하인즈 인수 팬클, 문상화 옮김, 『고스터 브라더』, 문학과역사, 2005)



<철거된 미쓰비시 사택 일부>



<광복 직후 미쓰비시 사택 일대>

3. 다다구미 현장사무소와 굴포천 주변의 변화

- 부평지역이 공업지대로 재편되면서 굴포천 주변을 중심으로 학교, 극장, 시장 등이 건설되며 부평의 지형을 변화시켰다. 현재의 부평동초등학교와 부평서초등학교의 전신인 소화동공립심상소학교와 소화서공립심상소학교도 이 시기에 문을 열었다. 부평지역에 유입되는 노동자들의 자녀들을 위해 만든 학교였다.
- 1943년에는 부평 최초의 상설극장인 부평영화극장이 착공됐다. 부평의 대표적 일본인 유지였던 아베(安部泰輔)가 건설한 극장이었다. 부평영화극장은 일본의 선전영화를 상영하고, 각종 집회를 여는 장소로도 활용되면서 광복 때까지 운영되었고, 광복 직후에는 금성극장과 대한극장이 문을 열 때까지 부평지역의 유일한 극장으로 남아 있었다.³⁾
- 인천육군조병창 앞에는 ‘다다구미’라고 부르던 일본 건설 업체의 현장사무소가 있었다. 다다구미는 ‘다전조多田組’의 일본어 독음이다. 부평에 있던 현장사무소는 일본인 다다多田嘉作가 1916년 평양에 설립한 건설 회사에 속해 있었다. 다다구미는 현재 일본 도쿄도東京都에 본사를 둔 다다건설多田建設이 후신이다.
- 다다구미는 인천육군조병창 건설 공사 때 하청을 맡은 업체 중 하나다. 이외에도 시미즈구미清水組, 다마보구미玉操組, 간토구미關東組, 하자마구미狹間組 등이 부평에서 건설 공사를 맡기도 했다. 그 중 가토구미가 있던 자리는 광복 후 기지촌으로 변화한다.

4. 부평연습장

- 일본군은 인천육군조병창이 건설되기 이전에 이미 부평역 앞 일대를 부평연습장으로 운영하였다. 부평연습장은 주로 용산에 주둔하였던 일본군이 이용하던 군사훈련장이었다.
- 이에 앞서 조선총독부는 1916년부터 전국 각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군용으로 제공하였으며, 부평지역에서는 60만 평 토지를 확보해 군에 양도하였다. 이때부터 일본군은 부평역 앞의 ‘광야’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해 왔다. 부평연습장이 공식적

3) 김현석, 「부평을 스쳐간 극장의 시대」, 『작가들』 74, 인천작가회의, 2020.

으로 조성되기 이전, 부평지역은 이미 군사훈련장으로 활용되어 왔던 것이다.

- 부평연습장은 1923년, 조선군 경리부장이 육군대신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 앞으로 ‘부평 부근 소연습장 부지 매수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 1923년의 공문에는 용산에서 하루 행군 거리에 있는 부평 부근의 토지 약 45만 평을 매수해 군용지에 편입하여 그 중 일부를 용산 주둔 부대의 소연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의견이 수록되어 있다.
- 부평연습장이 조성된 이후 인천육군조병창 건설이 시작되는 1939년 후반기까지 이곳에서는 각종 군사 훈련이 진행되었다. 실탄 사격 훈련은 물론, 포 사격, 탱크 등을 동원한 기동 훈련 등은 물론이고, 수천 명의 군인들이 참여하는 연합훈련도 실시되었다.
- 부평 연습장은 인천육군조병창의 모태가 되었다. 인천육군조병창이 부평역 인근에 건설된 이유 역시 부평연습장의 존재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미 군용지로 확보된 토지이기 때문에 민유지를 매입하는 데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그동안 군사 훈련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관련 시설들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관련 사료] 용산 보병 제78연대 전부는 수원에 숙영하고 11일부터 12일까지 경부선[경인선의 오기로 보임: 필자 주] 부평 부근에서 전투 사격 연습을 행하는데 이케우찌(池內) 대좌 이하 연대 간부도 동지(同地)에 출장하였더라(매일신보, 1916년 9월 13일자).
- [관련 사료] 보병 제78연대에서는 15일부터 2일간 경인선 부평 부근에서 사격 연습을 거행중인데 제19사단 참모장 오카모토(岡本) 대좌는 16일에 차(此)를 검열하기 위하여 부평에 출장하였더라(매일신보, 1916년 9월 17일자).
- [관련 사료] 소위 육군기동연습을 27일부터 내월(來月) 5일까지 부평광야를 중심으로 하여 열리는 동시 내월 3일에는 약 5천 명의 군인이 인천에서 일박하게 됨으로 일본사람의 집으로는 도저히 다 채우지 못한다. 하여 조선사람의 완만한 집은 모두 몇 명씩 명령덕으로 채우게 되어 일부 민간에 불평이 적지 않으며 또 평화로운 인천으로 하여금 전쟁터를 이루게 할 터임으로 더욱 비난의 소리가 높는데 그와 동시에 상공에 비행기도 뜬다더라(동아일보, 1923년 10월 30일자).
- [관련 사료] 군대 연습시의 행로라고 부천군 신천리 은고리 안현리 등 순차로 수원까지 통하는 3등 도로를 부근 거주 농민으로 하여금 수선을 부담케 하였다. 그

렇지 않아도 매년 차(此) 구역 재주 농민들은 미숙한 농작물이 무참하게도 날뛰는 말뚝 아래 결단남을 원통히 여기는 터이며 ‘마른하늘에 벼락’이란 격으로 순박하던 농촌은 문득 인심이 불안할 뿐아니라 심하여서는 산모의 낙태하는 일까지 있었다 한다. 일년의 생계와 일가의 산아가 뜻하지 않은 불행을 피함도 적년의 숙원이어든 하물며 금년에는 백성을 끌어내어 행군도로 수선을 관력으로 부담케 하며 판도를 넓히어 인천으로 하여금 한 때 반만군대(半萬軍隊)의 숙고 시정 등에 자못 살풍(殺風)이 떠돌아 인민의 불평을 기(起)케 함은 당국의 일고려처(一考慮處)가 아닐는지(동아일보, 1923년 10월 31일자).

- [관련 사료] 내(來) 11월 3일에는 제20사단 약 5천 명의 군대가 안온하던 인천시가에 해매게 되며 비행기가 상공에 비상하리라 한다. 그리고 부평광야에는 예년에 의한 육군기동연습을 거행한다는데 금년은 전보다 일층 규모를 넓히어 그 구역으로는 인천까지 포함되었다 하며, 군대 연습시의 행로라고 부천군 신천리 은고리 안현리 등 순차로 수원까지 통하는 3등 도로를 부근 거주 농민으로 하여금 수선을 부담케 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매년 차(此) 구역 재주 농민들은 미숙한 농작물이 무참하게도 날뛰는 말뚝 아래 결단남을 원통히 여기는 터이며 ‘마른하늘에 벼락’이란 격으로 순박하던 농촌은 문득 인심이 불안할 뿐아니라 심하여서는 산모의 낙태하는 일까지 있었다 한다. 일년의 생계와 일가의 산아가 뜻하지 않은 불행을 피함도 적년의 숙원이어든 하물며 금년에는 백성을 끌어내어 행군도로 수선을 관력으로 부담케 하며 판도를 넓히어 인천으로 하여금 한 때 반만군대(半萬軍隊)의 숙고 시정 등에 자못 살풍(殺風)이 떠돌아 인민의 불평을 기(起)케 함은 당국의 일고려처(一考慮處)가 아닐는지(동아일보, 1923년 10월 31일자).

5. 인천육군조병창과 평양병기보급창 부평분창

- 1930년대 말부터 내륙지역인 부평지역 일대에 공장 건설이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곳이 1940년 12월 1일, 부평역 앞에 설치된 인천육군조병창이다. 일본이 ‘조선 군수공업의 중핵(中核)’이라고 극찬했던 시설이었다.⁴⁾ 일본 본토에 오사카육군조병창(大阪陸軍造兵廠), 나고야육군조병창(名古屋陸軍造兵廠) 등 여러 개의 조병창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1930년대까지 한반도에는 조병창이 없었

4) 「那事變軍需動員實施概況並に意見付表(昭和15年11月-昭和15年12月)」, 陸軍兵器本部, 1940. 「朝鮮軍管區部隊」(『部隊行動表』, 鮮北課)에는 인천육군조병창의 설치 일자가 1940년 12월 2일로 표기되어 있다.

다. 조선에 조병창을 건설하는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건 1939년부터였다. 초기 관리 책임은 일본에 있는 고쿠라 공창(小倉工廠)의 장(長)이 맡았다. 처음에는 ‘조선공창朝鮮工廠’, 혹은 ‘조선조병창(朝鮮造兵廠)’이라고 불렀다. ‘경성 부근’에 병기공장을 만들어서 총기류 생산을 전담시킨다는 구상이었다.

- 인천육군조병창 건설과 때를 맞춰 부평지역에도 여러 개의 공장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했다. 히로나카상공(弘中商工) 부평공장을 비롯해 도쿄자동차공업, 디젤자동차공업, 부평요업, 일본고주파공업, 국산자동차공업 등이 건설한 공장들이 부평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러한 현상은 1934년에 공포된 ‘조선시가지계획령’과 관계된 것이기도 하지만, 1938년 무렵에 경기도가 추진한 ‘경인메트로폴리스’ 실현 계획, 그리고 1941년의 인천육군조병창 건설에 영향을 받은 결과이기도 했다.
- 인천육군조병창의건설목적은 ‘만선(滿鮮), 북지(北支) 수송의 신속, 안전과 조선 병기공업 능력의 비약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 경성 부근에 총기류 생산을 주 임무’로 하는 군수공장을 세운다는 거였다. 건설 공사는 일본에 있는 고쿠라 공창(小倉工廠)의 장(長)이 맡아서 진행하였다.
- 인천육군조병창(仁川陸軍造兵廠)은 1939년부터 건설을 시작해 1941년 5월 5일에 개창식을 가졌다. 인천육군조병창은 일본군 20사단이 관리하던 부평연습장 부지를 이관받고, 지금의 산곡동, 부평동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 조병창 건설 부지로 확정하였다.
-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토지 매입 허가는 1939년 9월 1일에 승인됐다.⁵⁾ 조병창 본부와 제1제조소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 매입이었다. 인천육군조병창의 조직은 조병창 본부, 제1제조소, 평양제조소, 경성감독반, 부산감독반, 성진감독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 부평지역에 설치된 것이 조병창 본부와 제1제조소였다.⁶⁾
- 인천육군조병창의 초기 계획 부지는 약 117만 평이었다. 386만 7,000㎡ 정도에 해당한다. 현재 부평지역에 있는 미군기지의 반환공여구역이 약 44만㎡인 것을 감안하면 꽤 넓은 면적이었다. 그 중 새로 매수할 예정인 토지가 약 44만 평이었고, 일본군 제20사단에서 이관 받은 것이 72만 8천여 평이었다. 여기서 주목

5) 「土地買收ノ件申請」, 陸軍造兵廠長官 小須田勝造, 1939. 9. 1.

6) 「陸軍兵器行政本部直轄出張所並造兵部常置員現況表」(표제: 『中央直轄補給諸廠調査表』, 第一復員局, 1944. 4. 22)

해야 할 것이 제20사단이 넘겨 준 토지다. 조병창 건설 이전에도 이 땅이 일본 육군의 관할 아래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다. 117만 평의 토지는 당시 행정구역으로 경기도 부천군 부내면 산곡리와 대정리에 있었다. 지금의 부평구 산곡동과 부평동에 해당한다. 일본육군조병창은 이 부지 매입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천육군조병창 조성 부지를 ‘부평연습장 인접지’라고 표현하였다. 매수 예정 토지의 위치 역시 ‘부평연습장 동방 약 24만 평, 북방 약 15만 평, 남방 약 4만 평’이라고 설명하였다.

- 1942년 4월 15일에는 평양병기보급창의 부평분창이 역시 부평 가토리 마치(香取町)에 설치됐다. 가토리 마치는 지금의 일신동이다. 인천육군조병창 제1제조소에서는 소총과 총검 등을 주로 만들었고, 평양병기보급창 부평분창에서는 병기를 포함해 전차, 자동차 등을 생산했다.
- 인천육군조병창 공사에는 각지에서 동원된 ‘근로보국단’들과 학생 등이 작업에 투입됐다. 1940년 6월에는 김포군의 근로보국단이 이듬해 6월까지 1회에 100여 명씩 부평의 토목공사장에 투입되었고,⁷⁾ 1940년 7월에는 강화군의 각 면에서 소집된 150여 명의 주민들이 ‘부평 작업장’에 파견되었다.⁸⁾
- 1944년 3월 18일 학도동원비상조치요강이 발표된 후, 1944년 5월 8일에는 360여 명의 학생들이 인천육군조병창에서 입창식을 하고 곧바로 공장에 배치되었다. 남학생들은 조병창 내에 있던 아오바료(靑葉寮)란 이름의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기도 하였고, 학교를 가는 대신 공장에 출퇴근을 하며 일을 하였다. 여학생들은 공장에서 일을 받아 학교에 마련된 별도의 작업실 등에서 작업을 하였다.⁹⁾ 제1차 동원령이 발동될 때 인천육군조병창에 입창을 한 학교는 인천공립공업학교, 인천공립중학교, 인천공립상업학교, 인천공립고등여학교, 인천소화고등여학교 등이다.¹⁰⁾

6. 부평미군기지

- 광복 후 인천항을 통해 미군이 들어온 후 인천은 제24군수지원사령부가 점령했

7) 「김포 근로보국단들 부평공사장에 출역」, 『매일신보』, 1940. 5. 25.

8) 「강화 근로단 부평에 파견」, 『매일신보』, 1940. 7. 19.

9) 「반도 학도 동원 제1회 발동」, 『매일신보』, 1944. 5. 10.

10) 「교복을 작업복으로」, 『매일신보』, 1944. 5.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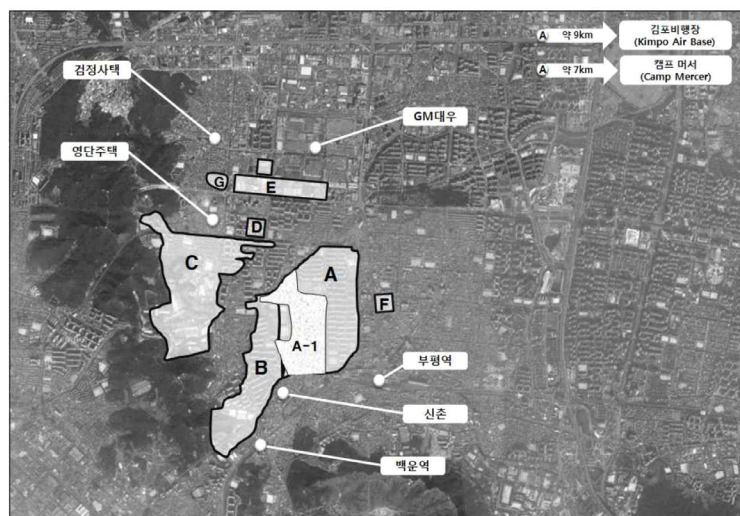
다. 군정부대가 들어온 이후에는 제2임시군정팀과 제39군정중대(39th Military Government Company)가 인천을 담당했다. 미군은 인천육군조병창을 접수해 그대로 군수기지로 활용했다. 그리고 1945년 9월 16일, 이곳을 애스컴 시티(ASCOM City: Army Service Command City)라고 이름 붙였다.

- 애스컴 기지는 1973년 해산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대표적 군수기지였다. 기지 내에 있던 부대들이 타지역으로 이전한 후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캠프마켓이다. 캠프마켓은 미8군에 속한 기지로, 제빵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DRMO(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 주한미군 군수품 재활용사무소)가 있기도 했는데, 이 시설은 2011년 김천시 아포읍으로 옮겼다.
- 한국전쟁 당시 애스컴 시티에 있던 미군과 가족들은 1950년 6월 26일 인천항을 통해 한국을 빠져 나갔다. 미군이 다시 애스컴 시티에 주둔하기 시작한 건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성공 이후이다.
- 미 해병 제5연대 2대대 D중대, 1950년 9월 17일 원통이 고개 부근에서 탱크 6대를 앞세운 250여 명의 북한군을 만나 교전을 벌였다(부평전투). 2대대 E중대, 애스컴 시티에서 시가전을 벌여 남아 있는 북한군을 소탕했다. 3대대 G중대, 애스컴 시티 주변 기관총 기지를 파괴했다.
- 애스컴 시티는 쿼터마스터 시티(Quartermaster City) 등으로 부르는 7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가 프 그란트 등 미국 대통령들의 이름을 따 재명명되었다.

7. 부평 제10반공포로수용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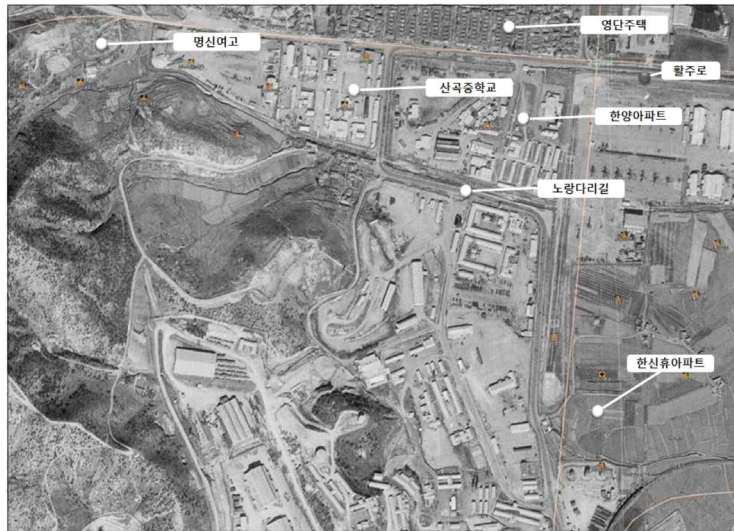
- 부평미군기지는 여러 개의 캠프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 중 캠프 하이에스에 한국전쟁 중 반공포로수용소가 설치됐다. 지금의 부영공원 자리에 수용소가 있었다. 부평제10수용소다. 반공포로수용소는 부산, 논산 등 전국에 걸쳐 위치해 있었다. 1,500여 명 정도의 반공포로들은 미 제44공병대에서 작업을 하며 포로 생활을 하였다.
-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자정을 기해 전국에 있는 반공포로들을 기습적으로 석방시켰으나 부평반공포로수용소에서는 대통령의 석방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안 포로들이 집단적으로 수용소를 ‘탈출’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 당시 언론은 포로 석방 명령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했으나 그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수용소 자리는 후에 미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미 제176 보충대와 일반병을 대상으로 한 미 제177 보충대가 들어섰다.
- 북한군 반공포로뿐만 아니라, 1954년 1월에는 중국 반공포로들이 애스컴 시티 내에 잠시 수용되기도 했다. 약 14,400명에 달하는 중국 반공포로들은 문산에서 애스컴 시티로 이송되어 14개 텐트에 분산되어 수용되었다가 1월 21일 인천항을 거쳐 대만으로 이동했다.



<애스컴 시티 배치도>

- A : 캠프 마켓 (Camp Market, 1973년 이전 구역)
- A-1 : 캠프 마켓 (Camp Market, 현재 구역)
- B : 캠프 하이에스 (Camp hayes)
- C : 캠프 그란트 (Camp Grant)
- D : 캠프 타일러 (Camp Tyler)
- E : 캠프 아담스 (Camp Adams)
- F : 캠프 해리슨 (Camp Harrison)
- G : 애스컴 시티 군 교도소
- 기타 : 캠프 테일러 (Camp Taylor)



<1960년대 캠프 그란트 주변 경관>

8. 부평 기지촌

- 1970년대까지 부평에는 대략 5개 구역에 기지촌이 형성되어 있었다. 다다구미를 포함해 백마장, 삼릉, 신촌, 관동주다. 이곳은 대개 아시아태평양전쟁기에 건설된 공장 주변 지역에 해당하며 광복 후 기지촌으로 정착해 갔다.
- 백마장은 인천육군조병창 노동자들이 거주한 ‘산곡동 근로자 주택지’이고, 삼릉은 미쓰비시 사택지다. 신촌은 1930년을 전후한 시기 부평에 공장 건설이 계속 이어지자 일거리를 찾기 위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모여 만든 새마을이다. 신촌이 부평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기지촌이었다.
- 신촌에는 흔히 ‘개천’이라고 부르던 하천이 흐르고 있었고, 이 하천을 경계로 미쓰비시 공장과 구분되었다. 부평공원에 한국군 부대인 ‘88정비대’가 들어선 이후에도 부대 담장 밑으로 하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공원이 조성되는 과정 등을 거치면서 모두 매립되고, 지금은 ‘포장마차 거리’로 바뀌었다.
- ‘다다구미’ 역시 기지촌 중 한 곳이었다. 이곳은 돌산이 낮게 가로막고 있던 곳이다. 그곳을 뚫어 넓은 도로가 경원대로다.

부평 노동의 길

김현석(생태역사공간연구소 공동대표)

1. 1960년대 한센인 농장의 건설

- 부평에는 공업지대이면서 ‘농장’이라고 부르는 곳이 세 곳 남아 있다. 청천농장과 부평농장, 심정농장이다. 심정농장은 지금은 거의 사라진 상태다. 모두 한센병 환자들의 정착촌으로 조성된 곳이다. 부평농장은 만월산 골짜기에 있다. 엄밀히 말해 부평농장은 남동구에 속한다. 하지만, 과거에 이곳으로 출입하는 입구가 부평삼거리, 즉 지금의 부평사거리가 유일한 통로여서 그랬는지, 행정구역과는 별개로 부평과 가깝게 인식되고 있다.
- 청천농장과 부평농장은 쉽게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공장지대다.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고, 양계사업을 했던 공간을 준공업지역으로 만들어 공장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 농장 시절 사용하던 건물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양계장이 공장으로 탈바꿈한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풍경은 심정농장도 마찬가지다. 심정농장 역시 부평농장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한센인들이 영양소를 나와 정착한 곳이다. 동암역 주변 언덕에 있었으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서 사라지고, 지금은 동암역으로 연결되는 철로 변에 일부 건물들만 남아 있다.
- 부평농장은 국립나병원이 있던 곳이다. 이곳을 가려면 원통이고개를 지나 부평삼거리에서 만월산으로 올라가는 골짜기로 들어서야 한다. 부평삼거리는 인천가족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기도 하고, 은을 캐던 광산의 초입이기도 하다. 부평에서는 외곽에 해당하는 곳인데, 이곳에서도 산길을 따라 좀 더 올라가야 부평농장이 나왔다. 지금은 만월산터널이 뚫리고 부평농장 앞을 지나 부평사거리와 간석사거리를 연결하는 만월로도 정비되어서 열린 공간이 되었지만, 본래는 막힌 공간이어서 사람들의 출입도 거의 없었다. 청천농장은 경인고속도로 쪽으로 나가면 부평공업단지와 바로 맞닿는다. 공단의 끝에 연결된 모습이다.
- 부평 외곽에 한센인들의 정착촌이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던 무렵인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됐다. 동시에 수출산업공단 조성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1964년, 서울 구로구 구로동이 수출산업공단 건설부지로 결정됐다.

- 공단 유치에 성공하지 못한 부평지역의 유지들은 다시 한번 ‘수출산업공단 부평 유치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고, 1965년 수출산업공단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 이후 1966년 기공식을 거쳐 1966년 7월 5일 코리아크리스탈공업사가 첫 입주 기업체가 되었다. 부평수출산업공단은 합병을 거쳐 1971년부터 한국수출산업공단 4단지로 부르기 시작했다.
- 부평공업단지는 효성동, 갈산동 일대에 조성되었다. 공단으로 지정될 당시는 논밭으로 이용되고 있던 곳이었다. 갈산동에는 부평정수장이 있었고, 1967년에 착공된 경인고속도로는 이듬해 개통됐다.
- 부평공업단지 조성과 함께 주변 지역들도 변화를 겪었다. 무엇보다 공단에 노동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효성동이나 청천동, 갈산동, 산곡동 일대는 노동자들을 위한 주거지가 급속히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부평역 인근에서 시작된 개발의 움직임은 산곡동에서 멈춰 있었다. 그 꼬트머리에 ‘검정사택’이라고 부르는 일제강점기 집단 주거지가 있었고, 이곳은 청천동과 맞닿아 있던 곳이었다.
- 그동안 변화의 손길이 크게 닿지 않았던 청천동 일대는 부평수출산업공단과 함께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공단 노동자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청천시장은 사람들로 붐비고 주변 상권도 덩달아 호황을 누렸다. 이러한 현상은 효성동이나 갈산동 일대도 마찬가지다. 청천동을 크게 바라보면, 장수산을 경계로 해서 서쪽은 양계마을, 동쪽은 사택 마을로 나뉘어 있었다. 주민들이 편의상 구분한 이름이다. 양계마을은 청천농장을 말한다.

2. 1970년대 부평공단의 성장과 삼원성유

- 1970년대는 그 이전까지 부평 경제의 핵심축을 담당했던 미군기지가 재편성되고, 부평공단이 새로운 경제축으로 자리를 잡아갔던 시대였다. 이 시기에 미군기지에서 일하던 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을 포함해 부평에서 경제생활을 하던 다수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갔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 채워갔던 이들이 부평공단의 노동자들이었다.
- 공단 노동자들은 공단 주변 주택가의 새로운 거주민층을 형성하였고, 부평시장의 최대 고객이었던기도 했다. 이들에 의해서 기지촌 경제는 산업화 시대의 새로

운 경제 구조로 빠르게 탈바꿈해 가기 시작했다.

- 1970년대 성장의 시대를 거치면서 ‘신 노동자층’이 부평공단으로 몰려들었다. 기지촌 시절과 마찬가지로 부평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공업 도시라고 해서 기계 소리만 가득한 회색 도시의 이미지로 남은 건 아니었다. 반복된 일상이 지배하는 도시 속에서 노동자들은 나름대로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갔다.
- 노동자들은 부평시장이나 부평지하상가, 교회나 성당, 계양산과 같은 주변의 산들을 찾으면서 부평에 새로운 문화를 수혈해 갔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곳이 극장이다.
- 부평지역에는 1960년대부터 기지촌이었던 ‘백마장’에 백마극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기지촌을 중심으로 확산하던 극장 문화는 점차 부평시장과 인접한 부평극장, 금성극장, 대한극장으로 확산했고, 이러한 문화 이동 현상은 1980년대까지 계속 이어진다. 부평공단은 이 시기 부평지역의 경제, 문화, 사회의 분위기를 이끌어 가던 핵심 공간이었다.
- 1970년대 고도 성장기 부평공단에서 주목할 만한 공장이 삼원섬유다. 삼원섬유는 외국인투자기업이었다. 정부는 1960년대 말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국회에 상정, 통과시키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노동쟁의가 일어나면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줬다.
- 정부는 이와 같은 법률을 제정시켜 외국인 기업들에 특혜를 주는 한편,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어해 기업 활동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애썼다. 그런 만큼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은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

3. 한독금속과 ‘파업전야’

- 1987년이 되면 부평공단 내의 수많은 공장에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파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노동조합도 하루가 멀다고 결성되고 있었다. 이때 노동조합이 결성된 공장 중 주목할 만한 곳이 태연물산과 한독금속이다.
- 태연물산은 흔히 ‘여성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공장이다. 일하는 사람 중에 여성의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공장은 갈산역사거리 앞 우림라이온스밸리 자리에 있었다. 부평대로에 바로 면해 있었다. 옆에는 진도 공장이 있었고, 공단파출소를 지나 조금 더 가면 경인고속국도로 연결됐다. 공장에는 200여 명 정도의 노동자

들이 근무했다. 대부분 여성이었다. 산업체 학교를 함께 운영하고 있던 공장이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도 많았다. 공장은 두 동의 건물에서 각각 생산라인이 돌아가는 형태로 가동되었다고 한다. 태연물산은 본래 봉제 공장이었다. 인형을 주로 만들다가 1987년 무렵에는 전자 완구로 업종을 바꾸어 가고 있었다. 탱크나 자동차 같은 장난감들이 주요 생산품이었다. 봉제 공장에서 전자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로 전환되면서 공장도 재편되는 과정을 거치는 중이었다. 컨베이어벨트도 새로 갖추고, 작업공정도 수정해 가고 있을 때였다.

- 부평공단은 대개 청천동과 효성동에 걸쳐 있지만, 그 동편에 있는 갈산동 역시 공단의 한 구역에 포함된 공간이었다. 이곳이 공단의 영역으로 포함될 수 있는 건, 무엇보다 공단 노동자들의 거주지가 이곳에 분포되어 있었고, 크고 작은 공장들이 이 일대에도 곳곳에 있어 있었기 때문이다.
- 갈산동에 있던 공장 중 주목할 만한 곳이 한독금속 공장이다. 한독금속은 스페너, 드라이버, 파이프렌치 등의 공구를 만드는 회사였다. 1980년대 후반, 종업원 수는 200여 명가량이었다. 한독금속은 1988년 결성된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인노협) 초대 의장을 배출한 공장이었다. 한독금속에 노동조합이 생긴 건 1987년 7월 11일인데, 그때 위원장을 맡은 이가 황재철이고, 이듬해 인노협이 결성될 때 의장으로 선출된다.
- 한독금속 공장은 갈산동 청천천변에 있던 작업장이다. 갈산사거리 방향으로 서부 2교, 즉 옛 청천교를 건너면 바로 왼편이 공장터다. 지금은 공장 건물은 사라졌다. 대신 같은 자리에 아파트와 상가가 넓게 들어서 있다. 제법 큰 공장이었다.
- 한독금속 공장이 운영될 당시 바로 옆에는 정미소가 있었고, 맞은편에는 한국콘티넨탈카본주식회사가 운영중이었다. 그리고 동쪽으로 좀 떨어진, 삼산동과의 경계지점에 코리아스파이서 주식회사가 크게 자리를 잡았다. 그 옆으로는 경인고속국도와 맞붙은 곳으로 고려시스템과 콜트악기 제2공장 등이 있었다.
- 이 시기 한독금속의 노동조건은 좋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유인물 등을 통해 자신들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묘사하였다.
- 사례 : ‘한독금속은 지난해 초만 하여도 체불은 예삿일이고 상여금조차 없었던 회사였습니다. 이점은 한독금속 가족들이 자취방을 얻을 시에 이런 회사의 악조건 때문에 지역주민들께서 한독금속 사람들에게겐 방을 세 놓으려 않았습니다.’(1988) ‘노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월급이 제날짜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상여금

도 관리인 기분대로 떡값 정도가 가끔 나올 뿐이었습니다. 현장의 기계도 무척 낡은 것이라, 일하면서 다치는 경우도 크거나 작게 자주 발생하는 편이었습니다.’(1987)

-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충돌 속에서 한독금속은 1989년에 결국 문을 닫은 채 공장 가동을 멈췄고, 1989년 12월부터 영화제작소 장산곶매가 비어있는 공장을 찾아가 16미리 독립영화 ‘파업전야’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 영화는 제작을 끝낸 후 1990년 3월부터 상영을 시작했다.
- 촬영팀은 닫힌 공장문을 피해 공장 노동자들과 담장을 넘어 들어가 영화 촬영을 진행했다. 연출을 맡았던 장동홍은 당시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기억하였다.
- 사례 : 드디어 89년 12월, 회사측의 일방적인 휴업에 대하여 노조간부를 중심으로 정상조업재개 투쟁중인 인천 ○○금속 사업장에서 합숙촬영이 시작되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농성투쟁중임에도 불구하고 ○○금속 노동형제들은 수개월간 멈추었던 기계를 밤새워 보수해가며 이 촬영에 뜨겁게 함께 하였다. 처음, 우리들은 노조원들의 도움에 송구스러웠고, 노조에서도 ‘영화인’들에 대하여 생경하게 느꼈었다. 그러나 하루하루 합숙촬영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도움과 협조의 관계는 이땅의 노동자가 잘사는 사회, 노동해방의 긴 노정 속에서의 동지적 관계로 바뀌었다.”(‘파업전야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파업전야』, 장산곶매, 1990)
- 영호 파업전야의 주제가가 안치환이 작곡한 ‘철의 노동자’이다. 이 노래는 현재까지도 노동 현장에서 끊이지 않고 불리는 곡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영화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파업전야와 상영 투쟁은 노동 문제가 199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었음을 증명한다.

4. ‘어린 노동자’들과 야학

- 1970년대 무렵부터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현장 야학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대학생들의 시각에서 볼 때, 1970년대 이후 야학은 대개 검정고시 야학과 노동 야학으로 구분된다. 검정고시 야학은 말 그대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둔 야학이고, 노동 야학은 학업 이외에 노동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성장시키는 걸 목적으로 한 야학이다. 야학에서 교사는 강학이라고 부르고, 학생은 학강이라고 부른다.

- 당시 부평공단 인근에서 야학을 운영했던 공간 중 한 곳이 백마교회이다. 백마교회는 노동자들이 많이 모이던 교회였다. 백마교회 야학에서 활동하던 교사들은 10여 명가량이었다. 야학 활동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 특별한 강좌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하면 교사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20여 명에 달한다. 대부분 대학생이었다. 규모 면에서는 제법 큰 야학이었다. 이들은 주로 서울에서 온 경우가 많았다. 노동운동의 한 경로로 야학을 선택하고 경험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 야학과 성격은 다르지만, 공부하고 싶은 어린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운영하는 산업체부설학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공장 생활을 시작한 스무 살 전후의 어린 노동자들이 또래들처럼 정규교육과정을 충실히 밟아가는 건 쉽지 않았다. 생계가 어려워 산업 현장에 몸을 던진 노동자들이 학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산업체 부설 학교에 들어가는 길이었다.
- 산업체 학교에 다닐 목적으로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대개 이러한 경우는 다니던 학교에서 정보를 얻어 공장에 들어오곤 하였는데, 회사에서 사람을 파견해 학생들을 모집해 오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었다. 중학교 3학년 졸업반이 되면, 여러 업체가 학교에 찾아와 학생들을 모집해 갔다고 한다. 회사가 버스를 한두 대 대절해 지방에 소재한 중학교를 찾아가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회사를 소개하고, 원하는 학생들을 모집해 데려오는 방식이다.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이 대개 이러한 모집에 응했다고 한다.

강화 민주로드

박흥열 강화시민회의

강화는 한국전쟁 이전까지 능동적으로 역사의 거센 물결에 맞서왔다.

고려 시대 대몽항쟁의 중심이었으며, 조선 시대에는 한양을 지키는 관문으로 임진왜란, 병자호란은 물론 1800년대 후반 병인, 신미양요, 강화도 조약에 이르기까지 외세의 침탈에 굳건히 맞섰다.

뿐만 아니라 한강하구를 통해 물산 교류가 활발하였고, 지행합일(知行合一), 이업동도(異業同道)를 내세운 양명학의 본산이었으며, 그 후예들은 누구보다 힘차게 독립투쟁에 나섰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강화 3.18만세 운동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한국전쟁과 분단은 강화를 매우 보수적인 곳으로 만들었다. 남북의 접경지역으로 변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운동이 매우 취약해지고 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 60년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여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일들이 꽤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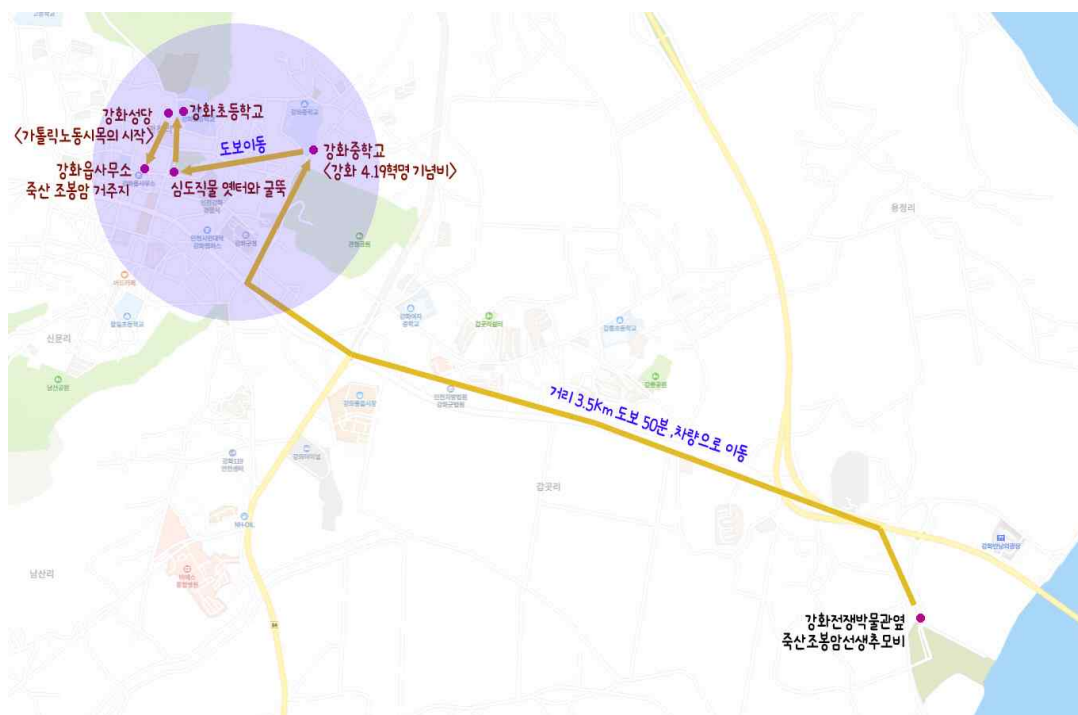
코스

죽산조봉암선생추모비(갑곶리 전쟁박물관)

-> 강화 4.19혁명 기념비(강화중학교)

-> 심도직물 노동조합 관련 기념물 (용흥공공원, 강화성당)

-> 죽산조봉암선생표지석(강화읍사무소)



① 죽산 조봉암 선생 추모비



죽산 조봉암 선생은 1899년 9월 25일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에서 빈농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잠두교회(현 강화 중앙감리교회) 청년 교인으로 1919년 강화의 3.18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1년간 옥고를 치르고, 일본 주오대학[中央大學]에 다니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인다.

조선으로 돌아와 정연한 논리와 호소력 있는 말솜씨와 연설 능력, 치밀한 조직력으로 일약 사회주의 계열의 중심인물로 떠올랐다.

1925년 조선공산당 창당을 주도하고, 러시아 동방노력자 공산대학에서 공부한 후 1935년 상해에서 체포되기까지 해외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강화에서 인연을 맺었던 김이옥 여사와의 사랑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처럼 극적이기도 하다.

1945년 광복 후 노동계급의 독재, 자본계급의 독재 모두를 반대하는 중도통합노선을 주장하면서 조선공산당과 결별하고, 1948년 제헌 의원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활동하였다.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을 이뤄냄으로써,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침입을 막아내고, 이후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 후 이승만정권에 대항하여 2, 3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여 비록 낙선하였으나 대중적으로 크게 신임을 얻으면서 이승만정권을 위협하는 경쟁자로 떠올랐다.

1956년 11월 책임 있는 혁신 정치, 수탈 없는 계획경제, 민주적 평화통일 실현을 목표로 진보당(進步黨)을 창당하였으나 이승만정권은 간첩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여 1959년 7월 31일 사형을 집행하고 말았다.

그러나 52년이 흐른 2011년 1월 대한민국 대법원은 죽산 조봉암의 간첩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 복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로 아직 서훈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② 강화 4·19혁명 기념비



1960년 4월 19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시위가 알려진 뒤 전국적으로 부정선거 규탄과 이승만 독재정권 물러가라는 시위가 잇따랐다. 4월 20일 비상계엄 선포, 4월 26일(화) 이승만 대통령 하야, 4월 28일(목) 이기붕 부통령 가족 일가 자살 등으로 정국은 숨 가쁘게 전개되었다.

이때 강화의 각급 학교는 27일 일시 개학을 했으나 5월

초까지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영화관람, 체육 활동 등을 하고 일찍 귀가시키는 등 학생들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5월 6일(금) 강화고등학교에서 첫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였고, 5월 7일(토) 오전 9시부터 모든 학생은 운동장에 모이라는 전갈이 있게 된다. 학생들은 1교시 수업이 끝난 10시 15분경에 운동장에 집결하여 학생부 회장의 선언과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가두 시위에 돌입한다.

학생들은 학교를 빠져나와 강화여상, 강화여중, 강화중학생들을 규합하여 1,000여 명으로 불어난 인원으로 시가행진을 진행한다. 시위대는 경찰서, 강화군청을 거쳐 지금의 수협사거리, 남문, 합일학교, 조양방직과 강화여상을 거쳐 강화국민학교로 집결한다.

마침 이날은 장날이었고, 당시 민의원인 염파 윤재근 선생의 시국강연회가 겹쳐 수많은 인파가 뒤섞인 채 시가행진을 단행하였다. 시위대는 교육감의 사퇴, 부정선거에 가담한 공무원 규탄, 기성 정치인의 각성 등을 구호로 제창하였다.

시위대는 강화국민학교에서 3.15 부정선거 규탄, 학원을 정치적 도구로 취급한 이돈해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갔고, 나중에 등장한 이돈해 교육감은 학생들 앞에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난다는 발표를 한다.

이날 학생 시위는 1919년 3.18 강화만세운동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대중집회였다.

③심도직물 옛터와 굴뚝

강화는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직물 생산지였다.

강화는 1900년대 이후 집집마다 수동직조기를 들여놓고 베를 짤 정도로 직물산업이 활발했다. 모내기가 끝난 4월 말~5월 초 강화의 여인 수천 명이 겨우내 집에서 탄 인견을 팔기 위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일본과 만주까지 행상을 나가는 장면은 매년 신문의 토픽감이었을 정도이다.

1930년대 이후 만주침략을 본격화한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군사보급기지로 삼으면서 황해, 평안도 일대에 방직공장을 설립하는데, 강화에서도 수십 개의 중, 대규모 직물공장이



이 속속 설립되었다. 분단 이후 강화는 대구, 수원과 함께 남한 직물산업의 중심지 중 하나로 1980년대 초까지 명성을 떨쳤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심도직물이다.

심도직물은 매일 1천200여 명의 노동자가 기계에 매달려 하루 12시간씩 맞교대를 하면서 인견을 생산했던 곳이다. 심도직물을 위시한 30여 개의 방직공장이 밀집한 강화읍 일대에는 밀려드는 노동자를 수용하기 위한 문화촌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현재 심도직물 자리는 용흥공원으로 변모했으며, 30m가 넘었던 굴뚝 일부만 보존하고 있다. ‘강화 직물산업 역사의 현장 심도직물을

기념하며...’라고 적혀 있는 강화군의 안내판에는 1970년대 심도직물 거리의 전경 사진과 함께 공장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다.

④심도직물 노조탄압과 가톨릭노동청년회(JOC)의 탄생



1967년 강화 심도직물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해 회사에 저항한 사건.

사측은 노조 결성에 주된 역할을 했던 가톨릭노동청년회(JOC) 회원을 비롯해 노동자들을 해고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한국 천주교 주교단 및 로마 교황청의 지지 등 한국 천주교가 사회적 현안에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강화성당 주임신부였던 전미카엘(본명 브랜스필드)신부에 의해 가톨릭노동청년회(JOC)가 결성되어 이들을 중심으로 심도직물, 상호직물, 이화직물 등지에서 노조를 결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측은 이들과의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불법 해고, 천주교 신자의 고용 거부, 폭력사태, 일방적인 폐업 등 다양한 형태로 탄압하였다.

그러나 마산 교구장이자 JOC 총재였던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한국 천주교 주교단의 적극적인 지지와 개입, 로마교황청의 지지 등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김 추기경은 강화성당 미사에서 "억눌리고 고통받는 노동자를 위해 그리스도 사랑을 실행하느라 스스로 십자가를 진 연약한 소녀들과 JOC 회원들에게 존경을 표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교회 역사가 증명합니다"라고 하였다.

그 후 1968년 7월 해고자들이 전원 복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심도직물노조사건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최초의 노동조합 사건으로 기록되며, 한국 천주교가 가톨릭노동청년회(JOC)를 결성하여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천주교 사회참여의 첫걸음이었다. 또한, 신, 구교 간 연합을 바탕으로 산업선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⑤ 죽산 조봉암선생 생가터 표지석



죽산 조봉암은 어린 시절에 대해 “ 우리 집은 구차하기는 해도 평화스러웠다. 어머니는 좀 사나우신 편이지만, 아버지께서는 거의 절대적인 평화주의였다. 그저 착하기만 하셔서 집안사람에게나 동리 사람에게나 도무지 남과 시비를 하시는 일이 없으셨다. 그 덕분으로 나는 자유로운 가정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자랐다. 집안 살림이 가난하기는 해도 마음에 구김살 없이 의젓하게 자랐다”라고 회고하였다.

강화읍사무소 주차장 한쪽에 있는 생가터 표지석은 2001년 설치한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죽산이 어린 시절 살았던 곳이며, 태어난 곳은 아니다. 태어난 곳은 선원면 금월리 가지마을로 추정되고 있다.

표지석을 설치한 (사) 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설치했는데, 그 이유는 분명치 않다. 다만 2011년 무죄 선고 이후 생가터 복원, 추모공원 마련 등 추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천민주로드 길잡이 양성교육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비폭력평화물결 김석봉 공동대표

문제행동에 대응하는 우리의 반응은?

너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하지말라고 했어? 안했어?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자꾸 이런 식으로 할거야?

뭘 잘못했는지는 알아?

또 네가 그랬어?

화가날 때

- ◆ 벌주기- 앞으로 게임 못할 줄 알아
- ◆ 협박하기 - 한번 만 더 그런 소리하면 혼날 줄 알아!!
- ◆ 비교하기 - 누구는 책을 많이 읽는데,,넌 뭐하니?
- ◆ 따지기 - 너 왜 엄마가 하라는대로 안하니?
- ◆ 겁주기 - 이빨이 다 썩어 봐야 알지
- ◆ 비꼬기 - 알았어 네 맘대로살아, 이제 엄마는 상관 안할거야
- ◆ 원망하기 - 내 가 해준 것에 돌아온 보답이 겨우 이거야



방어와 부정
처벌에 집중
잘못에 대한 인식 실패
수치심의 부정적 수용
신뢰상실, 관계악화
감정적 대응 강화
대립과 반목, 분노
정당화 및 합리화
무력감, 좌절감, 절망감



감정이 이성을 납치한 것

- 대니얼 골먼

“할수 있는 건 다 해 봤어”

“이젠 끝이다”

“더 이상은,,,, 한계다”

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다

갈등 분란...불편한

개인이나 집단이 서로 처지나 이해관계가 달라 충돌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평화의 언어, 두 가지 중요한 질문

1. 무엇 때문에 우리는 본성인 연민으로부터 멀어져 서로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되었을까?
2. 이와 달리 어떤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연민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달려 있다.
- 빅터 프랭클 -

비폭력 의사소통의 두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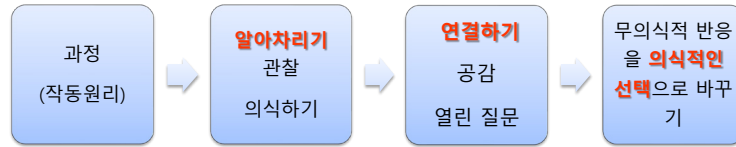
자극
(말/태도/행동/상황)

- ◆ 폭력에 자동반응으로 폭력으로 대응
자동반응 = 판단/평가



- ◆ 진심과 연민으로 살펴보기
만족한 행동 = 연결

비폭력 의사소통의 두 인식 2



◆ 어떻게 무의식적 반응을 의식적 선택으로 바꿀 수 있을까?

비폭력대화 NVC

비폭력대화 NVC는 Nonviolent Communication의 약자로 마셜 로젠버그 박사에 의해 고안되었다. 때로는 연민의 대화 (Compassionate Communication)로 부르기도 한다.

NVC는 우리가 낯 때부터 지닌 연민이 우러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대화방법 (말하기와 듣기)이다. NVC는 건디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대화(커뮤니케이션) 방법이다.

비폭력대화의 두 측면

◆ 공감적으로 듣기

-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을 바탕으로
- 공감적인 태도로
-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건
-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충분히 경청하기

비폭력대화의 두 측면

◆진솔하게 표현하기

- 비판적이고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습관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 자기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명료하게 인식하면서
 - 진실하게 표현하여 상대방부터 저항이나 반격이 아니고
 - 협력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는 대화의 4단계
 - 관찰 / 느낌(감정) / 욕구(필요) / 부탁

4단계 NVC 모델

솔직하게 표현하기

내가 _____을
봤을 때, 들었을 때

관찰
Observation

저는 _____라고
느껴요.

느낌
Feeling

왜냐하면 저는 _____가
중요하게 때문에.

욕구
Need

그래서 _____를
해줄 수 있겠어요?

부탁
Request

공감으로 듣기

당신이 _____을
봤을 때, 들었을 때

당신은 _____라고
느끼나요?

왜냐하면 당신은 _____가
중요하기 때문인가요?

당신은 제가 _____하기를
원하세요?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 공동체사회에서 계급사회로....

◆도덕주의적 판단 - 고집쟁이, 게으름뱅이, 마초

내가 옳아 / 그건 나쁜 짓이야 (판단/비판하기)
넌 똑똑해 / 그 사람은 권위적이야(꼬리표달기)

◆비교하기 - 누구는 책을 많이 읽는데,,넌 뭐하니?엄마친구 아들은~~~

◆책임부정하기 -해야만 한다, 어쩔 수 없다

학교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제도상의 규칙
다들 대학에 가니까 가는 거야. - 막연한 이유
상사가 고객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거야. - 권위자의 지시
다른 애들이 다 담배를 피우니까 나도 피웠다. - 집단의 압력
네가 먼저 화나게 했잖아. - 탓하기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 공동체사회에서 계급사회로....

◆강요하기 – 두려움, 수치심, 죄책감

떠들면 감점이야.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믿기 -> 학생이라면 공부해야 해.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이용하여 상대에게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말하기

-> 너는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해. 네가 만일 부모님께 관심을 가졌다면 그렇게 했을거야.

◆ 상과 벌을 당연시 하는 말

넌 맞아도 싸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성숙한 사람은 감정의 여러 가지 미묘한 차이를
마치 교향곡의 여러 가지 음처럼,
강하고 정열적인 것부터 섬세하고 예민한 느낌까지
모두 구별할 능력이 있다.**

- 롤로 메이(Rollo May)

직면하는 문제....

- ◆ 습관적으로 비판적이고 시니컬한 대화
- ◆ 회의와 모임에 있어 옳고 그름의 직설적 지적
- ◆ 감정 어휘없는 논리적 강한 어투 언어구사
- ◆ 이념적 경직성과 투사(fighter)의 선명성
- ◆ 패배의 경험과 분노, 내면적이 자기판단의 과도함
- ◆ 비폭력, 평화, 생명의 말들은 풍성하지만 이에 대한 삶의 경험빈곤

응보적 질문	회복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뭐가 잘못되었지? ■ 누구 탓인가? ■ 옳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 이들은 왜 그토록 어리석고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인가? ■ 왜 또 날 괴롭히지? ■ 내가 만일 피해를 본다면 어떻게 날 보호할 것인가? ■ 어떻게 이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책임질 일은 무엇인가? ■ 사실은 무엇인가? ■ 무엇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일까? ■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 승승의 문제해결이 어떻게 가능할까? ■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 이를 통해 어떻게 큰 그림을 볼 수 있을까?

• 탐구질문

상대가 진정 변화되기를 바랄 때 상대가 나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의 진정한 동기는 무엇이기를 바라는가?

나의 이야기가 강요(지배하는 힘)으로 전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대와 협력하는 힘을 구축해서 상대가 나의 부탁에 응할 확률을 높이려면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것인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평화의 언어, 두 가지 중요한 질문

•우리의 내면에서 지금 생동하는 것이 무엇인가?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성장과 변화의 요소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그 어떤 기술보다 훨씬 더 기본적인 것,
바로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 존 월우드